

신협에서 하세요 행복!

아침 운동이든
내 집 마련 계획이든
든든한 노후 준비든

뭐든지 하는 만큼 행복해질 거예요



신협 모델
조보아

한국사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vol. 538 May 2025.5

한국사진

VOL.538



한국사진
www.pask.net
The Journal of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5
2025
May

제43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KOREA PHOTO EXHIBITION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2025

YeongWol Storytelling

Photo Exhibition

20
2005-2025

동강사진박물관
DONGGANG MUSEUM OF PHOTOGRAPHY



이향룡_그들만의 버스킹

동강 사진 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 전시기간: 2025. 05. 13(화)~06.29(일)
- 전시장소: 동강사진박물관(공모), 영월문화예술회관(추천작가)

■ 개전 및 시상일시: 2025년 5월 31일(토) 2시 ■ 시상장소: 영월문화예술회관 강당 (2025 PASK AWARDS)

Contents

May 2025 Vol.538

Cover Story



이향룡(울산) - '그들만의 버스킹'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대상 수상작

「그들만의 버스킹」은 우연히 마주친 거리의 한 장면에서 시작된 사진입니다. 소원도 안, 말없이 서 있는 마네킹들.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소리로 증명하듯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이 장면은 마치 한 시대의 감정 지형도를 펼쳐 보이듯 했습니다.

03

Headnote

사진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06

특집

사진진흥법 토론회 후기
사진진흥법 토론회 - 발제 홍현철

14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현장스케치 -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대상 이향룡 작가 '그들만의 버스킹'
운영위원장평 - 한국 사진예술의 희망찬 미래 '확인' - 이경래
심사위원장평 -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를 마치고 - 김양평
인터뷰 - 낯선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니 '큰 상' - 대상 수상자 이향룡 작가

66

전시광고

[김용구 사진전] 훌려갈 것인가 vs 멈추어 설 것인가
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 김용구(안동)

70

전시광고

[김종구 개인전] 수 많은 사연 품은 '순간 포착' 풍경
기억 속의 광안리 - 김종구(부산)

74

전시광고

[박덕률 개인전] 닫집 색채, 문살 무늬, 불단 관념까지
절집은 모든 게 꽃이다 - 박덕률(창원)

78

전시광고

[이강석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30년 사진 여정, 그 미학을 따라서
통영, 그 바람의 선율 - 이강석(통영)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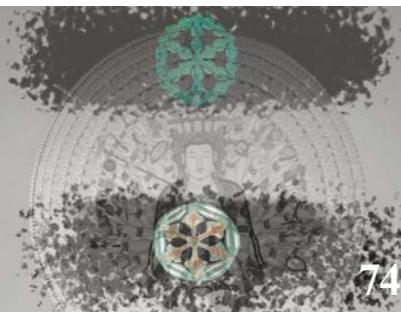
Photo Essay 01

바닥없는 블랙홀같이 팽창하는 우주처럼...
꽃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시간 - 장창근(속초)

86

자상전 1

푸른 산 빛 깨치고 갈대 밭 흰 빛 속으로
훈(魂) - 이정휘(수원)



Headnote



사진의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진예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우리 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예술계 관계자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진은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일상의 예술이지만, 오랜 시간 미술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독립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사진박물관'이 '서울사진미술관'으로 변경된 사례는, 사진이 여전히 정책 결정의 현장에서 독립적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진이 문화예술 진흥법상 명확히 규정된 독립 예술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이에 걸맞은 진흥 체계와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이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협회는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향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술로서의 사진이 국가 정책 안에서 마땅한 위상과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 수 찬

Contents

May 2025 Vol.538



90



98



108

90

Photo Essay 02

얼굴 감추어도 원초적 본성 '그대로'
페르소나 - 박영숙(대구)

94

지상전 2

[우아미 사진연구회] 박순정, 송진숙, 양인선, 오문자, 이화순
5人 작가 꽃 이야기

98

Review & Preview

로베르토 와르카야 사진전 - A sombre Aspect
주상적인 인식자 - 김재훈

사진강좌

104

Travel destination

東夷 민족은 동북공정이 두렵지 않다

문화강국 대한민국 - 최승언

108

Photo Theory

너무나 매혹적인 정물사진 IV

감정빼고 본질 드러내다_신즉물주의(New Objectivity) - 윤은숙

협회소식

11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업계소식

117

Gallery

이강석 개인전 외

한국사진
www.pask.net

발행인 | 유수찬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날 | 2025년 5월 1일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위원장 | 백민종
출판팀장 | 손석윤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점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 「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안내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제 7 회

천태사진공모전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주관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 운영위원회
행사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불교천태종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자연을 사진예술로

승화하여 21세기 기록 문화의 향상을 기하고자

'제7회 천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 9월 17일~24일

전시 12월 3일~8일, 한국미술관
(서울시 인사동길12 대일빌딩 한국미술관2층)

입상자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

● DSLR, 드론(촬영허가서 첨부)으로 촬영한 작품만 심사(허가관련 위
법 사항은 작가 책임).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사용권은 천태종에 있음.

● 작품의 초상권과 관련한 사항은 작가의 책임.

● 출품 후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 및 수신이 불가할 경우 주최 측에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불가.

● 디지털 합성 또는 과도한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진, A.I. 작품은 심사
제외. 창작적 의도로 보정을 한 경우 원본도 첨부(심사 창조용).

● 수상작과 동일작을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수상 취소.
상금반납은 물론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가 유보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의함.

공모 개요

주 제	소백산국립공원, 단양 지역 자연 풍경, 사찰 및 불교 정신을 담은 작품, 천태종 관련 사진 우대.
자 격	제한 없음
규 格	장별 3,000픽셀, 해상도 300dpi, 용량 10MB 이상 JPEG파일. 출품작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촬영한 것으로 한함. 작품의 파일명은 반드시 <작가명-작품명.jpg>로 할 것. 규격 파일형식 암수, 규격 파일형식 미달은 심사 제외.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타 공모전 출품 및 타인명 출품 심사 제외. (추후 인지 시에 수상 취소)
출품방법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파일을 첨부해 E메일로 접수.
출 품 료	없음.
접수기간	2025년 9월 17일 ~ 24일
접 수 처	Email : cheontaecmb2@kakao.com Tel: 02-723-1559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금 상	1명	상장 및 상금 500만 원
은 상	1명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동 상	3명	상장 및 상금 각 100만 원
가 작	10명	상장 및 상금 각 30만 원
입 선	20% 이내.	상장 및 상품

*입상자에게는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입회 점수가 부여됩니다.

‘사진, 이젠 정책의 빈칸을 채워야’ –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사진_오건호(보도사진분과 부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무국장) 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
개최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참석한 내외빈들



참석 외빈을 소개하는 유수찬 이사장 개최 인사말을 하는 박수현 국회의원 축사를 하는 박홍근 국회의원 축사를 하는 황희 국회의원 토론회 좌장 이범현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가 주관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5월 1일(목),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김윤덕·김주영·오세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를 비롯한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비롯해 임오경, 이연희, 황희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진계의 제도화 논의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진은 이제 단순한 예술의 한 분야를 넘어, 국민

누구나 향유하는 일상의 예술로 자리 잡았다”며, “이제는 사진예술이 문화정책 안에서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사진 담론을 예술 장르의 내부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상예술(daily art)’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정책적 언어로 전환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발제에 나선 흥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생활체육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하는 예술로서 사진의 공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도 “사진이 오랫동안 미술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어 독립적인 정책 기반을 갖지 못했다”며, 법 제정을 통한 위상 회복을 촉구했다. 또한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사진



토론회 참석 외빈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박수현 국회의원과 유수찬 이사장(사진 맨왼쪽)부터 현대예술사진학회장 이필, 국회의원 이연희, 황희, 김주영, 박수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국회의원 조계원, 박홍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융호성)

특집 사진진흥법 토론회 후기



토론회 발제 발표를 하는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 본부장

산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정부 인증 워터마크'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법안이 단지 예술 지원을 넘어서 산업 보호와 인프라 확충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법안은 사진이라는 장르를 국가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개별 정책 수립을 통한 무형적 이익이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정책적 관점에서 이번 제정 논의의 상징성과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단순한 창작 지원을 넘어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체계 정비, 국제 교류 기반 마련 등 '사진진흥법'이 담아야 할 구체적

방향이 다층적으로 제시되었다. 유수찬 이사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사진은 기록의 수단을 넘어 시대의 언어이자 감성의 예술"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사진예술이 정책의 중심 무대에 서고, 사진계 전체가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수년간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기초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 향후에도 협회는 관련 예술 단체, 국회, 정부 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 제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발제자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발제자 이 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

발제자 이 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
발제자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 관광 수석 전문위원

토론자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 관광 수석 전문위원
토론자 임안나 상명대학교 사진영상 미디어학과 교수

토론자 이원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교수
토론자 이원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교수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 이범현 민주주의 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토론회를 경청하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왼쪽)과 박수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



토론 발언을 하는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 수석 전문위원



토론 발언을 하는 임안나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교수



토론회 후 박수현 국회의원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사진 맨 왼쪽부터 토론자 김영훈 전문위원, 좌장 이범현 상임대표, 발제자 김하영 위원장, 한국프로사진협회 전병재 회장, 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유수찬 이사장, 발제자 홍현철 본부장, 발제자 이 필 학회장, 토론자 임안나 교수, 토론자 이원철 교수, 사회자 서설희 교수)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

발제자_홍현철(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본부장, 전주문화재단 이사)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의 시대라 불러도 좋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아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K-팝, 게임, 웹툰 등은 이미 거대한 문화산업으로 성장했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산업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은 상업화된 문화에 종속되는 존재로 문화적 의미의 변질과 본질의 파괴라는 부정적 견해도 상존하고 있다.

문화란 이성에 바탕을 둔 인간의 고유한 활동이며, 현대사회가 인간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예술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며 경계를 더욱 확장 시켜 있지만 큰 틀에서 인간의 감정, 생각, 문화를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이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또 다른 한 축인 순수예술은, 문화산업과 다른 예술 본질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정책 논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한국 2035>에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문화, 체육, 관광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발전에 빌 맞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문화산업 및 AI 위주 중심 정책은 전통적 인간의 창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 논리에 경도된 불균형한 정책은 결국 순수예술 창작자의 역할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고민 부족으로 전통적 순수 예술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경제성 논리로 인한 창작 활동이나 기초예술교육 등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문화예술 지원 등이 산업 논리에 치우친 문화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순수예술에 대한 피해는 뻔한 것이다. 순수예술은 시장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동시에 무조건적인 보호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견제와 문화적 가치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예술정책은 공동체의 한정된 유·무형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결정이기에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문화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순수예술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고, 공공재로써 문화적 사회참여의 순기능을 지속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 진흥법의 한계

문화예술 진흥법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창조와 전통문화 전수 전달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조 (정의)는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아울러 여기서 파생되는 순수예술 분야의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의 경우 문화예술 진흥법의 법적 근거로 진흥 및 지원을 하는 대상이어야 한다. 사진은 정보통신 시대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있어 미술·국악·영화·음악 등의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정책과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독립 예술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예술 차원에서 미술의 일부로 간주되어 온 오랜 관성 때문에, 여전히 미술의 하위 장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개별 장르로서의 독립적 정책 접근이 미비하며, 이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뿐만 아니라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창작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진의 창작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 한국 2035>가 남긴 정책 과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 한국 2035>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균형 발전과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핵심과제 중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장르별 진흥법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명문화한 것은 사진계로도 환영할 만한 진전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 설계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공공적 책임에 대한 방향 제시가 미흡한 아쉬움도 드러난다.

‘민간 주도’, ‘수평 구조’, ‘지역 기반’과 같은 키워드가 전면에 배치됐지만, 순수예술의 공익적 가치,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예술가의 공적 역할에 대한 제도적 구상은 뚜렷하지 않다. 또한, 정책 문서에서 지역 기반 문화예술을 별도로 구분한 시도는 의미 있지만, 그 실행 방안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공공재로서의 예술이 오늘날의 문화정책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리에 놓여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순수예술 장르와 예술가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순수예술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제안 – 일상 예술(daily art) 모델

단순히 특정 직능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의 정책은 현시대의 문화정책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순수예술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전환의 한 축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예술(daily art)’ 개념이다. 예술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의 관점 중 효용론적 관점은 여러 측면에 있어 동시대의 일상화된 예술과 궤를 같이한다. 예술을 향유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이전 경험과 생각, 그리고 그것들과 예술작품의 연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들로 확장된다. 또 동시대에 이르러 일상에서 예술을 접하는 쉽고 다양한 방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술은 이러한 효용론적 관점으로 끊임없이 일상화, 대중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예술에 대한 오랜 편견들이 점차 허물어졌고 예술과 결합 된 테크놀로지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도 다방면으로 열리게 됐다. 특히 디지털 산업으로 인한 여러 예술 플랫폼의 발전은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왔다. 이로 인해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멀고 어려운 것에서 친밀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크게 변화했고 ‘예술적’이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는 일상의 행위들이 잣아지고 자연스러워졌다. 예술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일관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거의 모든 이들이 독창성을 띤 예술가로 변모할 수 있으며 그럴수록 더 많은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게 된다.

일상예술 모델은 이러한 환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간 시행해온 단순한 문화예술 교육이나 취미활동을 넘어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평생교육 체계 안의 작은 보조적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이고 구조화된 예술 참여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마치

핵심키워드	주요 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민간 주도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전면에 내세운 문화 생태계 전환 시도	공공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순수예술에 대한 구조적 접근 부족
수평적 구조	기존 중앙집중형 지원체계의 탈피, 참여자 중심의 문화 행정 전환 강조	실행 수단과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전략이 부족
지역 기반	지역 문화자원의 자율적 활용과 분권적 지원체계 구축 지향	지역 간 격차 고려 미흡하며,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언급 부족
새로운 문화정책 시대에 맞춰 순수예술과 예술가의 역할 재설정이 필요		

[표1] 「문화한국 2035」 – 문화예술 분야 핵심키워드 중심 요약

특집 사진진흥법 토론회 발제

생활체육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커뮤니티 형성에 이바지했듯, 일상 예술은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 활동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 정서적 복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델안에서 매개자로서의 예술가는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창작과 교육, 기획을 아우르는 문화 커뮤니티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자리하게 되며, 참여하는 시민은 단순 수강생이 아닌 함께 창작하고 표현하는 예술의 주체가 된다. 매개자로서의 예술가는 이를 통해 일정한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전문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지고 일상예술의 참여자는 개인의 정신적 안정과 공동체 감수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일상예술이 유발하는 정신 건강, 공동체 회복, 세대 간 소통, 지역 문화 재생 등의 공공적 효과는 매우 크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상예술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창작자의 존엄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모델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실천전략이다.

일상예술을 실현하는 실천전략 – 왜 ‘사진’인가

‘일상예술’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참여의 문턱이 낮아야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르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사진은 일상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닌 드문 예술이며, 일상예술 모

델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장르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들은 이미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고, 표현한다. 이는 진입 장벽이 낮고, 장비나 공간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며 표현과 기록, 감정과 관계의 매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진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진은 지역 문화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홍보나 관광자원의 발굴, 디지털 아카이브 제작 같은 공공적인 활동을 병행하며 정책적 파급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일상예술을 통한 사진은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수입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사진작가는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강사, 아카이브 기획자, 교육 콘텐츠 제작자,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역할을 통해 지역 기반 문화 활동의 주축이 되어 소득 창출과 전문 창작을 병행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영역과 전문 창작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투트랙 구조를 통해 사진예술은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참여영역을 통해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들이 전문 영역의 소비자 또는 후원자로 연결되어 예술 생태계 전체가 자생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단위의 예술 기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문화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참여, 표현, 공공성, 지역성, 생계 기반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과 가치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진 진흥법 – 선도적 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사진은 1839년 사진술의 발명 이래 200년 동안 대 변혁기를 거쳐 오늘날 다양한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며 다보스 경제포럼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사진예술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사진은 국민의 일상에서 손쉽게 체험하며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새로운 창작과 재해석을 보여준다. 또한, 영화 및 영상, 광고, 그리고 출판, 유튜브, 온라인 홍보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화산업의 토대로 자리 잡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 영향력과 역할의 증대로 이미 문화예술의 중심에 있지만 정작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보호, 그리고 혜택에서 소외된 것이 현실이다. 사진예술가의 위치는 사진 산업의 발전에 집중되며 창의적인 순수예술영역과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아직 미약하다.

사진은 그동안 대부분의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되어 우리를 콘텐츠 강국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어렵게도 지금도 사진예술은 미술진흥법의 미디어아트 안에 종속되는 개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영화산업진흥법과 만화진흥법 등의 육성책을 통해 한류 문화와 세계적 인터넷 강국의 대열에 우리의 문화를 옮겨놓았듯이 ‘사진진흥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를 향한 문화강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이다. 사진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공공재의 사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은 단지 하나의 장르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는 앞서 말한 일상예술 모델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이며, 공공성과 순수예술 생태계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법률 제정 및 정책 지원 없이는 사진의 공공적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해당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창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 문화 연계, 국제교류 등 다종적인 지원 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장르 진흥을 넘어, 향후 새로운 시대의 문화예술 정책의 구조와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구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한 축인 순수예술 분야에서 시민의 참여영역을 확대하고, 우리가 잊어버린 감수성과 공동체 예술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이며, 사진은 그 이야기를 가장 쉽게 담아낼 수 있는 예술 장르이다. 사진은 참여와 표현의 통로이자, 공동체 구성원을 연결하는 시각 언어이며, 사진 창작자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사진은 순수예술로서 디지털화되어 메말라가는 공동체의 일상과 감각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의 새로운 문화정책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순수예술 생태계 균형을 복원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사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통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인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상처 입은 우리의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을 보여주길 바란다.



[표2] 일상예술을 통한 순수예술 생태계 전환 구조



[표3] 사진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스케치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성료 대상에 이향룡 작가 '그들만의 버스킹'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작 및 최우수상, 우수상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사진 가운데),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들

국내 최대 규모의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가 주최·주관한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지난 4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울 대한민국예술인센터 4층 로운갤러리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심사는 대회장 유수찬 이사장, 운영위원장 이경래, 심사위원장 김양평을 비롯한 9인의 심사 위원과 운영위원, 관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공개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1,850점의 출품작에 대해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 개별 채점 방식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

유수찬 이사장은 “이번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을 통해 한국 사진예술이 지난 높은 수준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진인의 열정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전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모습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지역별 출품 현황 통계

지역	출품현황
강원특별자치도	72
경기도	320
경상남도	139
경상북도	147
광주광역시	68
대구광역시	88
대전광역시	44
부산광역시	40
서울특별시	266
세종특별시	0
울산광역시	51
인천광역시	32
전라남도	148
전북특별자치도	150
제주특별자치도	76
충청남도	80
충청북도	85
해외	4
비회원	40
총합	1850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사진대전이 한국 사진문화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양평 심사위원장은 중심으로 권기갑, 선종백, 유은숙, 이상영, 장숙자, 장영길, 최복수, 최성용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치열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의 영예는 이향룡 작가의 ‘그들만의 버스킹’이 차지해 한국사진작가 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최우수상은 김금자 작가의 ‘호기심’, 우수상에는 김상수 작가의 ‘노부부의 골목편지’, 김화분 작가의 ‘풍물’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특선 37점, 입선 329점 등 총 370점의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추천작가상에는 위수환 작가의 ‘정월 대보를 고씨움’, 이병화 작가의 ‘고요한 아침’, 최임순 작가의 ‘Snowy mountain range’가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25년 5월 31일(토) 오후 2시,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025 PASK AWARD’에서 성대하게 거행될 예정이며, 수상작 전시는 5월 13일(화)부터 6월 29일(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공모)과 영월 문화예술회관(추천작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사진제공_서능원(홍보위원회 위원, 안양지부)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방안을 설명하는
이경래 운영위원장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방안을 설명하는
김양평 심사위원장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상 선정 후 기념촬영을 하는
최성용·선종백·장영길 심사위원(사진 맨왼쪽부터)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방법을 심사위원들에게 안내하는
김형준 사무처장

운영위원장평



한국 사진예술의 희망찬 미래 ‘확인’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위원장 이 경 래

올해 대한민국사진대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470명의 작가가 1,850점의 작품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시선과 주제를 담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와 미래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규정에 따라 인물·다큐, 풍경·생태, 디지털 창작 및 특수사진, 관광·스포츠,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였고, 부문별 출품 수를 고려하여 입선과 특선을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심사위원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율하였습니다.

심사는 전 과정에서 엄정한 기준과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심사위원 전원이 개별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과 현장 심사 지원 체계를 함께 운영하여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사진대전은 우리나라 사진예술의 수준을 기능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은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유수한 대회장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 심사위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출품해주신 모든 작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사진대전이 창의성과 예술적 도전을 응원하는 열린 장으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심사위원장평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를 마치고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위원장 김 양 평

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에는 470명의 작가가 총 1,850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제와 시선이 담긴 작품들이 모였고, 이를 통해 국내 사진예술의 깊이와 확장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사진대전은 규정에 따라 인물·다큐, 풍경·생태, 디지털 창작 및 특수사진, 관광·스포츠, 기타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부문별 출품 수를 고려해 입선작과 특선작을 비율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예술성, 창의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위원 전원이 개별 채점하여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상은 이향룡 작가의 「그들만의 버스킹」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쇼윈도 안의 마네킹, 거리에서 노래하는 예술가, 그리고 무심히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세 존재를 대비시켜, 현대 사회의 관계 단절과 감정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단순한 거리 풍경을 넘어선 통찰력 있는 시선과 높은 예술적 완성도는 본 대전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으로 심사위원단의 최고 점수를 얻어 대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김금자 작가의 「호기심」, 우수상은 김상수 작가의 「노부부의 골목편지」와 김화분 작가의 「풍물」이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선 37점, 입선 329점이 선정되어 총 370점의 수상작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상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 작품들이 많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은 작가의 진정성 있는 시선과 독창적 해석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사진대전은 사진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작가들의 성장을 이끄는 귀중한 무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사진대전이 사진예술을 통한 창의와 도전의 장으로 지속 되기를 바라며 수상자 여러분의 성과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5월

인터뷰

낯선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니 ‘큰 상’ 대상 수상자 이향룡 작가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향룡 작가의 작품 「그들만의 버스킹」은 거리라는 일상적 공간 속에서 현대사회의 감정적·관계적 단절을 예리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침묵과 외면 속에서도 끽끗이 존재하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사진이라는 언어로 풀어낸 이향룡 작가를 만나,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사진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았다.



Q : 우선,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A :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들만의 버스킹」은 우연히 마주친 거리의 한 장면에서 시작된 사진입니다. 소원도 안, 말없이 서 있는 마네킹들. 그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소리로 증명하듯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사선도 주지 않은 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이 장면은 마치 한 시대의 감정 지형도를 펼쳐 보이는 듯했습니다.

Q : 작품 속 인물들의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A : 말을 하지 않지만 시선을 끄는 마네킹, 소리를 내지만 외면당하는 거리의 예술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보려 하지 않는 행인들. 이 세 주체 사이의 간극은,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관계의 단절’과 ‘감정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지 거리의 풍경을 담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나치고 외면하는 방식,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도 끽끗이 살아가는 존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Q :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 작가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A : 사진은 순간을 붙잡는 기술이면서도, 때로는 침묵 속에서 말 없는 진실을 꺼내어 시각화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작고 낯선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말이 없는 장면, 설명이 필요 없는 감정.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상을 통해 저의 시선에 공감해주시

고, 그 조용한 울림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다른 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 무엇보다 ‘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진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시간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실기 경험만으로는 막연했던 개념들이 수업을 통해 명확해졌고,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나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조지 엘리엇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배우고 더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랍니다. 사진은 결국 ‘계속 배우고, 계속 바라보는’ 예술이니까요.

Q. 앞으로의 작업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A : 앞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 ‘내면의 시간’을 들여다보는 새로운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래된 친구들의 초상,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표정, 그리고 시간이 쌓여 만든 주름과 사선을 비추며, 그 얼굴 속에 담긴 이야기를 천천히 마주하려 합니다. 말보다 깊은 침묵의 얼굴, 그 속의 세월,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생의 숨결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무심한 거리에서 보여졌던 단절을 극복하고 어떻게 삶과 관계를 연결 할 수 있을지를 담아내는 시도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바라보고, 천천히 눌러 담는 사진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이향룡(울산) '그들만의 버스킹'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 문화상 작품상 수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제4기 사진작가과정
(사)한국예총 공로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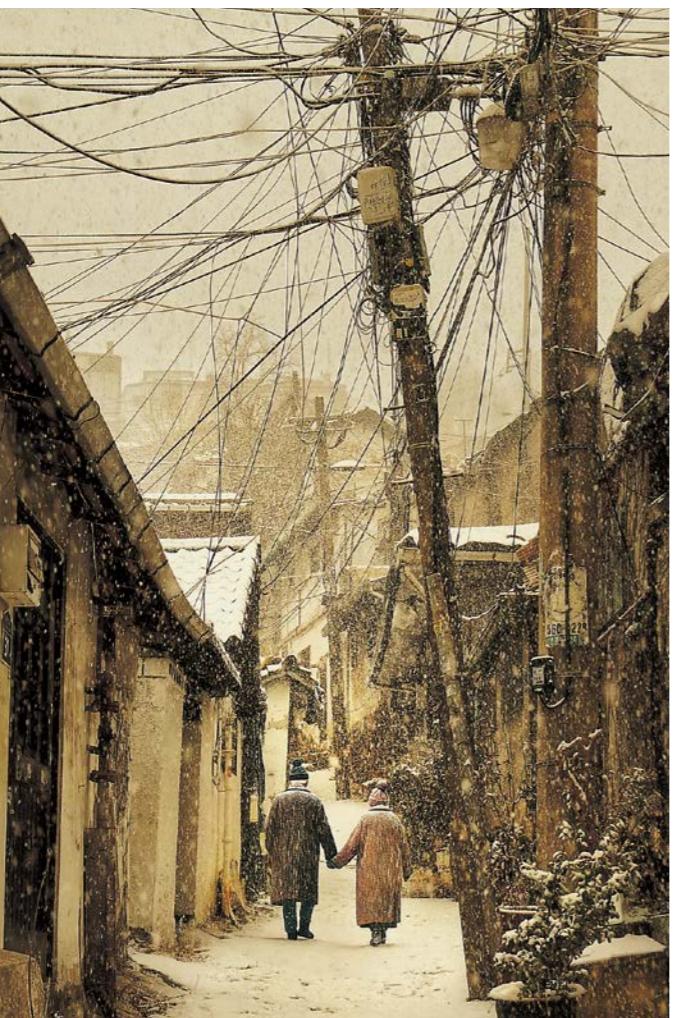
최우수상



김금자(충북) '호기심'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충청북도사진대전람회 우수상
천안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제2기 사진작가과정

우수상



김상수(서울) '노부부의 골목편지'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작품상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정부표창 서울특별시장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용산구지부 지부장
사진예술아카데미 제4기 사진작가과정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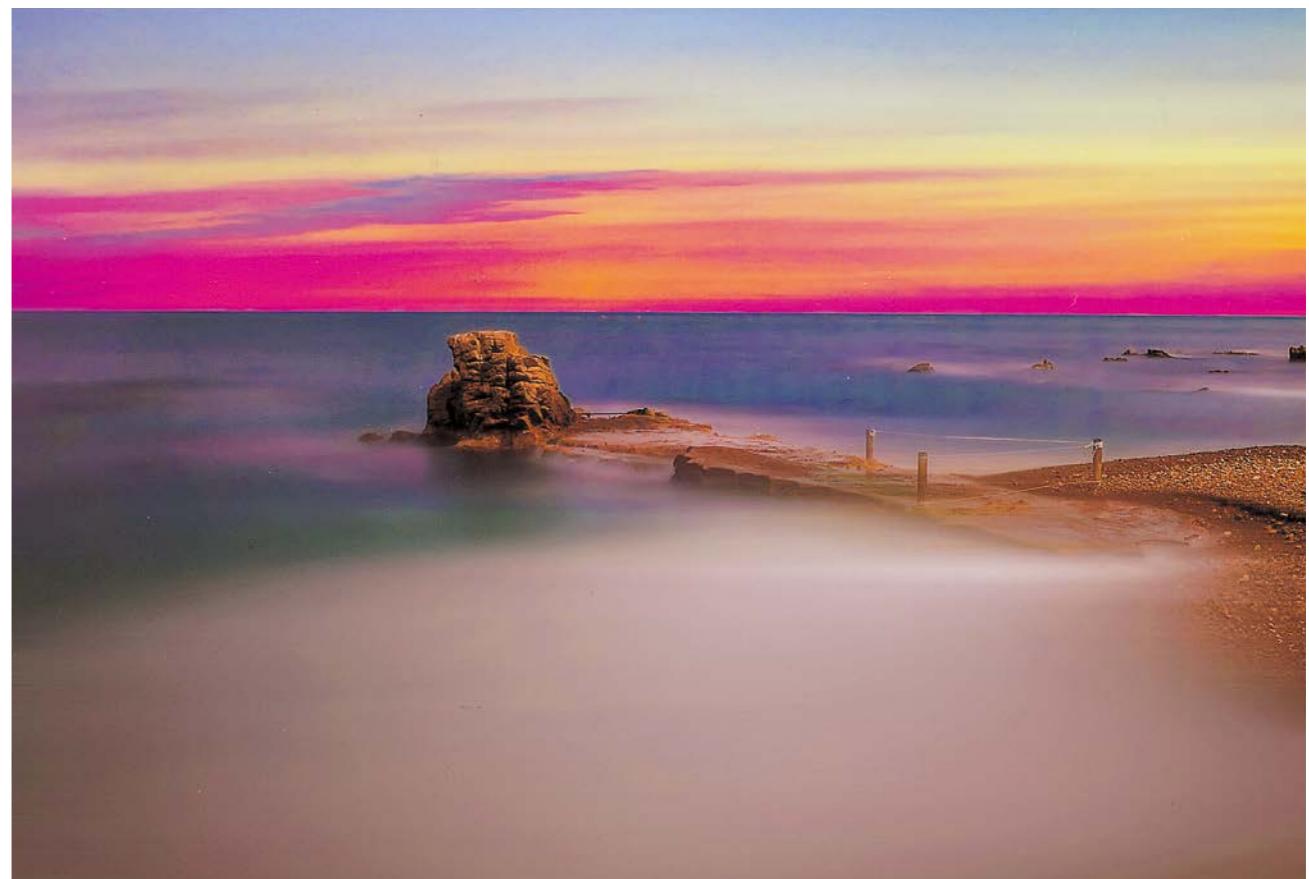
김화분(경북) '풍물'

남양주전국꽃사진공모전 금상
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정수상
관광영양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 홍보간사 역임

추천작가상



추천작가상



위수환(전남) '정월대보름 고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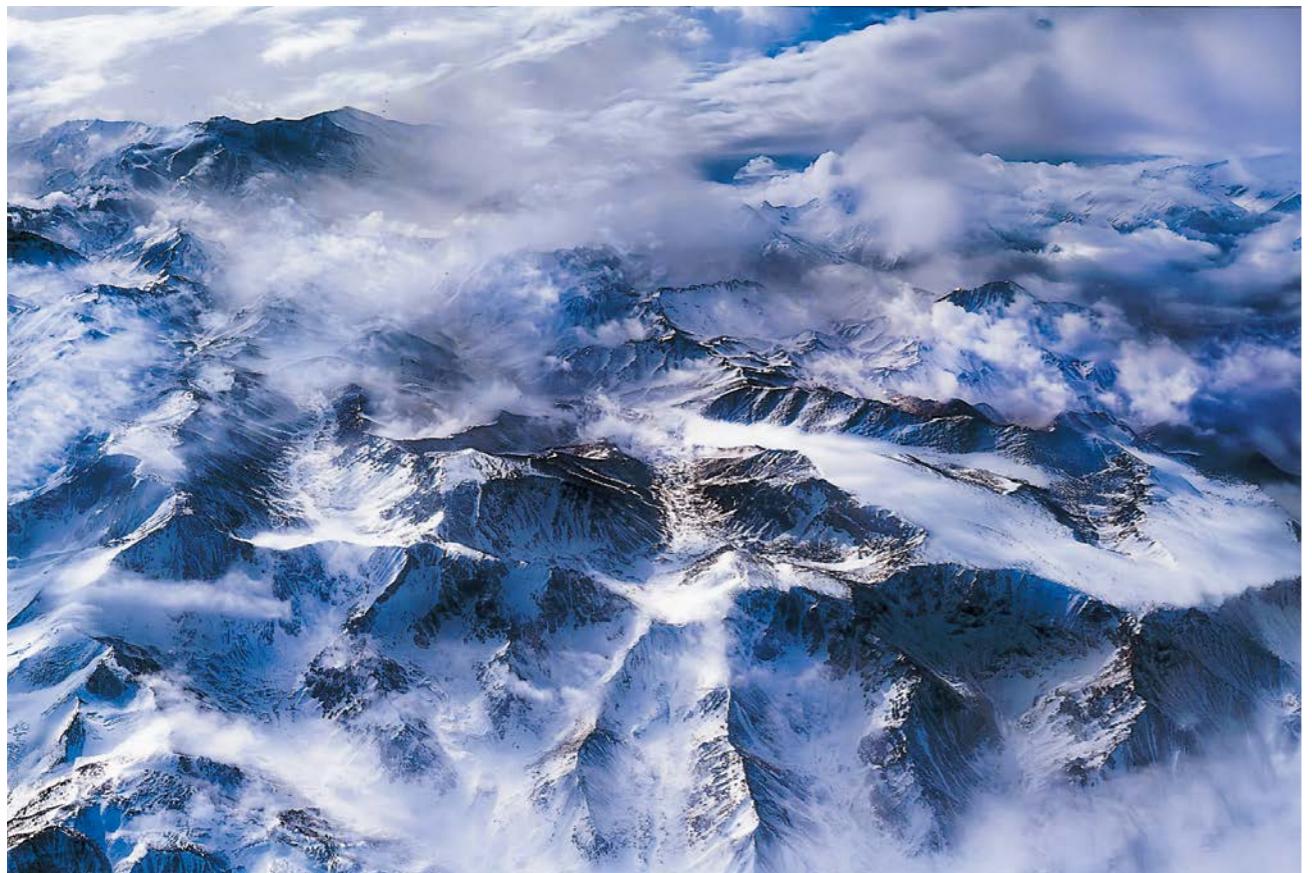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전라남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전라남도사단합동전 초대작가
대구·경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남도지회 사무국장



이병화(서울) '고요한 아침'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우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디지털아트분과 부위원장

추천작가상



최임순(서울) 'Snowy mountain range'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작가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서울특별시사진대전 대상
서울특별시동작구문화재단 이사



강동영(경기) '구성'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경기도사진대전 특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년분과위원회부위원장 역임



강성돈(대전) '우주의 흔적'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백제사진대전람회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대전광역시사진대전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광역시지회 기획간사



고광중(광주) '빨래터'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광주매일신문 초대작가
광주광역시지회 빛고을 사진회 활동
비경사진클럽 운영



김경아(울산) '미식축구'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울산시장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지회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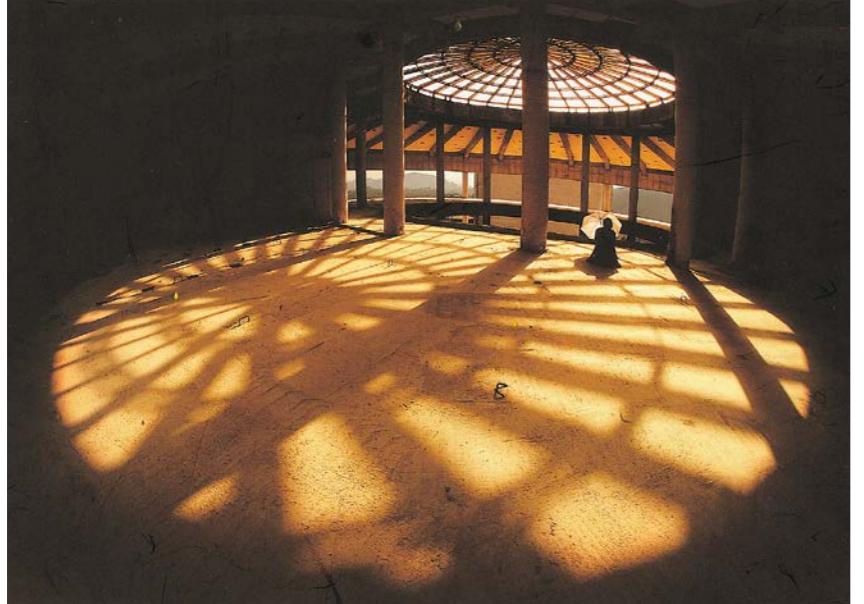
국향숙(서울) '클릭(Click)'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천구지부 사무국장
사진예술아카데미 제3기 사진작가과정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인부스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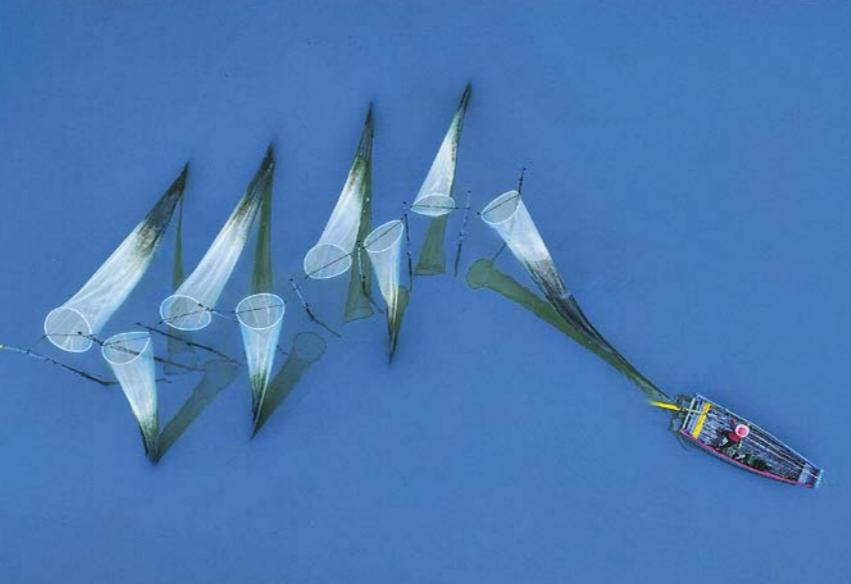
김경환(대구) '동행'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대구흑백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 감사
한국영상동인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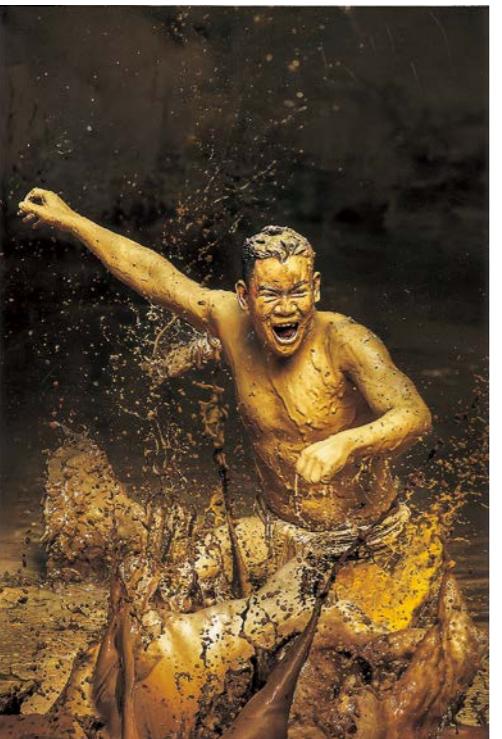
김달호(대구) '빛'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구광역시사진대전 대상 수상
대구사진비엔날레 참여
영남포토페스티벌 참여



김종일(강원) '어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철원지부 정회원
(재)철원문화재단 이사 및 철원문화원 감사
가천대학교(사진강사지도자과정)전문과정 수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사)한국미술협회행주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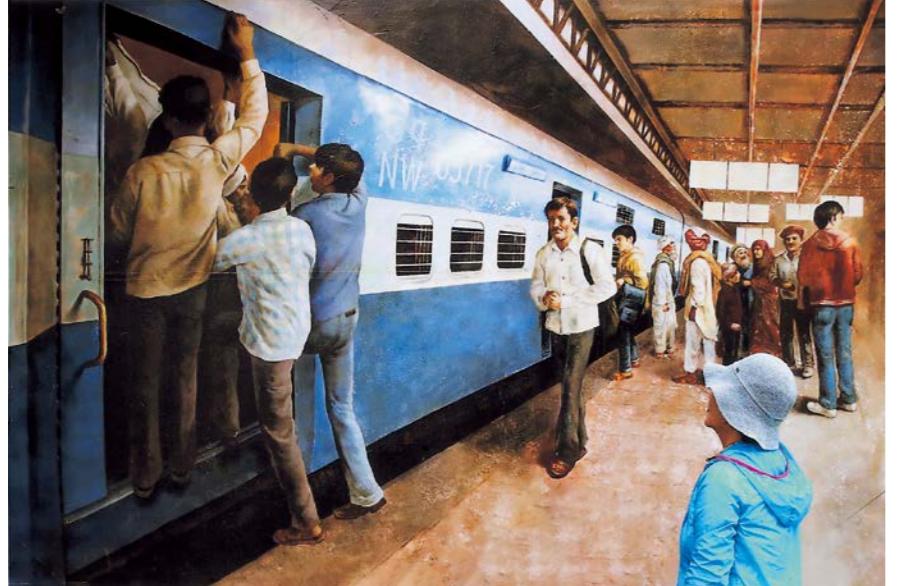
김선애(경기) '축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 문화상 작품상 수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제2기 사진작가과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 정회원
현)SHU간호학부 명예교수(박사)



김홍찬(대전) '호기심'

대한민국사진대전 다수 입상
전국회원작품전 십걸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신라미술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노국근(광주) '화상'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광주매일신문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사진예술아카데미 제2기 사진작가과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섭외간사 역임



박상돈(전남) '생을 보내는 밭걸음'

전라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전라남도사진대전 특선
공무원미술대전 우수상



문경란(전남) '다비'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외 다수
전남사진대전 우수상 외 다수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지부 정회원



박선희(제주) '미래인간'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사진예술아카데미 제4기 사진작가과정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초대작가회 사무국장
현대여성제주작가협회 이사장



박현재(전북) '천국으로 가는 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익산지부 지부장
원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익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역임



손정수(경기) '그날의 기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택지부 연구간사
대한민국정수사진대전 우수상
장노출사진대전 대상
고양전국사진촬영대회 금상
대구전국사진촬영대회 은상



서세형(경남) '어머니'

경상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우수작품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제4기 사진작가과정
2021. 진해예술촌작가 제1회 개인전



손홍현(광주) '승무'

광주매일전국사진대전 초대작가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광주광역시사진대전 대상
광주예총예술문화상 예술상 수상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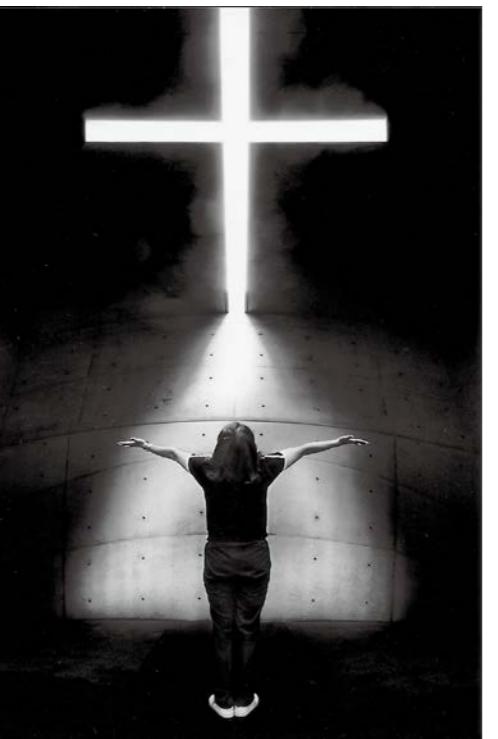
신경애(강원)
‘자연과 빛 그리고 희망을 꿈꾸다’

강원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민속사진분과위원장 역임



신명현(충북) ‘기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 문화상 출판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 문화상 회원상 수상
충북우수예술인상 수상
청주예술공로상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도지회 사무국장



신남수(충북) ‘빛’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충청북도사진대전 특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심사자격자
김해전국사진공모전 금상
늘빛사진연구회회장 역임



양미숙(인천) ‘외출’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제물포사진대전 특선
부천영상의적공모전 은상외 다수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회 진행간사



연도흠(경기) '추억소환'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제물포사진대전 우수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제4기 사진작가과정
화성문화원 이사
화성시지역학연구소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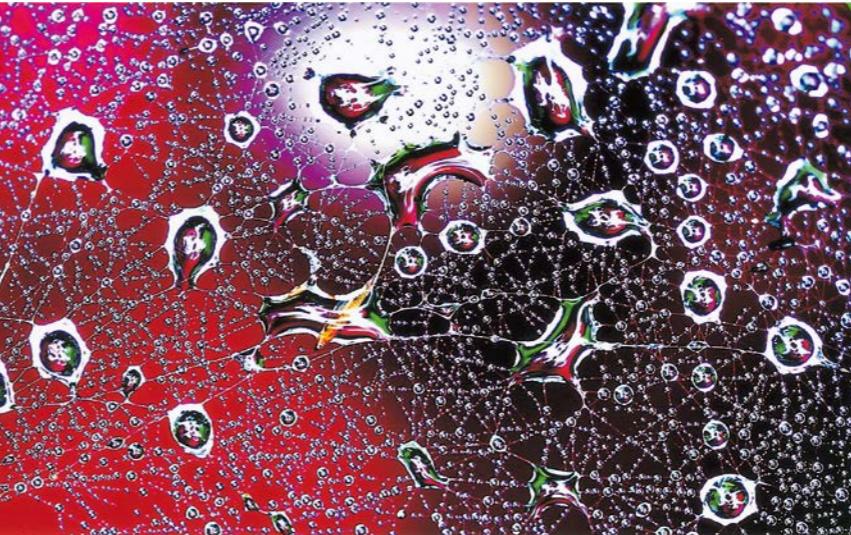
유진희(제주) '민속 한마당'

2022. 대한민국사진축전 동대문DDP 참여작가
2023. 대한민국사진축전 양재aT센터 참여작가
2024. 대한민국사진축전 양재aT센터 참여작가
2024. 제주산양큰엉곳 초대개인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회 정회원



오기종(광주) '봄바람 휘날리며'

대한민국사진대전 우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전 우수상
대통령표창 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현남도금형 (주)회장



윤판문(광주) '거미줄'

광주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광주매일신문사진대전 초대작가
무등미술대전 추천작가
농림부장관상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이기복(경기) '우리 탈'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경기도사진대전 특선
경기포토페스티벌 우수작품상
사진예술아카데미 제3기 사진작가과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
사무총장



이석준(서울) '건물 그리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환경사진분과 부위원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송파구지부 기획간사
농업회사법인죽은술전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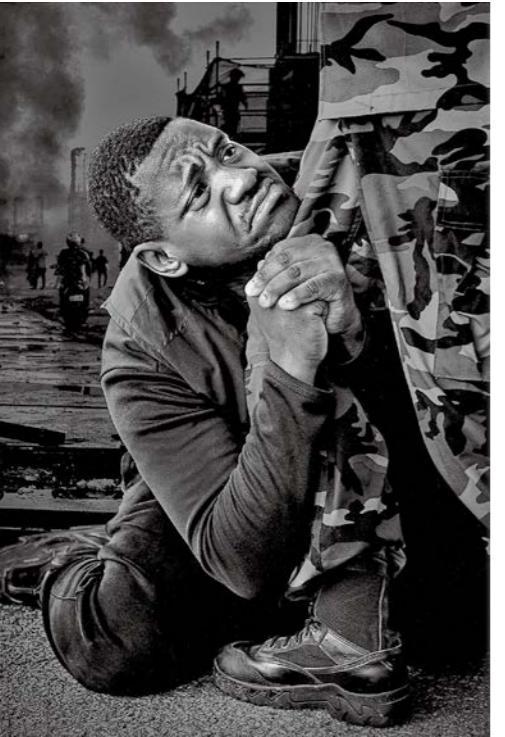
이목규(경북) '분정'

경상북도사진대전 초대작가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작가
흑백사진대전 초대작가
제물포사진대전 초대작가
삶사진연구소 소장



임효례(경기) '불심'

서울뉴욕포토페스티벌2015사진공모전 금상
경기도사진대전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교육전문위원회 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교육학회 회원



조영호(충남) '흔돈 속'

충청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충청남도사진대전 대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지부 지부장



최경순(경기) '하얀 세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공로상
하남예총 예술문화부문 대상
경기예총 특별공로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하남지부 지부장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스포츠사진분과 운영위원



조월신(경기) '나들이'

경기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
한국예총 과천지회장
과천문화원 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과천지부 지부장 역임



최봉영(대구) '아름다운 이끼'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서울서부검찰청 사무국장(검찰이사관) 역임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장(검찰이사관) 역임



최영규(서울) '극락왕생'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초대작가
백제사진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및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황진아(경기) '연주자'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대한민국사진대전 입선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작품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포지부 지부감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디지털아트분과위원



최종일(인천) '작업'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추천작가
제물포사진대전초대작가
대한민국사진대전 특선
대한민국예술축전 우수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부지회장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기금모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이 만큼 발전하였고 명실상부한 사진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전개하는 여러 활동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까지 이어간다면 사진예술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협회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장학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 350만원 이상 기탁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② 자문위원회

- 2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회의 참여 가능

③ 참여위원회

- 1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회에 참여 가능

④ 10만원 ~ 100만원 미만

- 이사장의 감사장 수여
- 위원장의 감사장 수여

〈전체 사진작가 1계좌 갖기 운동〉

1계좌를 100,000원으로 하여 장학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숭고한 마음이 모여 후진들을 위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3,000만원 기탁

2025년 5월 1일 기준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심재안 장학위원회위원장 1,000만원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 이사 200만원

이재운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2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 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종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횡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명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홍기 이사 30만원
조동희 강동구지부장 20만원
장일미 평택지부장 200만원
김옥진 이사 30만원
김양호 이사 30만원
강종관 부산지회장 30만원
윤판문 이사 50만원
김정이 부산지회 부지회장 100만원
김병철 광주지회 감사 10만원
신종천 홍보위원회 위원 10만원
김팔영 광주지회 부지회장 10만원
노연섭 순천지부 회원 10만원
김재업 이사 100만원
최차열 부이사장 100만원
이준택 전북도지회 감사 30만원
김동욱 순천지부장 30만원
이내교 이사 100만원
박승호 이사 50만원
김윤정 이사 100만원
2024년 장학금 지급 2,400만원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150만원
박현재 자문위원 100만원
반봉현 자문위원 100만원
조병우 자문위원 100만원
서성강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은효진 운영자문부위원장 50만원
김남규 자문위원 50만원
신성우 자문위원 50만원
윤종근 자문위원 50만원
이판수 자문위원 50만원
윤상섭 자문위원 50만원
김동민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완기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박용덕 운영자문부위원장 30만원
김달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윤식 자문위원 30만원
신우식 자문위원 30만원
안판종 자문위원 30만원
양법석 자문위원 30만원
오상석 자문위원 30만원
임계환 자문위원 30만원
홍성광 자문위원 30만원
최명호 자문위원 30만원
김삼경 자문위원 20만원
김석원 자문위원 20만원
김은곤 자문위원 20만원
김종호 자문위원 20만원
박국인 자문위원 20만원
박충순 자문위원 20만원
배원태 자문위원 20만원
오정균 자문위원 20만원
윤석환 자문위원 20만원
이명환 자문위원 20만원
정두원 자문위원 20만원
정해선 자문위원 20만원
조용진 자문위원 20만원
최갑수 자문위원 20만원
2025년 장학금 기탁

양성근 나주지부장 20만원
하봉걸 이사 50만원
이창훈 이사 30만원
김종호 고문 20만원
박인호 이사 30만원
정재문 경기도지회장 50만원
한용상 이사 30만원
전영복 자문위원 20만원
문제민 교육전문위원장 100만원
서산자부 20만원
한병률 운영자문위원 20만원
박노성 운영자문위원 20만원
김복순 이사 100만원
김효숙 자문위원 30만원
손석운 이사 100만원
황진이 군포사무국장 50만원
오기종 장학위 부위원장 1,0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송파구자부 200만원
이연숙 이사 200만원
권경애 환경분과위원장 30만원
이기준 서산자부 20만원
장홍균 강원도지회장 1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200만원
홍성철 충주지부 10만원
전태만 울산지회장 20만원
강우순 울산부지회장 10만원
류미숙 울산부지회장 10만원
김경아 울산사무국장 10만원
최진양 울산홍보간사 10만원
안광수 춘천예총회장 20만원
권선자 드론분과위원장 10만원
박윤창 자문위원 100만원
박성혁 대구지회 300만원
임성동 이사 50만원
조치호 강남지부장 30만원
학술평론분과 100만원
박병철 정읍지부 100만원

현재 잔액 238,013,313원

제9회 평택국제사진축전 (바깥전)

“한 장 말고 다섯 장으로 말하세요” 혁신 거듭하는 아홉번째 바깥전

[글, 사진제공_대회장 장일미(평택지부 지부장)]

올해로 평택국제사진축전(바깥전)이 아홉 번째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국제사진축전은 30회까지 진행해 왔던 '신형상공모전'의 명맥을 이어가는 평택지부의 가장 큰 행사이다.(이하 바깥전)

평택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바깥전'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한 장으로 하던 공모전의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한 사람의 작가가 다섯 장으로 출품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진작가들에게 사진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새롭게 열어 주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작가의 개념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사진을 공부하고 오래 사진을 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으리라 짐작한다. 작가의 의도나 사물에 대한 접근 방식을 표현하는데 한 장으로는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섯 장으로 보여주는 '바깥전'의 형태는 시의적절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모든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게 마련이다. 거기다 에필로그로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풍부하고 깔끔하겠는가. 다섯 장의 익은 사진은 포트폴리오의 기본 요소를 다 포함할 수 있다. 주제 구성, 창의성, 전달력, 독창성 등을 기획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작가들이 다섯 장으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염두에 얹어오고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첫 회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 사진 나무 사진 산 사진 등 중구난방으로 출품하는 작가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출품하고 관람자로서 사진을 감상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알게 되어 이제는 단편적 포트폴리오를 기획할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사진을 출품하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전시장을 벗어나 바깥 전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시장이라는 실내 공간에서만 전시하다 보니 액자 제작비와 액자 운반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전시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쌓이는 액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쌓였다. 사진은 찍고 나서 외장하드에 보관하면 아무런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 사진전을 한다는



건 순전히 남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인화하여 자신이 찍고 선별한 사진에 대해 감상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전시가 갖는 의미이다. 물론 타인과 공감하며 더 나아가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바깥전이 지난 의미는 그 규모의 방대함에 있다. 국내외 작가 130여 명의 작품 1,000 여 점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내가 좋아하는 작품의 성향은 어떤 것이고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 주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 저절로 현장에서 사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포트폴리오 작가 선정과 바깥전에 참여한 작가 중에 우수작가를 선발하여 익년에 다시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참여 작가들과 벽돌 한 장의 두께로 사진의 집대성이 할 수 있는 사진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택호라는 자연경관이 주는 평온함과 신선한 공기를 맑으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데크를 걷는 것도 독특한 체험이 될 거라 확신한다. 기울 나들이와 함께 하는 바깥전에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올해도 성황을 이루리라 생각하니, 벌써 기슴이 부풀고 설렌다.



2024 우수작_이권희



2024 우수작_정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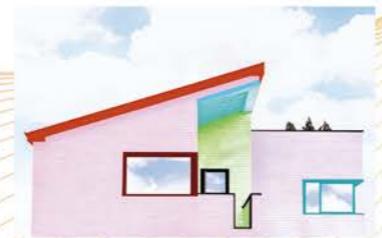
2024 우수작_김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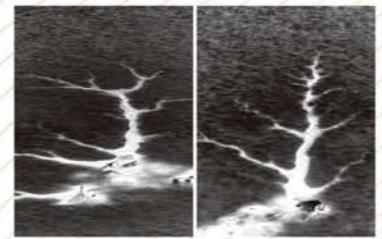
2024 우수작_박봉길



2024 우수작_이만태



2024 우수작_이석준



2024 우수작_이영섭

2025 제9회 평택국제사진축전

사진주제 (사진으로) 말하다 느끼다 공감하다

접수기간 2025. 6. 23.(월) ~ 2025. 8. 10.(일)

출품방법 작품 파일 5점 ptpic@naver.com 제출

- 작품당 긴변 4,000픽셀 이내 JPEG 파일 (해상도 300)

- 5점 전시 (포트폴리오 구성)

- 네이버카페 “바깥전” 검색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출품표 작성 첨부

- 참여작가전(국내외) / 초대전(국내외)

- 2025 포트폴리오 리뷰 우수작가전

- 2024 평택국제사진축전 참여작가 우수작가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지부 교류전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택지부 제37회 회원전



2024 우수작_김현주

1. 참여작가전

· 접수마감 : 2025년 8월 10일(일)

· 참 가 비 : 160,000원

· 단체참여 : 10명 이상

2. 포트폴리오 리뷰

· 접수마감 : 2025년 7월 31일(목)

· 참 가 비 : 220,000원

· 작 품 수 : 15점

· 리 뷰 일 : 2025년 8월 23일(토)

· 리뷰장소 : 평택문화원 대동관

◆ 특 전 ◆

- 사진 5점 실사출력 전시 제공
- 작품집 3점 수록
- 참여작가 증서 수여
-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는 차기전시 초대

◆ 특 전 ◆

- 2025년 제9회 평택국제사진축전 초대
- 우수 포트폴리오 선정작가 우수작품상 수상
- 사진잡지에 작가 소개(한국사진, 사진예술, 포토닷 등)

전시일정 : 2025년 10월 17일(금) ~ 10월 30일(목)

평택호 예술관 일원(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67)

개 전 식 : 2025년 10월 18일(토) 오후3시

기타사항

- 야외전시로 전시후 작품폐기

- 초상권 등 민형사상 책임은 출품작가에게 있음.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51-0282-9952-43

사협 평택지부

■ 대 회 장 : 010-5291-9316

■ 운영위원장 : 010-5291-5335

■ 사 무 국 장 : 010-6427-6336



2024 우수작_전국경

문의전화

■ 문 험 회 : 010-5291-9316

■ 운 영 위 원 : 010-5291-5335

■ 사 무 국 : 010-6427-6336

■ 협 동 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평택지부

■ 평 택 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APC뉴스

■ 평 택 시민신문 www.jtsssa.com



F-stop



ICU 파티션 시리즈

듀라 다이아몬드 원단으로
더욱 강해진

틸로파 50L

아즈나 37L



쉽고 간편한 필터 교체 시스템

Haida® M10 필터

초광각 렌즈를 위한 렌즈 후면 장착 필터

Haida® 리어렌즈 필터

자석을 이용해 빠른 장착이 가능한 필터

Haida® 마그네틱 필터



New 벤로 기어 볼헤드

GD36PT

기어헤드+볼헤드 2in1 시스템 헤드



2in1

기어 볼 헤드

**활동
소재**

기어터빈

**풍경
사진**

최적화 헤드

제품 문의 **02-775-6681**



사협회원 5월 한정특가

3in1 VND가변필터

VND2-32 / CPL / ND32 필터 3종 올인원 필터

VND 2-32

5 Stop 베이스 필터
사진/영상 촬영

CPL

편광필터, 난반사제거



30% OFF 120,000원

175,000원

3장을 한장의 가격으로!
영상 및 사진, 장노출촬영
최적화 3in1 필터

1 STEP 사진/영상촬영 ND 2-32 / CPL
5 Stop

2 STEP 난반사 제거
ND 2-32 / CPL
대비증가 / 편광제거

3 STEP 장노출촬영
ND 2-32 + ND32
= ND512 / 9Stop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종구 남대문로 5 (홍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BENRO
Let's go!
서울특별시 종구 남대문로 5 (홍국생명 1호별관, 2층)
www.benrokorea.co.kr

제품 문의 **02-775-6681**

제4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보정, 출력, 접수, 액자제작까지
– 회원전, 축전, 작품전 대행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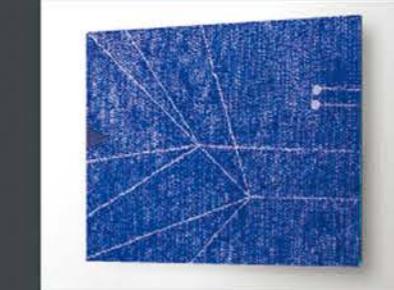
Artluxe GOLD 골드

골드 색상으로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SUREVUE 써브ью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밝기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캔버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PEBRICK 페브릭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출력 전시계획-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PNP 아트룩스™

Artluxe®

아트룩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토털 프리미엄(실내, 실외) 자외선/기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광고
포토 패널 시스템입니다.

ArtPlus™

아트플러스는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한지, 페브릭, 파인아트, 캔버스는
은은한 색감과 온화한 느낌의 작품을
재현하는 매력적인 원목프레임으로
고품격 작품을 표현합니다.



Artl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라세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RYSTAL ART 크리스탈아트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입니다.



Artluxe CHROME 크롬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 bebe9006@naver.com *

Artluxe®
프리미엄 포토패널 총판

Tel : 02-2653-9007

Mobile :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베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 아트룩스 제품이라고 불법으로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필름 사진출력을
합성지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 제품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반드시 문의 010-4610-9007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제 43 회

대한민국사진대전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사진정밀보정, 사진출력, 사진배접.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대행
대한민국사진대전 접수대행

사진대전 입상 입선 작품액자제작 특전

입상 입선 작품제작 접수대행 무료

전시 후 작품철수 택배배송

전국 택배배송 대행(배송비 별도)

잔국최저가 사진정밀보정 및 사진인화 액자제작 접수대행까지.



사진대전 바로가기

www.dujinart.com

전화상담. (031)314-1085



모바일 두진아트 가기



두진아트

TEL. 031-314-1085

PC 인터넷 . www.dujinart.com / MO 모바일 m.dujinart.com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NAVER

두진아트

제품사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1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에 관한 모든 것!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D5떡움 액자 뒷면



D5떡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넛,블랙)



캔버스 액자 뒷면



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캔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디아섹 뒷면



독일제무반사 디아섹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넛,블랙) . 사이즈 (3R, 4R, 5R, 6R, 8R, 1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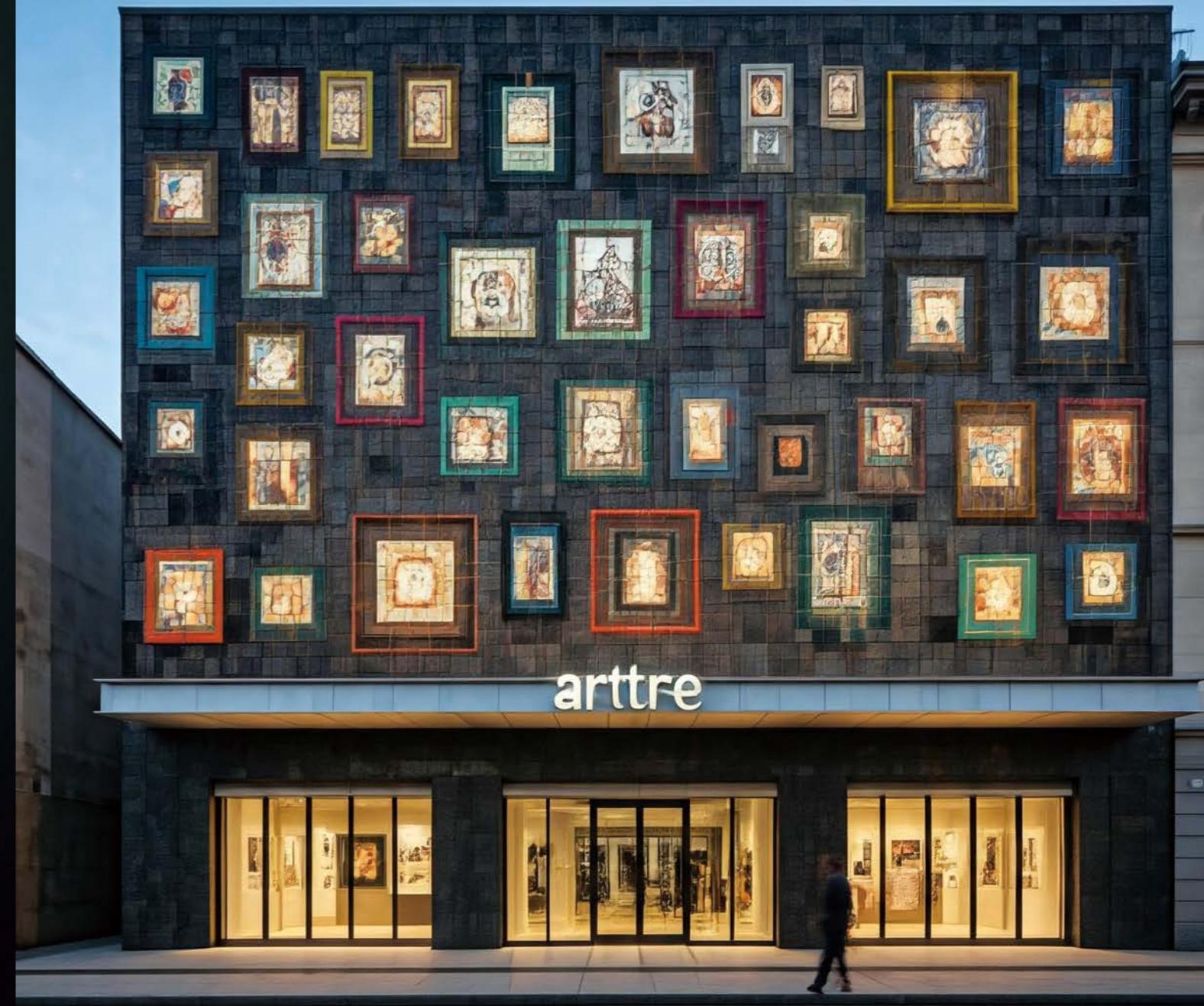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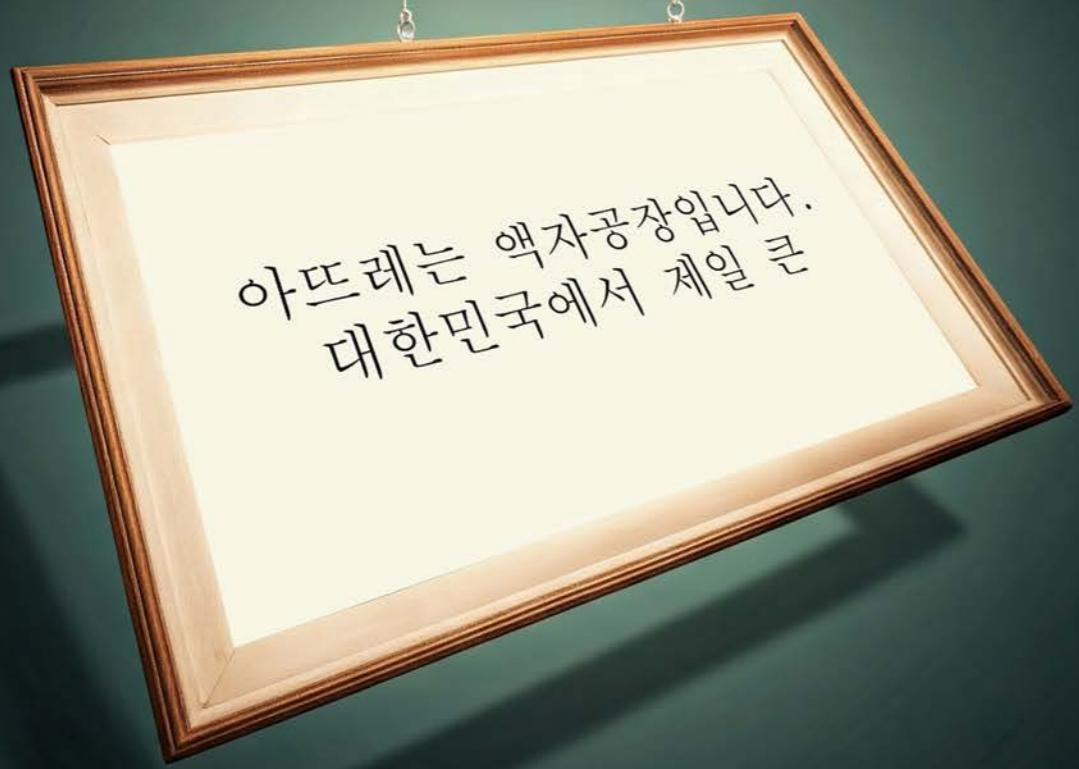


아뜨레

.

.

1544-2188
<http://arttre.co.kr/>



DOMKE

Made in USA

사진작가를 위한 선택

• 정통 미국 품질

프리미엄 견고한 소재로 미국에서 자부심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 실용적인 디자인

빠른 접근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 영원한 내구성

방수 원단과 강화된 스티칭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HEIPI

W28 3-in-1 Travel Tripod



• 구조

HEIPI의 안정성과 휴대성의 비밀은 구조! 혁신적인 3 필러형 센터 컬럼에 있습니다. HEIPI는 3년에 걸친 R&D를 통해 뛰어난 휴대성과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3-in-1 삼각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3-in-1 여행용 삼각대

기존 삼각대보다 더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니 삼각대를 분리하여 테이블위에 올려놓거나 매크로 촬영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시점에서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 프로페셔널 등급의 볼 헤드

85mm의 높이, 282g의 무게를 가진 경량 컴팩트 볼 헤드이지만, 무려 25kg의 최대 지지하중을 제공합니다. 360° 패닝 촬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간별로 각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클릭' 음을 내는 기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본 3박4일 장노출195만원(대한항공)
- 아이슬란드 14박15일, 7월(650만원)
- 남모라비 10박11일, 대한항공(450만원)

- 숨바 5박6일 350만원(대한항공)
- 롬복 4박5일 270만원(말레이지아항공)
- 스리랑카 사진여행 330만원
- 아이슬란드 14박15일(가을)

- 사진여행의 시작 사진을 전문으로...

2025년 촬영계획

1월

- 중국 패션 초원 촬영
- 일본 비에이 촬영

2월

- 일본 비에이 촬영
- 아이슬란드 오로라 촬영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3월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4월

- 체코 남모라비 봄 풍경 촬영
- 일본 장노출/후지산 반영 촬영

5월

- 일본 장노출/네모필라/등나무 꽃 촬영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6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이탈리아 돌로미티 봄 촬영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7월(일본 비에이 꽃/호수 촬영)

- 아이슬란드 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8월(말레이지아 샘포르나 촬영)

- 스코틀랜드 장노출 촬영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9월(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스리랑카 사진 풍경 촬영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10월

- 체코 남모라비 가을 풍경 촬영
- 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11월

- 스리랑카 사진 촬영 여행
- 인도네시아 숨바/롬복 촬영

12월

- 남인도 차밭 촬영(World Photo)
- 일본 비에이 촬영



PHOTOTOUR



- 말레이지아 샘포르나 250만원



모나 용평 제휴사 패키지 할인안내

패키지구성



객실 1박



하반 조식뷔페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할인권 7종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40% • 용평워터파크 40% • 공룡해양랜드 30%
애니포레 20% • 모나 베이커리 10% • 더 살레 10% • 뮤지엄 망고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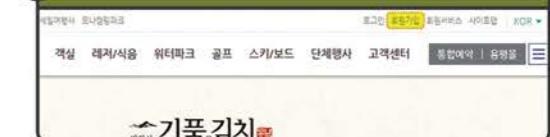
정상가 : 450,000원 ▶ 120,000원(74% 할인)

예약방법

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2. 단체행사 → 제휴사예약 페이지 접속
3. 제휴사 코드 번호 입력 (고객번호 : 1190519)
4. 패키지 선택 후 객실예약

모나 용평 제휴사 패키지 예약 방법안내 *

0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기품김치

02. 단체행사 ▶ 제휴사 예약 접속



03. 사전 안내 받은 고객번호 입력



04. 제휴사 패키지 선택



05. 날짜 선택 및 객실 선택 후 예약 진행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권자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권자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1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베너광고 클릭

2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번순대로 필수 입력사항
- :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신탁등재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관리자] 신청확인 후 기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김용구 사진전]

흘러갈 것인가 vs 멈추어 설 것인가

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 용 구(안동)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전시일시 2025년 6월 3일(화) ~ 6월 8일(일)

전시장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34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66, 3F)

개 전식 2025년 6월 3일(화) 오후 6시

전시작가 김용구(010-3538-2993)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이동해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
지켜야 할 때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붙박이처럼 멈추었던 것도
이동하게 되고 늘 움직이던 것도
고요히 한 곳에 머물기도 한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자.

장노출 촬영을 통해 해송과 구름을 한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고정된 해송과 쉼 없이 움직이는 구름은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해송은 흔들림 없는 침묵으로 서 있고, 구름은 시간을 따라 유연하게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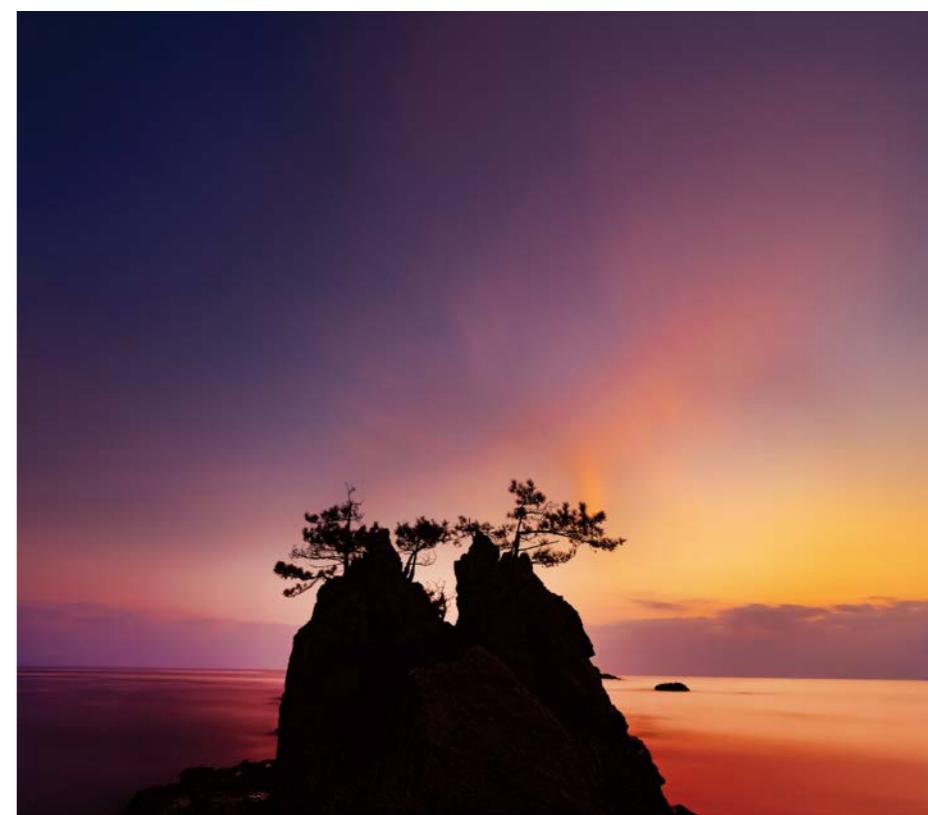
셔터를 열어두는 동안 하늘은 구름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은 짧은 순간의 기록이지만, 사진 속에서는 그 흐름이 하나의 부드러운 결로 남았다. 그와 대조적으로 해송은 모든 움직임을 초월한 듯 한 곳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다.

해송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상징 같았다. 그 아래에서 구름은 시간의 흔적을 그리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사진으로 표현했다. 장노출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다리였으며, 변화와 고정 흐름이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해송과 구름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다는 것을, 어떤 날은 해송처럼 단단히 서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날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 장노출 촬영은 이러한 삶의 균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번에 제 전시 작품 속 사진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이다.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용구_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김종구 개인전]
수 많은 사연 품은 ‘순간 포착’ 풍경
기억 속의 광안리

김 종 구(부산)

전시일시 2025년 5월 27일(화) ~ 6월 5일(목)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부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2층 바다갤러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전시작가 김종구(010-4460-6448)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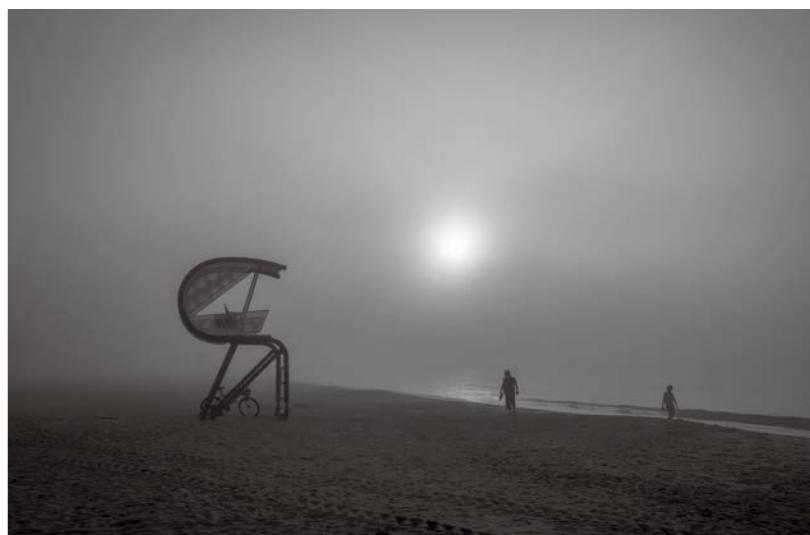
부산의 바다, 그 중에서도 광안리는 수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스며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이곳에 쌓이고, 추억이 되어 흘러갑니다.

저는 이러한 광안리의 다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설렘을 안고 뛰어드는 아이들, 모래 위를 거닐며 추억을 쌓는 연인들,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누군가까지. 광안리는 수 많은 순간을 품고 있으며,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풍경이 되어 우리 곁에 머뭅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서 흐르는 시간과 감정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세월이 흐르면서 광인리는 변화합니다. 그러나 옛 모습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유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 바닷가의 빛과 소리들을 카메라에 담고자 했습니다.
나그네 걷던 안개 낀 해변도 겨울 바다의 쓸쓸함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이번 사진전 “기억 속의 광안리”는 흑백의 시선을 통해 시간과 감정이 녹아든 광안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안개가 드리운 새벽의 해변, 겨울 바다의 쓸쓸함, 여행자의 설렘과 이곳을 지켜온 이들의 일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했던 한 순간의 정서를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색이 사라진 사진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감정과 기억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 광안리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곳에서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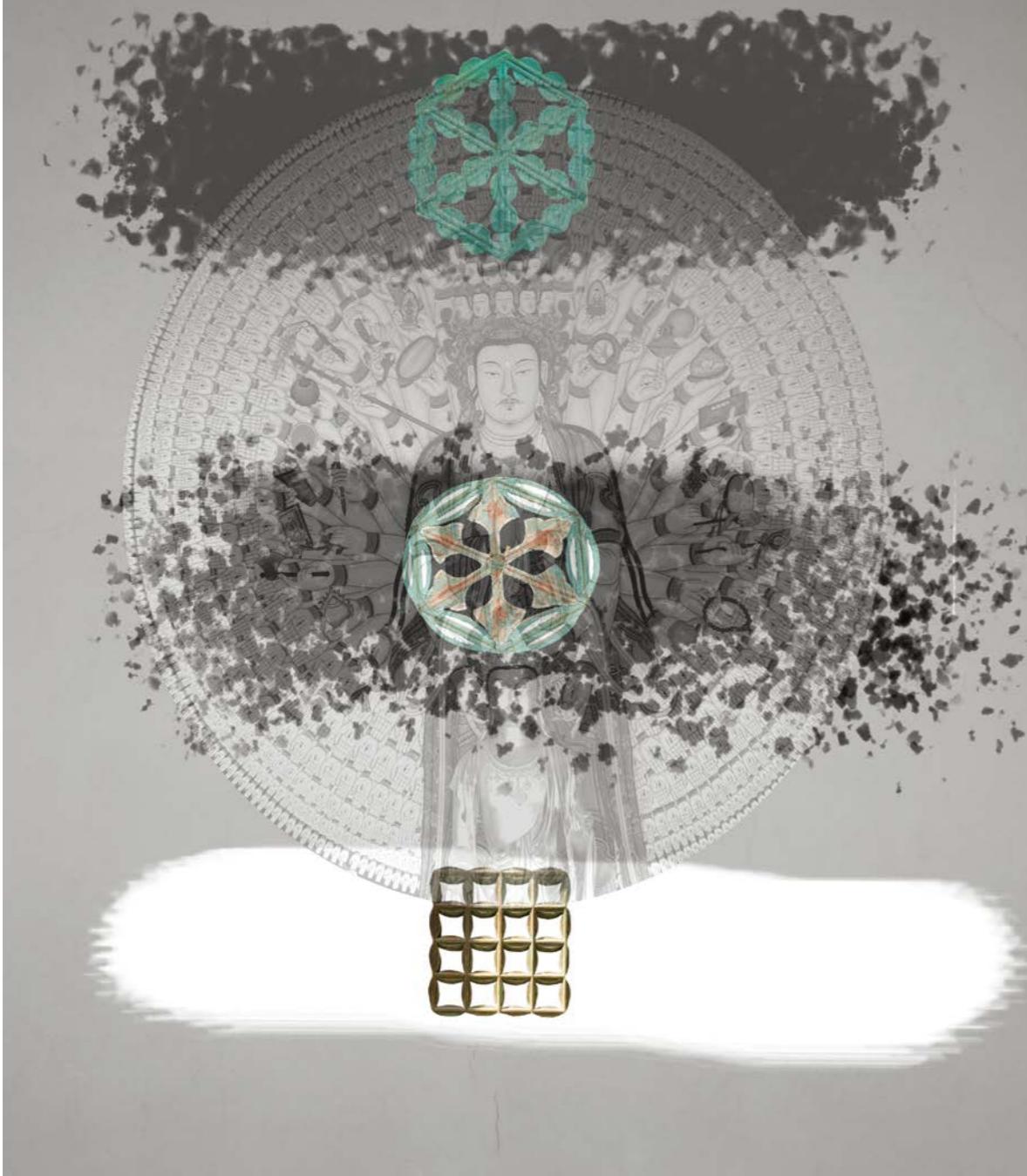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김종구_기억 속의 광안리



전시광고



©박덕률_불국사

[박덕률 개인전] 닫집 색채, 문살 무늬, 불단 관념까지 절집은 모든 게 꽃이다

박 덕 률(창원)



©박덕률_용연사



©박덕률_백종암



©박덕률_운문사

꽃 집 꽃

전시일시 2025년 5월 27일(화) ~ 6월 2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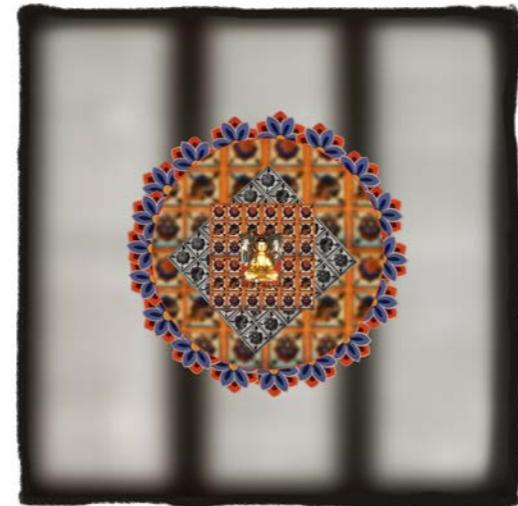
전시장소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제3전시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초대일시 2025년 5월 28일(수) PM.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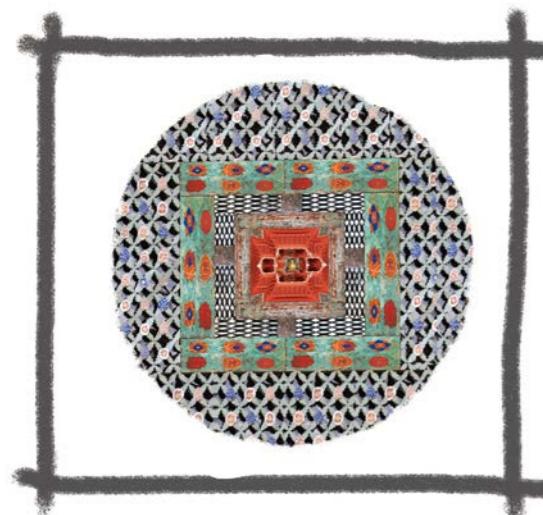
전시작가 박덕률(010-5515-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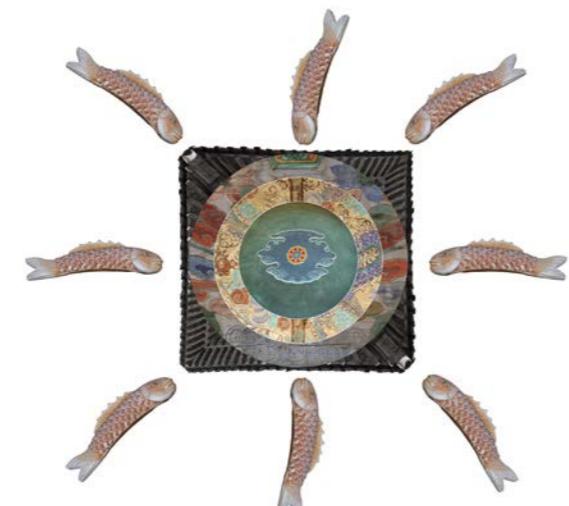
©박덕률_범어사



©박덕률_선석사



©박덕률_대둔사



©박덕률_범어사

한국 불교가 창단해 낸 무늬와 색채와 관념을 절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차분하여 무념무상으로 이끄는 닫집 색채도 꽃 모양으로 장식한 문살도,
 시공의 경계를 넘는 불단의 관념도 모두 오묘하기만 하다.
 이 불교 예술은 법이요, 진리요, 극락이다.



©박덕률_미황사

나는 절의 닫집, 문살, 불단 등에
 나의 마음을 담아 꽃으로 만들어 보았다.
 왜냐면 부처님에 대한 꽃 공양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절집의 꽃도 아름답지만 내 마음이 함께해서 더욱 아름답다.
 절의 닫집, 문살, 불단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불교
 예술의 극치이다.

닫집의 색채는
 차분하여 무념무상하고 선율을 지닌 리듬감이 있어 생동감이
 있고 그러니 완벽한 하모니는 당연지사이다.

문의 기하학적 실은
 중생이 이승의 티끌을 털고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경계로 여겨
 최상의 장엄을 표현하는 공간이기에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중
 생의 삶이 그려하듯 같은 듯 다른 오묘함이 있고 더불어 장식
 된 꽃은 법이요 진리이며 극락이다.

불단에서 보여준 형태는
 시간과 공간이 갖는 양변의 경계를 넘어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추상적이다.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관념적이다.
 이성과 현실이 혼재한 카오스의 세계를 여실히 보이고 삶과
 죽음, 현실과 전생 종교와 신학적 요소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공존하는 환상적인 세계를 펼쳐 놓았다.

이전에도 자주 절집을 찾았지만
 오늘에야 안을 쳐다보게 되니
 경외감 너머로 사바세계가 보이며
 삶의 욕심이 남긴 흔적들로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지금도 콩콩거린다.

사랑해야 보인다더니
 절집을 찾을 때는 가슴이 설렌다.
 그래서 절집의 꽃을 욕심 없이 찍었다.

얼마나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는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촬영하는 내내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욕심인 줄 알면서도 나의 가슴이 끊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절집의 꽃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새로운 절집의 형상을 재해석해 만들었다.
 절집의 꽃을 몇 송이 속아낸 다음 정성스레
 다듬어 공양으로 올려볼까 한다.
 아마, 부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박덕률_파계사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연대도>

[이강석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30년 사진 여정, 그 미학을 따라서****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 강 석(통영)

전시일시 2025년 5월 28일(수) ~ 6월 3일(화)

전시장소 통영시민문화회관 제1전시실

(경남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전시작가 이강석(010-3557-3443)

3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통영이라는 장소와의 깊은 대화의 과정이었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내 카메라의 렌즈는 단순한 기계적 장치가 아닌 세계를 인식하는 신체의 연장으로 기능해왔다. 통영의 풍경은 단순한 피사체가 아닌, 내 시각적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생생한 현존의 장(場)이라고 생각한다.

바슐라르가 말한 '공간의 시학'을 빌려 표현하자면, 통영의 바다와 섬, 길과 집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기억과 상상력이 교차하는 가시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특히 바람이라는 비가시적 존재를 시각적으로 포착하고자 한 시도는 불가능한 것의 재현이라는 사진 매체의 근본적 역설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사진이 지난 본질적 특성 중 하나는 특정 순간을 영구히 포착한다는 점이다. 바르트의 언어로 '그것이-존재했음(ça-a-été)'의 증거로서의 사진은 시간의 흐름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그 순간의 연속적 존재를 보장한다. 30여년간의 이 사진작업은 단일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다양한 시간성이 중첩된 복합적 서사를 형성한다.

들뢰즈의 시간-이미지(time-image) 개념을 적용해보면, 이 사진들은 단순한 운동-이미지(movement-image)를 넘어, 시간 자체의 직접적 표상을 시도하고, 특히 동일한 장소를 다른 시간대, 다른 계절, 다른 기상 조건에서 촬영한 연작들은 시간의 다층적 흐름과 그 시각적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는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durée)'의 개념과도 연결되며, 순수한 시간 경험의 시각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더불어, 통영 풍경의 시간성은 단일한 방향성을 지닌 선형적 시간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변증법적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벤 야민의 '변증법적 이미지(dialectical image)' 개념처럼, 이 사진들은 과거와 현재의 긴장 관계 속에서 '지금-시간(Jetztzeit)'의 순간을 포착하려 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단순한 미학적 실천을 넘어 재현의 윤리학에 관한 질문들을 제기해 본다. 통영이라는 지역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질문들—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배제할 것인가? 누구의 관점에서 이 지역을 재현할 것인가? 어떤 미학적 전략을 통해 이 장소의 정체성을 시각화할 것인가?—은 작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성찰되어야 할 과제 혹은 숙제였다.

통영의 지역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적 정체성이다. 도린 매시의 '장소의 전자구적 감각(global sense of place)' 개념처럼, 지역적인 것과 전 지구적인 것의 상호연결성 속에서 통영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재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궁극적으로 '통영, 바람의 선율'이라는 제목 아래 모여진 이 사진들은 하나의 완결된 서사나 통일된 시각을 제시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통영의 다층적 정체성에 대한 열린 질문을 던지고 있다. 룰랑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진들은 '스튜디움(studium)'과 '푼크툼(punctum)'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감상을 넘어 능동적인 의미 생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통영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다시 읽히고 다시 쓰이는 시각적 텍스트로 변모하고 있다. 바람이 만들어 내는 '선율'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려는 사진적 실천의 본질을 함축한다. 30여년의 시간 동안 나는 통영의 풍경 속에서 바람의 흔적을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풍경 자체가 아닌, 풍경과 내 시선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30여 년간의 사진 작업을 통해 통영의 풍경을 탐구하며 발견한 시각적 서사와 미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 '통영, 바람의 선율'이라는 제목 아래, 공간과 시간의 교차점에서 포착된 통영의 다층적 정체성을 조명한다. 또한 미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통영 풍경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미지를 통한 지역성의 시각적 재현에 관한 사색적 서사를 제시한다.



©이강석_통영, 그 바람의 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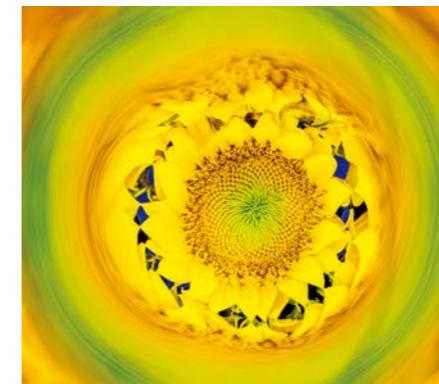


바닥없는 블랙홀같이 팽창하는 우주처럼...
꽃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시간

장 창 근(속초)



©장창근_꽃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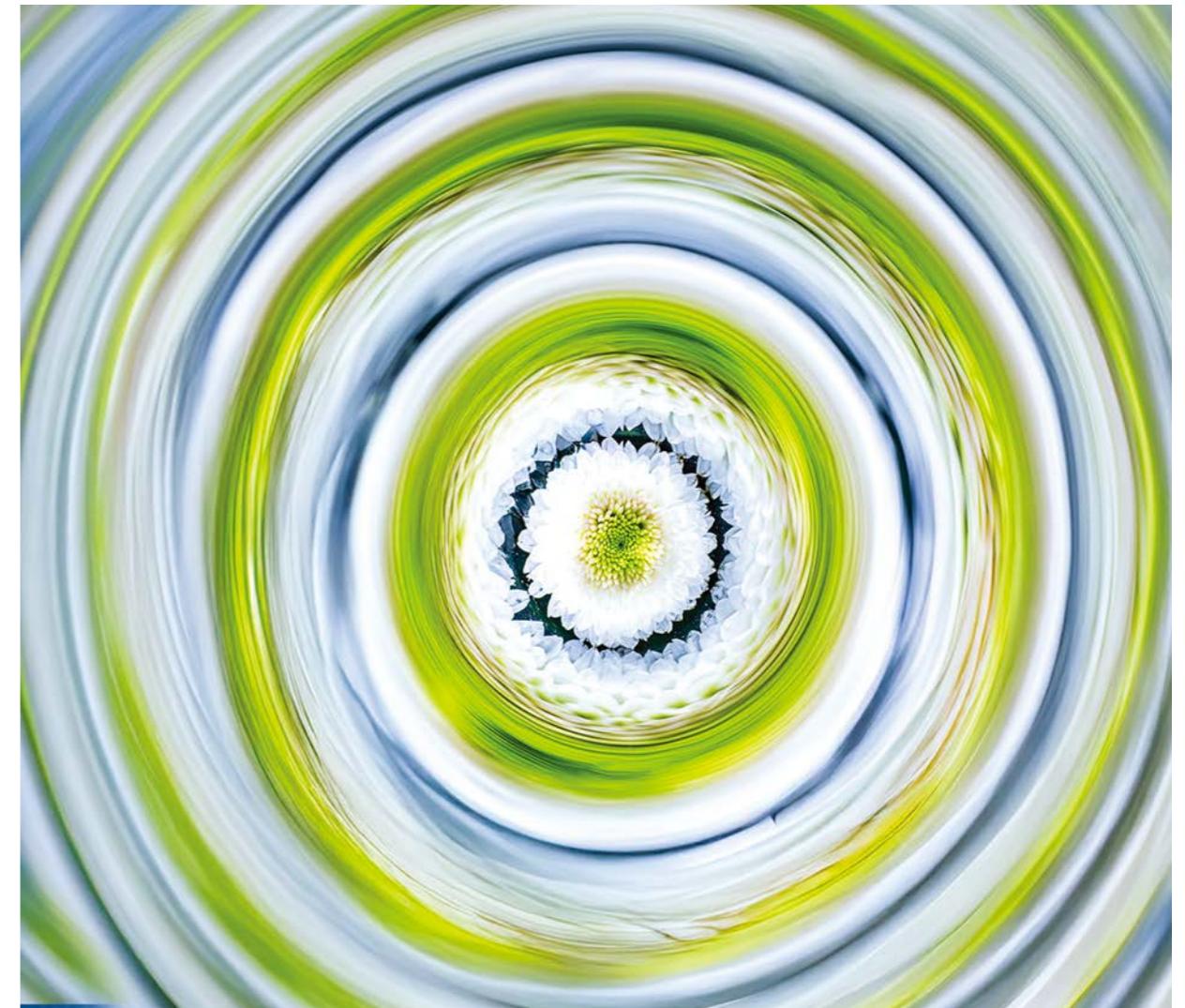
©장창근_해바라기의 기억

꽃은 늘 피어난다는 당연함 속에 경이로움을 감추고 있다.

꽃 또한 하나의 생명 구조이자, 완전한 우주의 축소판처럼 제 안의 질서와 에너지를 품고 피어난다. 이번에 발표하는 12점의 작품은 모두 꽃의 '심장'을 응시하는 시선에서 출발하였으며, 꽃 중심의 생명력과 그 주변을 감싸는 회오리 구조를 통해 시각적 몰입과 정신적 명상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각 이미지의 중심은 곧 감정의 진원지이다.

정적인 꽃의 형태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서 나아가, 시선이 꽃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한 회전 효과와 시뮬라크르적(simulacre) 구성을 통



©장창근_생명의 중심축



©장창근_심연의 꽃잎

해 자연의 리듬과 시간성을 시각화하였다.

속초의 자연 속에서 촬영한 수 많은 꽃들 가운데, 각기 다른 빛과 형태, 감정을 지닌 꽃들을 선별한 후, 그 내부의 질서와 조화를 극대화한 연작이다.

아날로그의 감성과 현대적 조형성을 조화롭게 엮어냈으며, 사진이라는 매체를 넘어서 회화적 상상과 철학적 사유까지 담으려는 시도를 담았다.

이 사진들을 통해, 자연이 주는 정서적 울림과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생명성의 파장을 관객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라며...



©장창근_오렌지 코어



©장창근_시간의 장미



©장창근_기억의 소용돌이



©장창근_순환의 분홍빛 고리



©장창근_보라색 광휘

꽃에서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를 발견한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이 나서 햇빛을 받고 물을
더금고 바람 속에 피어나는 것은 마치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는 우주 탄생의 기원 같다.
꽃을 중심에 놓고 회오리 형상을 만들며 무한히
작아지는 것과 무한대로 커지는 우주의 신비를
깨닫는 기쁨이 샘솟는다.



푸른 산 빛 깨치고
갈대 밭 흰 빛 속으로
혼(魂)

이정휘(수원)

고운 한복처럼 우아하던 내 어머니...
갈대밭 흰 빛 따라 푸른산 너머 가신 그 걸음. 어찌 그리 속절 없으셨던가요.
바람처럼 환영처럼 훌훌 털고 하늘 고향으로 가신 어머니...
남긴 고무신이 오늘따라 더욱 내 마음 속에 그리움을 채웁니다.

©이정휘_혼(魂)





©이정희_혼(魂)

한복(韓服)은 단순한 의복(衣服)의 의미를 넘는다.

내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에 어머니가,

모질고 고된 삶 속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지켜온

저 커다란 바위 같은 정신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지켜온 것이다.

평생을 한복과, 머리엔 비녀를 꽂고 살아오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내 어머니.

이 모든 작품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정희_혼(魂)



©이정희_혼(魂)



©이정희_혼(魂)



©이정희_혼(魂)



©이정희_혼(魂)



얼굴 감추어도 원초적 본성 ‘그대로’

페르소나

박영숙(대구)



©박영숙_페르소나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보인다.

현대인들은 얼굴을 꾸미고 가면처럼 그 삶의 양태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드러날 수 밖에 없다.
페르소나를 통해 그 것을 말하고 싶다.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이 시리즈의 제목인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말한다.
또한 페르소나는 그리스의 고대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현대인들은 다매체 시대를 살아간다.
그들의 다층적 자아를 관찰하면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본다.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내 얼굴에서 또 하나의 얼굴이 떨어져 나가는 마스크 팩을
보는 순간, 숨겨진 나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서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 다르게 발현되는
나를 발견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마스크 팩은 나의 얼굴이면서 나의 가면이기도 하다.

가면은 나의 얼굴을 감싸고 나의 정체성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작업에서는 가면을 이용하여 나의 얼굴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평화로운 자연에서는 원초적인 본성과 정체성을
화려한 도심 속에서는 일상적인 환경과 정체성을 통해
나의 존재를 표현하고 삶에 대한 탐구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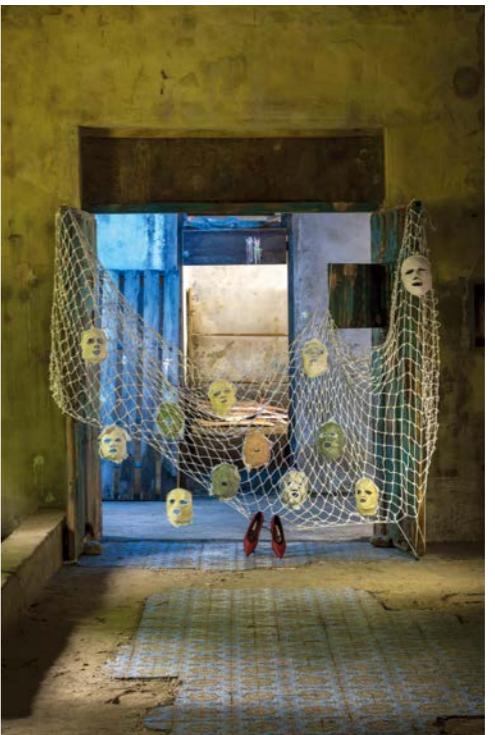
나에게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아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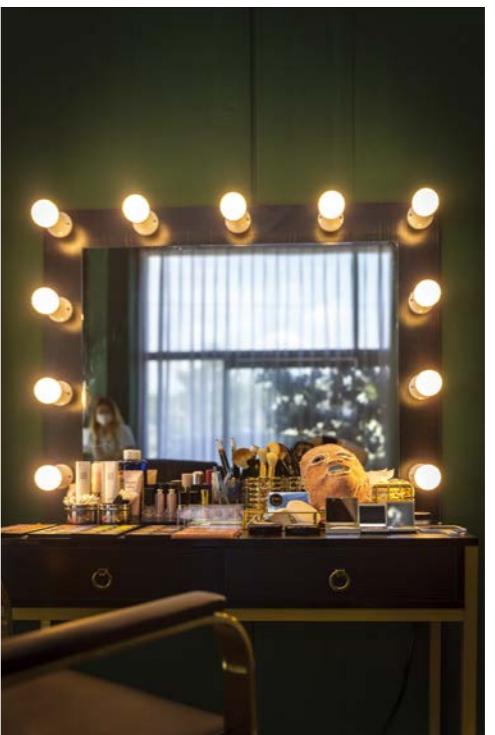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박영숙_페르소나



[우아미 사진연구회]
박순정, 송진숙, 양인선, 오문자, 이화순
5人 작가 꽃 이야기



©송진숙_수조



©오문자_수조



©양인선_수조



©이화순_수조



©박순정_수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삶이 이슬처럼 안개처럼 허무하기만 할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채를 내며 불꽃처럼 사는 인생은 짧기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양인선_불꽃



©오문자_불꽃



©송진숙_불꽃



©이화순_불꽃



©박순정_불꽃

꽃은 여자의 삶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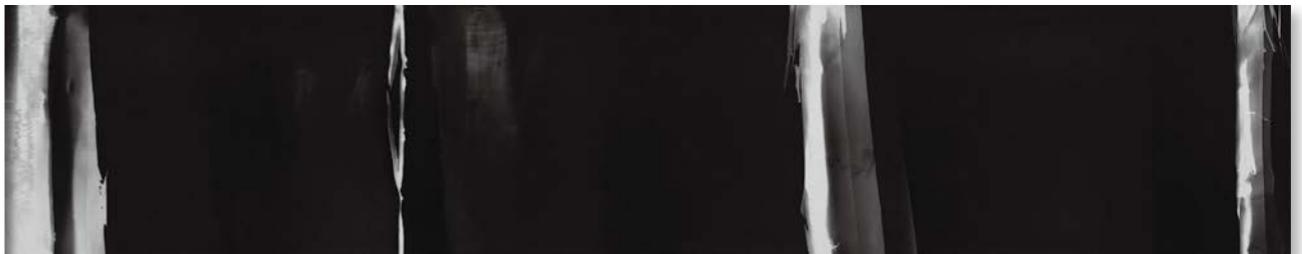
물결에 흔들리는 꽃은 복잡한 삶에 숨어있던 심연의 갈등...
안개 속에 잠긴 꽃은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꿈과 추억 속에 묻힌 그리움...
불 속에서 피어난 꽃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열정으로 피어나는 희망

꽃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피어나고 사라지듯,
우리의 삶도 매 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타오르고 빛납니다.

이 전시는 꽃을 통해 여성의 삶 속에 숨겨진 무수한 이야기와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작은 도시입니다.

로베르토 와르카야 사진전 – A sombre Aspect 추상적인 인식자

글 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유칼립투스 숲, Photogram, 2019, 1.08 x 5m ©Roberto Huarcaya



전시전경 – KF갤러리 제공



중남미의 대표적인 실험적인 사진가로 알려진 ‘로베르토 와르카야(Roberto Huarcaya)’의 사진전 <추상적인 인식자>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주한페루대사관의 공동 개최로 오는 3월 27일(목) 시작하여 5월 16일(금)까지 서울 중구 수하동의 KF갤러리에서 진행중이다. 이 전시는 와르카야 작가의 대형작품 10여 점을 한 자리에 선보이는 국내 최초 개인전이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지난 10여 년간 몰두해온 대형 포토그램 작업을 중심으로 실험적이면서도 개념적인 사진 세계가 소개된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페루의 자연환경 곳곳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라틴아메리카 현대 사진 예술의 깊이를 체험 할 수 있다.

와르카야의 사진은 현대 사회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카메라 등 시각 도구에서 벗어나 더 인간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전환을 시도한다.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같은 사물 혹은 모습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KF갤러리

전시 포스터



전시전경 – KF갤러리 제공

로베르토 와르카야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페루의 사진작가이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1989년 마드리드 영상 및 이미지 센터의 이탈리아 문화 및 사진 연구소에서 영화를 전공했는데, 이때부터 사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40여 년간 작업 활동을 이어온 작가는 쿠바 아비나 비엔날레, 리마 비엔날레, 인디애나대 에스케나지미술관, 아틀란티시안 국제 사진 축제, 파리 포토,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페루관 대표 작가로 참여하는 등 세계 유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특히 작가는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우주의 흔적을 탐구하며 인간과 자연 양자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우주의 흔적들(Cosmic Traces)”이라는 30미터 규모의

대형 포토그램 시리즈를 선보여 크게 주목받았다. 국내에서는 2014년 대구사진비엔날레와 2024년 제22회 동강국제사진제에 작품이 전시된 바 있다.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은 ‘포토그램(photogram)’의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cameraless photography’라고 불렸던 포토그램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감광지와 같은 빛에 민감한 소재의 표면에 물체를 직접 놓은 다음 광원에 노출시켜 만든 이미지이다. 물체에 덮인 부분은 물체가 빛을 투과시키는 정도에 따라 흰색 또는 회색으로 나타나며, 물체에 덮이지 않아 완전히 빛에 노출된 부분은 최종 인쇄물



전시전경 – KF갤러리 제공



오션그리마, 바다 쓰레기 n 4, Photogram, 2019, 1.08 x 4.5m / 2020 ©Roberto Huarcaya

에서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이 기법은 ‘맨 레이(Man Ray)’의 ‘레이요그래프(Rayograph)’, ‘라슬로 모흘리-나기(László Moholy-Nagy)’의 ‘포토그램’, ‘크리스티안 샤프(Christian Schad)’의 ‘샤크도그램(Schadograph)’로 불리며 그들의 작업에 적용되었으며, 그 외에도 이 모젠커닝햄, 파블로 피카소등 많은 작가들의 표현 기법이 되었다. 포토그램은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인화지를 사용하고 복제가 불가능한 단 한 장의 작품이 되기에 일반적인 사진의 특성과 반대되는 아이로니컬한 의미를 가진다.

내가 처음 만나 본 처음 만나본 로베르토 와르카야의 작품은 대구사진비엔날레에서 보았던 ‘아마조그램(amazogramas)’이었다. 페루 정글에서 밤에 촬영한 포토그램 기법 작품으로, 울창한 수풀 사이에 30m 길이의 감광지를 펼쳐 놓고 작은 플래시와 보름달을 이용해 직접 인화한 것이었다고 한다. 아마존 열대 우림의 원시적 신비와 실제 규모를 그대로 포착하고 전시장에서는 물결 모양으로 매달아 장착함으로써 관람객이 잠시만이라도 정글의 경험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 전시였다. 일견하면 정글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가위춤 댄서들, Gelatin Silver Print / Van Dyke Process, 2019, 2.2 x 10m ©Roberto Huarcaya



전시전경 – KF갤러리 제공



오션그라마, 태평양 파도 n 2, Photogram, 2019,
1.08 x 3m ©Roberto Huarcaya

전시전경 - KF갤러리 제공

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형식의 파괴, 기원으로의 회귀, 빛의 존재와 생명의 힘, 자연에 대한 찬양, 인간의 허영심에 대한 반성 등 수많은 의미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작가는 자연과 자연속의 인간들을 기계를 통하지 않은 최초의 사진기법을 이용해 인화지에 담고 순수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선택된 피사체들은 모두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은 대상들이며, 작품속에는 피사체가 이제까지 존재해 온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총망라되어 수겹으로 겹쳐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선택된 피사체의 정체성, 존재하기 시작한 이유와 시간의 흐름, 보이는 것들로 인해 인정되는 보이지 않게 된 것의 존재 등..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전시에서 그가 전해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밸롭한 사진이
기념된다**

SINJI
studioclub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EXCEED YOUR VISI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studioclub
EXCEED YOUR VISION

대여 프로그램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www.studioclub.co.kr

구매상담
ID: 신지스튜디오클럽
010-2253-2786

실적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정 우수업체



전국 스튜디오 8,000여 거래중



전국 예술학부 1,000여 학과 납품

東夷 민족은 동북공정이 두렵지 않다 문화강국 대한민국

글·사진제공_최승언



고구려 개마무사

한국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다. 국민의 삶이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인들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중이다.

이 터널의 끝에는 광명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마저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국난극복이 몸에 밴 한국인의 저력은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주변의 침략으로 인해 전쟁을 경험했다. 어떤 보고서는 중국이 2천 번, 일본이 고려말에만 육백 번을 침략했지만 그 정체성은 여전히 지켜내고 있다. 한국이 살아있음은 한글을 쓰고 한국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만약 지금 현재 한반도 사람들이 한글 대신 중국어나 일본어를 쓰고 있다면 한국의 정체성을 사라진 것이나 진배없을 것이다.

단군을 시조로 모시는 한국인들의 역사의식 또한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고조선 건국한 단군



고려말 한반도에 출몰했던 왜구의 모습



고구려 기마병

 YONHAP NEWS

그러나 중국은 이런 민족신화를 공유하면서 대대로 계승하는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사람들을 오랑캐로 취급했다. 지금도 중국은 중화사상을 원동력삼아 그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다. 본래 중화사상은 황화와 양쯔강 주변 땅 외에는 모두 오랑캐로 여긴 관념이다. 세상을 중국 황제가 통치하는 중화와 말이 다르고 문화도 보잘것없는 야만인들이 사는 오랑캐 땅으로 구별했다. 오랑캐도 방위에 따라 4개로 구분했으니 동이, 서옹, 남만, 북적이라 했다. 이들 지역을 오랑캐 땅으로 구분한 것은 춘추전국시대부터이며 진한 시대에 정착했다.

중화사상은 중앙에서 미개한 주변부를 다스린다는 관념을 깔고 있다. 중국이 '세계 유일의 황제국'으로 모든 국가가 중국에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사상이다.

춘추전국시대 이전 주나라는 수도 낙양에서 400킬로미터 사방을 왕이 직접 통치하고 그 바깥 2천 8백 킬로미터를 왕의 혈족들이 통치하도록 하고 그 바깥쪽은 오랑캐의 세계로 보았다. 그러므로 중화사상이 주나라 봉건제도가 모태라 볼 수도 있겠다.

중화사상에 따르면 티베트나 신강위구르 자치구, 요동지방은 모두 오랑캐의 땅이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이제 오랑캐 땅이라 했던 곳도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 하고 있다. 힘이 없을 때는 오랑캐 침략을 막으려 방어벽을 쌓았지만 힘이 커지자 그 오랑캐 땅마저 복속하려하고 있다.

중화사상은 서양 열강과 무역을 할 때도 발현되어 "관문을 열라"는 제국들에게 "조공하라" 하여 반발을 샀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서양 열강에 의해 중국 왕조체제가 붕괴하면서 중화사상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내부에서 다수의 한족과 나머지 소수민족이 갈등하는 양상이다. 한족 사이에서 중화사상의 자부심은 소수민족들을 반발심을 부르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것을 서북공정에 의해, 한반도 복속 야욕은 동북공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는 약육강식에 의한 국제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힘을 잊으면 언제든지 티베트 폴이 날수도 있다는 점에 중국 주변국들이 경계심을 갖게 만들었다.



만리장성 북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건설했다.



일본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독도도 세종실록지리지에 우리 땅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힘이 없다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요동은 고구려시대 우리땅이니 내놓아라 한다해도 중국이 실효로 지배하고 있는 땅을 내줄리 만무하다. 고구려 땅을 다시 찾는 방법은 중국의 힘이 약화되어 그 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게 만드는 길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지역을 비집고 들어와 나라를 세웠다. 로마시대까지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나 내놓으라 하고 그 곳에 나라를 세워 정착한 것이다. 팔레스타인은 힘이 없어 이를 막지 못했다.

이처럼 국제관계는 냉엄하다. 누가 실효 지배하느냐에 따라 그 땅의 주인이 결정된다.

힘이 약할 때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이민족의 침략에 대비했지만 중국의 힘이 강해진 지금은 만리장성 밖 이민족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힘이 강해진 중국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만리장성은 중화민족이 유목민의 약탈에 대비해 쌓은 성벽이다. 가을바람이 불면 중국의 북방에 사는 흉노 등이 침략해 오는 것을 수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성을 쌓아 막고자 했다.

진시황이 기존부터 있던 외적방어용 성곽을 짓고 보수하기 위해 동원한 인력이 150만명 이었다. 이렇게 완성된 성벽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간 갈등과 대립 전쟁 역사를 상징한다. 두 민족은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숙명적으로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었다. 유목민들은 양이나 소, 말 등을 방목하지만 농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농작물을 가축이 다 훼손하므로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된다. 반면 풀이 자라도록 놓아두어야 할 땅을 자꾸 파헤치는 농경 민족은 유목민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다.

중국의 농경민족과 북방민족이 서로 대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은 고구려와 고려가 중국과 강하게 대립한 것과 달리 조선은

소중화라는 사상을 갖고 중국의 새왕조 명나라와 친교했다. 이른바 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명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위에 북방민족들은 오랑캐 취급했다. 명과 교류하면서 북방민족 여진족 금과 청을 지고 결국 나중에는 병자호란을 당하기도 했다. 소중화를 표방하다가 오랑캐에게 호되게 당한 케이스였다.

시대의 변화를 잘 못 읽은 조선의 외교 실패는 큰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새로이 일어선 금의 무력에 대해서는 무지했기에 일어난 현실이었다.

강성했던 로마도 이름만 남았고 무적함대 스페인도 영국에 무너졌다. 한 국가의 영향력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흥망 성쇠가 돌고 돌아 이제 늘 뒤처져 있던 한국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 한류는 잠시 스쳐가는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주는 흐름이 될 전망이다.

스포츠, 춤, 음악, 드rama, 무기, 음식, 패션, 주거문화 등 전 분야에서 한류가 지속적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나갈 것이라는 미래학자들

의 예측은 한결같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이 중국어와 일본어를 압도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은 자신의 말을 기록하기 위해 한글을 연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이나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한글로 이름을 적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학자들은 과학적인 한국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되리라 예측하기도 한다.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퍼져 나간다면 동북공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미국의 힘으로도 베트남을 먹지 못했다. 러시아 푸틴의 무력도 우크라이나를 먹지 못하고 있다. 무력보다 문화의 힘이 강성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고 우호적이 되면 그것이 대국이다. 대한민국은 그 이름값을 해야 한다.



너무나 매혹적인 정물사진 IV

감정빼고 본질 드러내다_신즉물주의

New Objectivity

글, 사진제공 _윤은숙(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경기광주지부 지도간사)

1차 세계대전 이후 예술계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과 꿈, 상징과 환상을 탐구하며 사진의 경계를 확장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반작용도 일어났다. 감성, 동환, 상징으로 가득했던 세계에서 벗어나, 차갑고 명료한 현실을 직시하려는 흐름, 바로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 New Objectivity*)가 등장한 것이다. 신즉물주의는 사물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 예술적 태도다. 192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퍼진 신즉물주의 사조는 사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재에서는 신즉물주의 시대에 나타난 정물사진의 변화를 칼 블로스펠트(Karl Blossfeldt), 알베르트 렁거-파츠(Albert Renger-Patzsch), 에네 비어만(Aenne Biermann), 한스 핀슬러(Hans Finsler) 등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정물이 어떻게 '차가운 사실'을 품게 되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1. 칼 블로스펠트 (Karl Blossfeldt, 1865-1932)

신즉물주의는 표현주의가 강조했던 주관적 감정과 내면의 결정을 배제하고, 사물의 외형과 본질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했다.¹ 이들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물, 자연물, 기계, 건축물 등 주변의 모든 대상을 소묘적으로 정확히, 감정없이 관찰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각, 비감상적 관찰, 정직한 구도, 고립된 대상, 주변의 간결함이 신즉물주의의 특징이다. 신즉물주의의 사진가들은 사물을 더 이상 미화하거나 상징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놀랄 만큼 설명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려 했다. 빛과 구조, 표면 질감(materiality)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이들은 사진의 기계적 재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의 주관이나 해석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추구했다. 이는 전통적 리얼리즘과는 달리, 더욱 새롭고 철저한 객관성을 지향하는 태도였다.² 특히 정물사진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진가들은 일상의 사물, 식물, 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삼아,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려 했다. 피사체는 미화되지 않았고, 빛과 초점, 구조의 힘으로 존재감을 발산했다..

1) <https://bit.ly/4m23C2S>, New Objectivity, Illostomania Community, 2025.3

2) bit.ly/42SSnkv, 정상원의 사진이야기, 알베르트 렁거파츠, 2023.8.20

3) <https://umma.umich.edu/objects/adiantum-pedatum-2014-2-9/>



사진1: :Karl Blossfeldt ,Adiantum Pedatum,1928



사진2: Feverfew (Chrysanthemum parthenium), photograph by Karl Blossfeldt, 1928.

다.⁴

대표작 Glassware에서는 투명한 유리병과 잔들이 정밀하게 배열되고, 빛의 투과와 반사가 구조적 질서를 만들어낸다. 렁거-파츠는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초월해 "사물의 객관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산업화 시대의 정신과 고요한 시적 울림을 동시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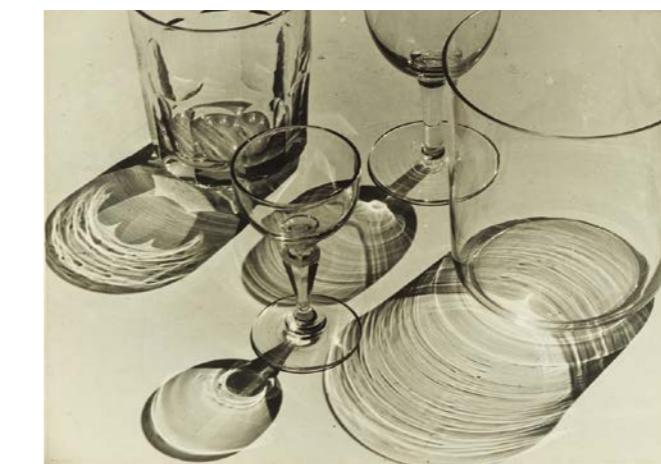


사진3: Albert Renger-Patzsch, Glassware [Gläser], 1926-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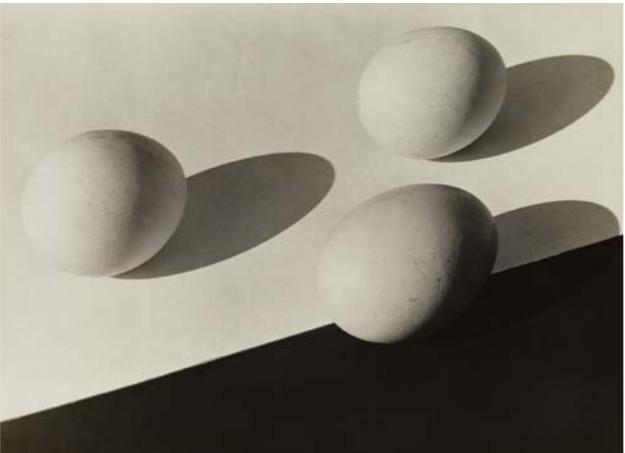


사진4: Aenone Biermann (German, 1898–1933) 'Eggs', 1931



사진5: Aenone Biermann, Ceramic Cup, 1929



사진6: Hans Finsler, 'Cup, Saucer and Plate', 1931



사진7: Hans Finsler 'Glühbirne (Incandescent Lamp)' 1928

3. 아이네 비어만 (Aenone Biermann, 1898–1933)

비어만은 신죽물주의 여성 사진가로, 식물, 섬유, 가정용품 등 일상적 사물을 섬세하고 정밀하게 클로즈업해 촬영했다. 비어만의 사진은 감정적 해석이나 장식적 연출을 배제하고, 오브제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불필요한 배경이나 소품 없이, 사물의 형태와 표면,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만으로 화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접근은 신죽물주의 미학의 핵심인 ‘자기운 사실성’과 ‘비감상적 관찰’을 대표적으로 구현한다. 평범한 달걀, 컵, 접시 같은 일상 오브제도 그

녀의 시선을 통해 예술적 대상으로 승화되며, 정물사진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존재의 본질과 미적 질서를 탐구하는 장르임을 보여준다. 비어만의 작업은 이후 미니멀리즘, 유형학적 사진, 현대 정물사진 등 다양한 사진 사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상 오브제의 미적 가치와 사진 매체의 객관성을 강조한 점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 그녀의 사진은 신죽물주의 정물사진이 “존재에 대한 깊은 응시”가 될 수 있음을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⁵

5) <https://www.museum-folkwang.de/en/exhibition/aenone-biermann>

4. 한스 펀슬러 (Hans Finsler, 1891–1972)

핀슬러는 스위스 출신으로, 기능성과 조형성을 강조하는 정물사진을 남겼다. 그는 제품 사진(Product Photography) 영역에서도 신죽물주의 미학을 확장시켰다.⁶ 단순한 오브제도 극도로 정돈된 구도와 명확한 조명, 조형적 긴장감 속에 담아낸다. 핀슬러는 상업적 정물사진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⁷

신죽물주의 정물사진은 사물을 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 자체의 구조와 물성, 질감을 극대화해 보여주는 ‘냉정한 사실성’의 미학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평범하고 일상적인 오브제도 클로즈업과 정밀한 촬영을 통해 조형적 질서와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했다. 신죽물주의 사진가들은 회화적 모방이나 감상적 연출에서 벗어나, 사진만의 기록성과 객관성을 예술의 본질로 삼았다.

이러한 미학은 이후 산업 사진, 과학 사진, 현대 광고 사진, 패션 포토그래피 등 다양한 분야에 깊이 스며들며, 사진 예술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⁸ 초현실주의가 무의식과 꿈을 탐색한다면,

신죽물주의는 현실과 물질의 진실에 천착했다.

정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 깃든 세계는 쉼 없이 변주되고 있다. 이처럼 신죽물주의 정물사진은 20세기 사진예술의 흐름과 시각적 감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미학적 전환점이 되었다.⁹

참고 사진 사이트

- 사진1: <https://umma.umich.edu/objects/adiantum-pedatum-2014-2-9/>
- 사진2: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Karl-Blossfeldt>
- 사진3: <https://www.fundacionmapfre.org/en/art-and-culture/exhibitions/historical/year-2017/renger-patzsch/>
- 사진4: <https://artblart.com/2019/10/07/exhibition-aenone-biermann-intimacy-with-things-at-the-pinakothek-der-moderne-munich/>
- 사진5: <https://www.tate.org.uk/art/artworks/biermann-ceramic-cup-p80261>
- 사진6: <https://sammlung.staedelmuseum.de/en/work/cup-saucer-and-plate>
- 사진7: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83994?artist_id=24589&page=1&sov_referrer=artist

6) <https://www.eguide.ch/en/objekt/schokoladen-mischmaschine/>

7) <https://www.fotoindustria.it/en/exhibitions/schokoladenfabrik/>

8) <https://www.xibtmagazine.com/2018/01/neue-sachlichkeit-photography/>

9) <https://www.theartstory.org/movement/new-objectivity/>

제30대 산악사진분과 정기출사 이야기

[글_정형식(산악사진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_이성길(산악사진분과위원회)]



제30대 산악사진분과위원회 단체사진

2025년 3월 29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구름이 다소 많은 약간은 쌀쌀한 날씨 보물섬이라 불리우는 남해의 금산 등산로 초입 저 멀리 제주에서부터 북방한계선 파주까지 여수, 양산, 광주, 청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14명의 작가님들이 휘적휘적 어둠을 가르며 신선처럼 나타나셨다. 제30대 산악사진분과위원회 활동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이제는 가족처럼 얼마나 반가웠는지 어스름 새벽의 금산 제2주차장이 금방 시끌벅적해졌다. 이내 조용조용 카메라 렌즈 삼각대 간식거리 등을 챙기고 방한복도 잘 여몄다. 배낭을 지고 마지막 스틱을 들자 진중한 표정의 산행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이후 흔들흔들 각자의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하며 금산의 정상을 향해 일렬종대 행진이 시작되고 공식적인 원박 투데이의 작품활동 시간이 시작되었다. 남해 3대 일출 명소인 천년고찰 보리암을 지나자 금산 정상 부근의 조망 좋고 촬영하기 편한 장소를 찾아 작가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은 요기 바위 지나 저기. 이 장소는 좁으니 위험해서 작가님 세분만, 또 다른 팀은 조금 더 지나 널찍한 곳에 자리를 잡고, 몇몇 작가님은



©강희찬



©유을용_남해보리암



©오재웅

전 날부터 작품활동으로 지친 작가님들이 편히 쉬고 남해의 푸른밤을 만끽하기에 충분한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들만의 아지트...

잠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후 네 번째 일정으로 사천 굴 양식장을 찾았다. 화장실도 없는 깨끗한 어촌 마을에 굴양식장이 조성되어 있었다. 사진작가님들이 좋아할 만한 기하학적인 데크가 조성되어 있어 장소를 옮겨가며 촬영에 들어갔다. 드론을 준비한 작가님들은 하늘로 하늘로 위ing 위ing 드론을 띠우기 시작했다. 방사형 원형 사각앵글 갈매기 어선 방파제 등 속소로 돌아와 피곤도 잠시 접어두고 제30대 산악사진분과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다. 자연스럽게 치킨과 과자를 안주 삼아 쏘맥을 한잔씩하며 그간의 행사와 예산집행 과정을 논의 토론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 6월의 도봉산 북한산 촬영 일정 10월의 영남알프스 간월재 출사 계획까지 확정하는 아주 유익한 분과회의를 마무리한 후 인근에 위치한 삼천포해물탕&낙지볶음 집에서 저녁식사겸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렇게 남해의 푸른밤은 지나고, 때르르릉 때르르릉.. 새벽 4시반 기상알람이 울렸다. 이번 정기출사 일정의 마무리인 고성군 시루섬으로 일출 촬영을 위해 눈꼽만 띠고 출발하였다. 시루섬 촬영장소는 다소 비좁고 다른 진사님들로 북적였지만 분과위원님들의 열정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사천시 뚝배기 집에서 따뜻한 식사와 함께 마지막 산악사진분과 위원님들의 온정을 나눈 이번 정기 출사 일정은 정말 행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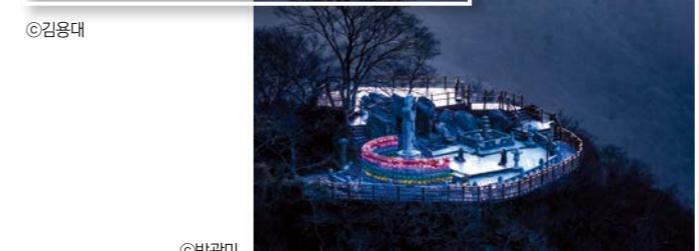
©정형식



©김팔영



©방성공



©박광미



©이성길_시루이섬의본일출

“끊겼던 국제교류 재개합시다”

유수찬 이사장, 화쯔 FAPA 회장과 환담

[아시아 사진연맹]



유수찬 이사장과 아시아사진예술연맹(FAPA) 화쯔(Herman.Y) 회장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모습



아시아사진예술연맹 세어 랑빙(Seah Liang Bing, 사진 왼쪽 두번째)
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는 유수찬 이사장



환담을 나누는 은효진 운영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김시목 부이사장, 화쯔 회장(사진 맨 왼쪽부터)

동일액자

- 하드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작품에 기술을 더한 액자와 사진출력”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창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http://dongilframe.alltheway.kr/>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5년 4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100,022,247
계 : 1,209,911,933 (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25,500,000 (3,255명/발전기금100,000/인)

-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 ② 2018년 계 : 53,200,000
- ③ 2019년 계 : 100,900,000
- ⑤ 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 ⑥ 2021년 계 : 27,700,000
- ⑦ 2022년 계 : 32,200,000
- ⑧ 2023년 계 : 16,900,000
- ⑨ 2024년 계 : 25,900,000
- ⑩ 2025년 계 : 16,400,000
- ▷ 2024년01월(50명) : 5,000,000
- ▷ 2024년03월(36명) : 3,600,000
- ▷ 2024년05월(14명) : 1,400,000
- ▷ 2024년07월(50명) : 5,000,000

- ▷ 2024년09월(39명) : 3,900,000
- ▷ 2024년11월(70명) : 7,000,000
- ▷ 2025년01월(108명) : 10,800,000
- ▷ 2025년03월(56명) : 5,600,000

○기타 계 : 86,410,467

-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34,751 (30대 누계)
-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32,787,496 (30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09,911,933 (a-b)

2025 전국 사진강좌 안내(5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울산전국사진강좌	울산지회	5월 17일(토) 오후1시~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제천전국사진강좌	제천지부	5월 24일(토) 오후1시~5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구미전국사진강좌	구미지부	6월 07일(토) 오후1시~5시	구미 성리학역사관
의왕전국사진강좌	의왕지부	6월 28일(토) 오후1시~5시	계원예술대학교 정보관 B1공통 강의실

서비스 섬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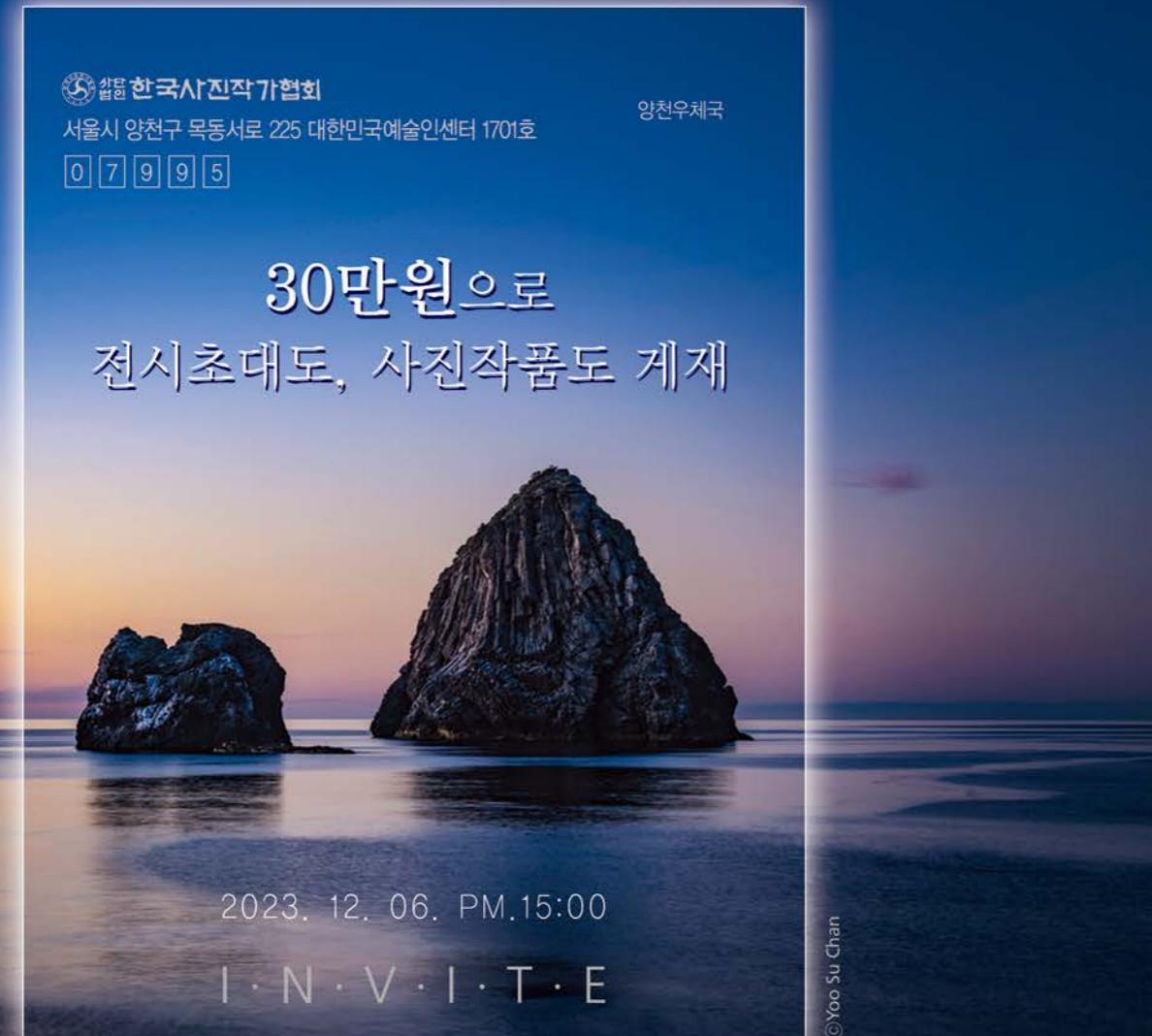
제주도 촬영 가이드 권기갑
연락처 : 010-3696-5202

제주도 풍경 및 장노출 촬영 안내

제주도 촬영 : 계절별 하루 10시간 기준 차량 5인승 4명까지 포인트 안내 기름값 포함 20만 원
여행철 : 6월~9월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후 4시부터 일몰까지 (하루 시간이 긴 관계로)
촬영 오실 때 : 삼각대 4대까지 무료 대여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 4명 이상 차량 11인승(30만 원)
제주도 장노출 촬영 및 스토리 작업 (초보자 및 전문가 별도 촬영 지도) “촬영 전문 지도위원”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 게재 방법 안내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영, 그 바람의 선율 이강석 개인전 및 출판기념회

전시일시 2025년 5월 28일(수) ~ 6월 3일(화)

전시장소 통영시민문화회관 제1전시실

(경남 통영시 남망공원길 29)

전시작가 이강석(010-3557-3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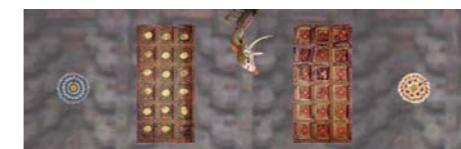


30여 년간의 사진 작업을 통해 통영의 풍경을 탐구하며 발견한 시각적 서사와 미학적 고찰을 담고 있다. '통영, 바람의 선율'이라는 제목 아래, 공간과 시간의 교차점에서 포착된 통영의 다중적 정체성을 조명한다. 또한 미학적 접근 방식을 통해, 통영 풍경의 시간성과 공간성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이미지를 통한 지역성의 시각적 재현에 관한 사색적 서사를 제시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절집 꽃 – 절집은 모든 게 꽃이다

박덕률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5월 27일(화) ~ 6월 2일(월)

전시장소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제3전시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초대일시 2025년 5월 28일(수) PM. 6:30
전시작가 박덕률(010-5515-3000)

나는 절의 담집, 문살, 불단 등에 나의 마음을 담아 꽃으로 만들어 보았다.

왜냐면 부처님에 대한 꽃 공양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절집의 꽃도 아름답지만 내 마음이 함께해서 더욱 아름답다.

절의 담집, 문살, 불단 등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불교예술의 극치이다. <중략>

이번 전시는 절집의 꽃을 분해하고 해체하여 새로운 절집의 형상을 재해석해 만들었다.

절집의 꽃을 몇 송이 속아낸 다음 정성스레 다듬어 공양으로 올려볼까 한다.

아마, 부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작가노트 중에서>

기억 속의 광안리

김종구 개인전



부산의 바다, 그중에서도 광안리는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스며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이곳에 쌓이고, 추억이 되어 흘러갑니다. 저는 이러한 광안리의 다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중략>

이번 사진전 “기억 속의 광안리”는 흑백의 시선을 통해 시간과 감정이 녹아든 광안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안개가 드리운 새벽의 해변, 겨울 바다의 쓸쓸함, 여행자의 설렘과 이곳을 지켜온 이들의 일상,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했던 한 순간의 정서를 조용히 펼쳐 보입니다. 색이 사라진 사진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감정과 기억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 광안리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곳에서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5월 27일(화) ~ 6월 5일(목)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부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2층 바다갤러리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전시작가 김종구(010-4460-6448)



해송과 구름, 시간의 대화

김용구 사진전

장노출 촬영을 통해 해송과 구름을 한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고정된 해송과 쉼 없이 움직이는 구름은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했다. 해송은 흔들림 없는 침묵으로 서 있고, 구름은 시간을 따라 유연하게 흘러간다. <중략>

해송과 구름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다는 것을, 어떤 날은 해송처럼 단단히 서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날은 구름처럼 흘러가야 한다. 장노출 촬영은 이러한 삶의 균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번에 제 전시 작품 속 사진을 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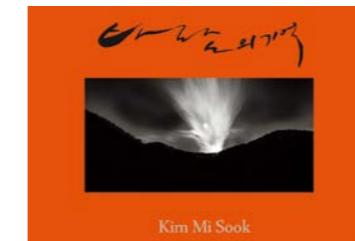
전시일시 2025년 6월 3일(화) ~ 6월 8일(일)

전시장소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34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66, 3F)

개전식 2025년 6월 3일(화) 오후 6시
전시작가 김용구(010-3538-2993)

바람의 기억

김미숙 초대전



Kim Mi Sook

1차 전시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01일(화) ~ 4월 10일(목)
갤러리 상생(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로 71)

2차 전시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29일(화) ~ 5월 06일(화)
갤러리 탄(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48 굿앤월드빌딩 5F)

3차 전시일시 및 장소 2025년 8월 12일(화) ~ 8월 31일(일)
갤러리 밝은 방(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전하울길 46)
(관람시간 11:00~18:00, 일·월요일 휴무)

전시작가 김미숙(010-4845-0121)

바람은 항상 지나가는 존재이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바람은 이 흐름의 상징성이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바람은 언제나 나의 곁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느끼는 것은 순간의 감각에 불과하다.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나는 그 속에 담긴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 바람은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는 듯,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감정들을 일깨우

기에. 나의 사진 작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메시지이다. <중략>

이 사진 작업을 통해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기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며. 바람은 나에게 잊혀진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 기억은 다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작가노트 중에서>



竹

김준기 사진전

전시일시 2025년 5월 28일(수) ~ 6월 15일(일)

전시장소 여주시립미술관 “아트뮤지엄 러”
(경기 여주시 명품로 370, 퍼블릭마켓 / Tel 031.887.2630)

개전식 2025년 5월 31일(토) AM.11:00

전시작가 김준기(010-3256-3802)



5년여전 어느날 죽순에 맺힌 영롱한 물방울은 “이슬이 아니라 주변 대나무들이 자신에게 오는 영양분을 새 생명에게 서로 양보하니 하루 1m를 자라고도 남아 넘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동안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어미새가 새끼에게 주려고 목숨걸고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이 아기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나무 속은 비어있다. 진정한 충만은 비움인 것이다. 마음의 공간은 늘 비어 있어야 언제든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고 진정한 마음의 울림을 느끼며 행복을 갖게 되고 늘 꽉찬 생각과 넘쳐나는 스트레스를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접하고 배우더라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덩 빈속 가득함을 채우고 있는 대나무가 나의 삶을 되돌아 보게 해 주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창립 40주년 매일신문사진동우회전



전시일시 2025년 5월 20일(화) ~ 5월 25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1전시실 (오전10시 ~ 오후7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참여작가 60명

연꽃의 향취
 제2회 최영근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5월 12일(월) ~ 5월 30일(금)
 전시장소 당진문화원 2층 전시실
 (09:30 ~ 17:30 / 토·일요일 휴관)
 전시작가 최영근(010-5432-5656)

연꽃은 땅속 진펄에서 뿌리로 겨울잠을 자고 봄에 꽂대가 수면 위로 솟아 올라와 6~7월 이른 새벽에 하늘을 향해 살며시 상큼한 향기를 내며 활짝 편다가 오후가 되면은 꽃잎을 접는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3~5일이 되면서 꽃잎이 시들어 낙화한다.
 나는 고고한 자태로 피어 봄내는 시기에 찾아가 담아 온 장면들을 선별하여 전시한다.
 <작가노트 중에서>

나무의 시간
 아지트미술관 기획초대 최현숙 개인전

제18회(입회점수 있음)
강남구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 2025년 10월 15일(수) 당일 도착분
 세계적인 도시 강남구의 발전상 아름다운 강남, 각종문화, 체육을 담은 사진을 강남구 홍보작품으로 활용하고
 사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공모전을 개최, 강남구민 및 전국 사진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모분야

- **강남구 관광 공모분야**
 - 강남구 상징 및 강남구 사계절 자연경관
 - 문화, 체육, 관광 생활상
 - 강남구 관광작품 3년이내 촬영한 미발표작
- **자유창작 공모분야**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 미발표작

응모방법

- 출품자격 : 전 국민 사진애호가
- 응모작품 : 11X14 장정불요 (테두리 및 흑백사진 제외) 과도한 색보정, 합성작 제외
- 출품료 및 작품수 : 1인 2만원 / 작품 4점 까지
- 출품요령 : 작품명, 성명, 폰번호, 우편번호, 주소 등 기재
- 출품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당일 도착분
- 접수처 : (우) 06184 사협 강남구지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6길 22-2 / 103호 내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남구지부 / 우편 택배등 접수만 가능
 ※ 10월 하순경 한국사진작가협회 입상작 흠 게제 발표 예정

2025년 제18회 공모전시상 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1부 강남구 관광분야			2부 자유작 창작분야	
	작품수	시상내역	작품수	시상내역	
금 상	1	강남구청장상 작품매입비 300만원	1	강남구문화원장상	100만원
은 상	2	강남구의장상 작품매입비 각150만원	1	강남구지부장	50만원
동 상	3	강남구문화원장상 작품매입비 각100만원	2	강남구지부장	각30만원
가 작	3	강남구지부장 작품매입비 각50만원	3	강남구지부장	각10만원
입 선	40	강남구지부장 작품매입비 각10만원	출품수 20%내외	강남구지부장	

※ 관광분야 응모작은 **3년 이내 촬영한 미발표 작품**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주최 측 작품 매입작은 각종 홍보매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며, 각종도서출판물에 기재 등 사용함
 ※ 발표일로 5일 이내 원본파일 4,500픽셀 이상 인화파일 및 원본파일 제출, 미제출시 상권 취소함

※ **과도한 색 보정, AI 합성작, 포토샵 및 강남구 미 표현 작, 항공사진 등 (강남구 비행금지 구역) 제외**

※ **강남의 상징 작 2023년 이후 작품, 각종 문화체육 행사 작품은 당 연도 촬영작 원칙으로 함**

※ 입상, 입선작 사협 입회점수 인정됨, 모델 초상권 법적문제 발생 시 수상작가가 책임지며, 합성작, 타 발표된 동일, 유사작으로 판정 시
 수상취소와 시상금 반환해야 하며, 사협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사협 입회 유보됨

※ 낙선작은 전시기간 전시장에서 작품 도록과 함께 직접반출, **미 반출작은 반환하지 않음**

2025 고창 관광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당일도착분
2025. 07. 01
~ 07. 30

작품내용

고창군의 문화유산, 자연유산, 관광지, 자연경관, 문화유산, 축제, 민속행사 등 고창군 홍보에 적합한 미발표 자유작

행사일정

심사일·장소 2025년 8월 2일(토) 예정/ 장소 추후 확정
심사발표 2025년 8월 4일(월) / 고창군청 및 한국사협 홈페이지
전시·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응모방법

응모자격 전국 사진 애호가

작품규격 흑백 및 컬러 인화 11"×14" (장정 불요)

출 품 수 1인 6점 이내

출 품 료 20,000원

출품요령 각 작품뒷면에 출품표 부착(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자 정확하게 기재)

문 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지 부 장 010-3653-9905

사무국장 010-2651-3127

접 수 처 (5645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수월길 104-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시상내역

금상 (1명) 작품저작권료 2,000,000원 (고창군수상)

은상 (2명) 작품저작권료 각 1,000,000원 (고창군수상)

동상 (3명) 작품저작권료 각 500,000원 (고창군의회 의장장상)

가작 (5명) 작품저작권료 각 200,000원 (한국사협 고창지부장상)

입선(50명) 작품저작권료 각 100,000원 (한국사협 고창지부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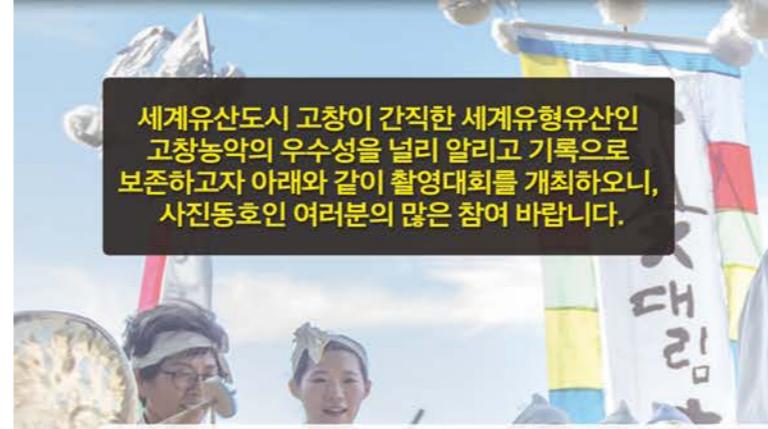
일반사항(응모조건)

-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입상 및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와 고창군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30년간 고창군 홍보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인쇄물 제작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 선정후에라도 선정 취소)
- ◆ 동일 작품으로 타 공모전 입선, 입상작은 중복 참여 불가 하며, 타 공모 수상작 또는 대리작 · 표절의 경우, 심사와 시상에서 제외되고 수상 이후에도 확인될 경우 시상이 취소될 수 있음.
- ◆ 디지털 합성, 과도한 후처리(조작 및 변형), 규격미달 작품은 심사제외
- ◆ 심사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수상자 및 출품자에게 있으며, 타공모전의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할 경우 심사제외 및 시상을 취소되며, 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 수상작으로 선정된 출품자는 7일 이내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요구받았을 경우 제출해야 함.
- ◆ 작품매입비는 원천세 공제 후 지급, 수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해야 함
- ◆ 모든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후 출품자 전원에게 개별 발송

- 주 최 | 고창군

- 주 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 후 원 | 고창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참가요강

- 촬영대회 기간 : 2025. 8. 29. ~ 8. 31.(고창농악꽃대림축제)
- 부대촬영기간 : 고창농악상설굿판
(2025년 4월~7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7:30)
- 참가자격 : 전국민(참가자격 제한 없음)
- 대회장소 : 고창농악전수관 일원(고창군 성송면 향산1길 106)
- 개회식 행사 : 없음
- 참가비 : 30,000원(사진출품시 납부)
- 촬영내용 : 제6회고창농악꽃대림축제 공연행사 및 2025년에 고창농악 보존회가 주관하는 농악공연에 관한 내용

사진 출품 안내사항

- 작품 규격 : 11"×14" 컬러 및 흑백 인화지
- 출품수 : 1인 4매 이내
- 작품 접수기간 : 2025.9.01~9.30
- 접수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수월길 104-1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
- 출품표에 촬영대회명칭, 작품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자 필히 기재(각 출품작 뒷면에 부착)
- 연락처(문의처) : 지부장 010-3653-9905, 사무국장 010-2651-3127
- 심사일시 : 2025. 10. 3. (예정) ○ 시상 및 전시: 추후통보
- 심사장소 : 고창군청 5층 회의실(예정)
- 심사결과 발표: 심사 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에 공고 및 개별 문자메세지로 통지
- 입상 및 입선작은 7일이내 원본 파일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이메일 : dolmens@naver.com)

2025 고창군 역사문화·민속 촬영대회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촬영대회
8.29~8.31



시상내역

- 금상 1점 : 고창군수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 은상 2점 : 고창군의회의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50만원
- 동상 3점 : 고창지부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30만원
- 가작 5점 : 고창지부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20만원
- 장려 5점 : 고창지부장 상장, 작품매입비 각 10만원
- 입 선 : 총 출품수의 20% 이내, 고창지부장 상장

기타(유의) 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고창지부와 고창군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10년간 고창군 홍보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인쇄물 제작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수상 결정 후 선정 취소)
- 초상권 및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해당 수상자 및 출품자에게 있으며, 타공모전의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할 경우 심사제외 및 시상을 취소되며, 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 작품매입비는 세금 공제 후 지급, 수장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요망
- 낙선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후 출품자 전원에게 개별 발송

●주최·주관 고창군·고창군의회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협동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제9회

안동포(전통길쌈) 전국 사진촬영대회

촬영대회 | 9. 27.(토) 오전 10시(우천불구)

출품마감 | 10. 23.(목)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며 경북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포(안동포)의 생산 및 제조와 관련된 전통길쌈을 내용으로

제9회 안동포(전통길쌈)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오니 전국 사진동호인들의 많은 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작품내용

- 행사장 일원 당일 출연자를 중심으로 한 칼라사진
- 삼베 천연 염색, 삼베 널기, 전통 안동포 제작 전반에 대한 공정별 다수 내용 및 대마수확 등 삼베 마을 또는 삼베박물관(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삼베 관련 작업 사진 등
- 당일 드론 촬영 금지

대회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생수제공) 우선예약접수

참가신청방법

- 당일현장접수 30,000원
- 우선예약접수 30,000원
(2025년 9월 22일[월] 24시까지 아래계좌 입금시)
농협 301-0165-5330-41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

작품규격 • 11 X 14 인치 디지털 컬러사진(흑백사진 제외)

출품 수 • 1인당 4점이내(출품표 복사 부착)

출품방법

- 촬영대회 당일 주최측이 정하는 촬영모델을 대상으로 한 작품 1점 이상 포함.
- 입상 및 입선작은 심사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출력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시 상권이 취소됨. (해상도 300dpi, 3,000pixels 이상 JPEG 파일로 주최 측이 지정한 웹하드에 제출)
- 작품의 제목 선정 시 고유명사가 있거나 공식적인 문화재 명칭과 고유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작품 제목 10자 이내)

접수마감 • 2025년 10월 23일(목) 도착분

접수처 • (우) 36753 경북 안동시 옹정골길 86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
054)841-2213, 사무국장 010-9364-9490

심사일시 • 2025년 10월 25일(토) 10:00

심사장소 • 성희여자고등학교 민송체육관

촬영장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중앙길 85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제38회

안동전국사진공모전

2025. 6. 12.(목) 도착분

사협입회 점수 인정

심사내용

응모자격 제한없음

작품내용 미 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11"X14" 칼라 및 흑백

출품 수 1인당 4점 이내(작품 뒷면에 주제,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배달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출품 바람)

출품료 20,000원

출품마감 2025년 6월12일(목)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한국사진작가협회안동지부,
(우)36753 경북 안동시 옹정골길 86, 전화 054-841-2213

응모방법

심사일자 2025년 6월 14일(토) 10:00 성희여자고등학교 민송체육관 공개심사

심사발표 당일 2025년 6월 14일(토) 안동지부 홈페이지(<http://www.paskad.com>) 공고

시상식 2025년 7월 19일(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예정, 변경가능)

전시 2025년 7월 18일 ~ 20일(3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전시(상시)

시상내역

금상 1명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상장 및 국보 제121호 하회탈 1세트(금상 마크 포함)

은상 2명 안동시장 상장 및 국보 제121호 하회탈 1세트(은상 마크 포함)

동상 3명 안동시의회 의장 상장 및 국보 제121호 하회탈 1세트(동상 마크 포함)

가작 5명 사협 안동지부장 상장 및 국보 제121호 하회탈 1세트(가작 마크 포함)

장려 5명 사협 안동지부장 상장 및 하회탈 목걸이 2세트

입선 출품수의 20%이내(입상작 포함) 사협 안동지부장 상장

기타사항

1. 입상 입선작은 사협 입회 접수 인정(입상 및 입상작 7일 이내 파일 제출)

2. 입상·입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고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측에 있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동일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이 될 경우 상권 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기간 동안 입회를 유보함.

4.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내용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모전 내용에 준한다.

안동전국사진공모전은 상금이 없습니다. 상금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국보 제121호 하회탈 제작 명인의 조각품 액자를 부상으로 드립니다.

예산지원 (부서명)	예 산 액(단위 : 천원)			
총예산	도비	시비	자부담	
안동시 (문화예술과)	44,000 (100%)	11,000 (25%)	28,000 (63.64%)	5,000 (11.36%)

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 후원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사진작가협회주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 주관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시

접수마감 : 2025년 7월 1일 ~ 7월 15일 소인 유효
(방문 및 우편접수)

제17회 아름다운 괴산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요강

-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
- 후원 : 괴산군, 괴산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괴산지회, 괴산문화원

1.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진 동호인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괴산의 아름다운 명소, 특산물, 문화유산, 축제나 행사, 괴산의 발전상을 표현한 작품 포함.
- 출품규격 : 컬러 및 흑백 11"x14" (장정불요)
- 출 품 료 : 1인 2만원(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출품작은 반송하지 않음.
- 출 품 수 : 1인 6점이내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출품표에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장소 표기해서 접수
- 접수마감 : 2025년 7월 1일 ~ 7월 15일 소인 유효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우)28044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원소로명덕1길 191
- 기타문의 : 010-5490-8330 (지부장), 010-6409-3899 (사무국장)
- 심사발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http://www.pask.net>)



2. 시상내역

- 금상(1점) : 괴산군수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은상(2점) : 괴산군의회 의장, 괴산문화원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동상(3점) : (사)한국예총 괴산지회장 상장 및 각 50만원
- 가작(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장 상장 및 각 20만원
- 장려(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장 상장 및 각 10만원
- 입선(50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괴산지부장 상장 및 각 10만원
- 사상 및 전시 : 2025년 8월 말경 ~ 9월 초 (추후통보)
- 전시장소 : 추후공고

3. 기타(유의)사항

- 본 공모전에서 유사작 및 동일작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되었을 경우 상권 취소는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이내의 기간동안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됨.
- 수상작중 국·내외 상표출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상금 회수 및 상권은 취소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또는 지회, 지부, 도지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가작 이상의 수상자는 16X20사이즈 사진인화 및, 입선 이상의 선정된 작품은 3000 X 2000 픽셀 이상의 JPG원본파일을 10일 이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상권 취소,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출품자가 모든 책임을 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 백제의 고도 / 제23회 부여서동연꽃축제와 함께하는 전국사진촬영대회

부여서동연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촬영대회 개회식 2025년 7월 5일(토) 10시

촬영대회 기간 2025년 7월 4일(금) ~ 6일(일) 연꽃축제기간(3일간)

응모방법

- 촬영장소 부여 서동공원(궁남지) 일원
- 작품내용 • 부여서동연꽃축제기간(7월 4일~6일)에
촬영한 행사에 관한 사진
• 2025년 6월 28일~8월 3일 기간에 각종행사 및 궁남지
연자와 연꽃에 관한 사진
- 참가대상 누구나
- 참 가 비 3만원(작품출품시 납부)
단, 7월 4일~6일 촬영대회 참여자(중식권 및 출품표 제공)
- 작품규격 11×14" 디지털사진 1인당 4점 이내
- 출품방법 우편접수(작품 뒷면에 작품명, 촬영일시, 성명, 주소, 연락처,
우편번호, 촬영대회(7월 4일~6일)에 참여한 작가님은
일련번호가 기재된 대회장에서 발행된 출품표 부착)

저작권 귀속 및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및 입선작은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고 저작물의 사용권은 주최 측에 있으며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입선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출력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제출된 파일을 체크하여 부여궁남지 이외의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은 작품은 상권이 취소되니 주의 바람.
(해상도 300dpi, 3,000pixels이상 jpg파일을 사)한국사진작가 협회 부여지부 E-mail "bypask@naver.com"으로 제출)
- 모든 출품자에게 작품집 증정하고, 출품자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 있으며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음.
- ※ 추후 사정에 따라 공모 세부요강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행사일정

- 접수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22일
- 접 수 처 우)33168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9(신안빌라) 203호
사)한국사협회부여지부 사무국(010-8653-5027)
- 접수문의 지부장 010-3408-8390 / 사무국장 010-8653-5027
- 심사일시 2025년 8월 28일
- 발 표 일 2024년 8월 29일(사협본협회홈페이지, 부여군홈페이지)
- 전시기간 2025년 10월 3일 ~ 10월 5일
- 전시장소 궁남지 연꽃갤러리
- 시 상 식 2025년 10월 3일 14:00시(장소:궁남지연꽃갤러리)

시상내역

시상	점수	상금
금상	1점	부여군수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은상	2점	부여군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부여군예총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사협부여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장려	5점	사협부여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입선	출품작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사협부여지부장 상장

※ 시상금은 작품매입비로 지급

- 상금은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지부 명의로 통장으로 지급
- 입상 수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여하여 함



2025 정남진장흥

관광사진 공모전

[입회점수 있음·접수마감 2025. 11. 17 소인유효]



■ 출품자격 : 제한없음

■ 작품내용

- 정남진장흥을 주제로 한 국내외 미발표된 사계절 사진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고, 정남진장흥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사진

- ① 장흥 9경(9경 : 정남진전망대, 탐진강,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천관산, 정남진장흥도요시장, 제암산, 보림사, 소등섬, 선학동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 및 8명산(가지산, 수인산, 제암산, 삼비산, 사자산, 부용산, 천관산, 억불산)
- ② 장흥 9품(장흥표고, 장흥무산김, 낙지, 한우와 육포, 청태전, 헛개나무, 황칠나무, 친환경쌀 아르미, 매생이)을 소재로 한 작품
- ③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축제, 문화 및 예술제, 체육행사, 생활상 등 관광 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 작품규격 : 11" × 14" 칼라 및 흑백

■ 출품수 및 출품료 : 1인 6점 이내 / 20,000원

※ 출품작품 뒷면에 아래 내용을 기록한 출품표를 부착하여 제출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촬영장소, 촬영일시)

■ 문의처 : 지부장(010-2684-0100)

사무국장(010-7101-5524)

■ 접수처 : 우 59324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 34 (사)한사협 장흥지부

■ 접수일자 : 2025년 11월 3일~2025년 11월 17일(소인유효)

■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 : 2025년 11월 22일(토요일 / 공개심사)

■ 심사장소 : 장흥군민회관 회의실(2층)

■ 심사발표 : 2025년 11월 24일(월요일), (사)한사협 홈페이지

■ 시상내역

- ◇ 금상 1점 : 장흥군수 상장 및 작품매입비 1,000,000원
- ◇ 은상 2점 : 장흥군의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500,000원
- ◇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300,000원
-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200,000원
- ◇ 입선 3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100,000원

■ 작품반송 : 낙선작은 3개월 이내에 폐기함. 다만, 출품자의 반환 요구 때 5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에 드는 비용은 출품자에게 있음.

■ 일반사항

- ◇ 수상작품은 주최, 주관처에서 필요한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 출품자에게는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및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등 모든 책임이 있음.
- ◇ 입상(선)된 작품은 저작자와 협의하에 장흥군의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입상 및 입선된 자는 가로 3,000픽셀 이상 원본파일과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발표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미 제출 시 상권 취소, 제출처 (ah7600@naver.com))
- ◇ 각종 공모전에서 동일작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조치하며 비회원은 입회를 7년간 유보함.
- ◇ 작품집은 발행하지 않음.

제55회 충청남도사진대전

작품접수일 : 2025년 7월 16일(수) 10~18시(도착분)

제55회 충청남도사진대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진문화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사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출품자격
만18세 이상으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충청남도내(세종시 포함) 1년 이상 거주자, 동아리 단체, 직장인, 대학생(재직, 재학증명서 또는 신분증, 팜플릿자료 첨부, 기자사항 위반 발견시 상권 취소) 단 도내(세종시 포함) 각 지부 회원은 제한 없음
- ◆ 출품작품 : 일반공모전(회원, 일반인)
가. 내 용 : 국내 외 미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나. 규 격 : 흑백 및 컬러 11×14" (28×36cm)사진 (마트, 액자 불요)
심사 후 수상작 이상 16×20" (40×51cm)로 인화한 사진과 사진파일 동시 제출(E-mail)
다. 출품수 : 1인 4점이내
라. 출품료 : 1인 5만원
- ◆ 초대 · 추천작가
가. 내 용 : 국내 외 미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나. 규 격 : 흑백 및 컬러 16×20" 인화 제출
다. 출품수 : 1인 1점. 작품집 인쇄용 파일제출(shpyun@daum.net)
- ◆ 출품절차
가. 원서배부
 - 기간 : 2025년 6월 1일부터 접수일까지
 - 장소 :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 및 도내 14개지부, 세종지회
- 나. 작품접수일 : 2025년 7월 16일(수) 1일간 오전 10~18시까지
- 다. 접수장소 : 31983 충남 서산시 번화1로(문화잇슈) 667-1305 한국예총 서산지회
- ◆ 심사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예정
- ◆ 심사장소 : 서산시청소년수련관(잠정)
- ◆ 심사발표 : 7월 19일(잠정)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충청남도지회 까페공지
- ◆ 시상내용
가. 대 상 1점 : 충청남도지사 상장 외 작품매입비 300만원
나. 최우수상 1점 : 충청남도의회 의장 상장 외 작품매입비 100만원
다. 우수상 2점 :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장 상장 및 작품매입비 각 50만원
라. 특 선 :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장 상장(수상작수 10%)
마. 입 선 :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장 상장(출품작수 20%)
바. 초대작가상 1명 :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장 상패 및 작품매입비 100만원
사. 추천작가상 1명 : 한국사협 충청남도지회장 상패 및 작품매입비 50만원
- ◆ 작품반송
가. 낙선작품 : 출품자의 거주지 인근 지부 일괄반송
나. 전시작품 : 순회전 이후 출품자의 거주지 인근 지부 일괄반송
- ◆ 시상식
가. 시상식 : 2025년 9월 6일(토) 오후 2시
나. 장 소 :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
- ◆ 전시기간
가. 기 간 : 2025년 9월 5일~7일(3일간)
나. 장 소 : 서산시문화회관 전시실
- ◆ 기타
가. 도 사진대전에서 대상 5점, 최우수상 4점, 우수상 4점, 특선 3점, 입선 1점으로 15점을 득한 경우 충청남도사진대전
추천작가 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경과 후 초대작가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사진작가협회 가입을 위한 입회점수 인정, 최고상 7점, 입상 5점, 입선 4점
다. 수상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충청남도지회에서 비영리적 목적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음
라.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마. 입상작의 초상권은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입상 · 입선작은 본회 입회점수에 가산됨
바. 동일작, 유사작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될 경우 심사발표 후에도 상권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본회 입회를 7년간 유보 조치함
사. 출품자는 작품 출품시 개인정보를 별도의 서명 없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출품함
아. 기타 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문의
대회장 010-5420-4548 사무국장 010-9192-0173

- 본 공모전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으로 진행함 -



■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

■ 후원 : 장흥군, 장흥군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남도지회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청남도지회

후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의회 · 서산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요강은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제45회 대구광역시 사진대전

접수마감 2025. 6.18(수) 도착분에 한함

응모방법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고 국내.외에 발표되지 아니한 작품
- 작품규격 : 11×14inch 컬러 및 흑백사진
- 출품절차 : **작품접수마감 : 2025년 6월 18일(수) 도착분에 한함**
출품료 : 출품료 5만원 (1인 4점 이내)
일반공모 : 출품표를 지회 홈페이지 지회 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사무실에서 배부 받아서 사용
초대·추천작가 :
 - 출품원서(홈페이지 자료실)-심사용 8R 사진은 사무실 (6월18일) 제출 및 도록 제작용 파일을 E-mail로 제출
 - 초대작가 추천작가 작품전시 여부는 추후 공지(전시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합니다.**
- 출품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항의 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자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대구광역시사진대전에 입선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대구지회 회원
주민등록 주소가 대구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주민등록 초본 제출)



시상 및 심사 . 전시

시상내용 :

구 분	선정작수	시상내용
대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패
최우수상	1점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우수상	2점	대구광역시사진대회장 상패
특선		대구광역시사진대전대회장 상장 (입선작 10%이내)
입선		대구광역시사진대전대회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초대작가상	2점	대구광역시사진대전대회장 상패
추천작가상	1점	대구광역시사진대전대회장 상패

작품규격 :

대상 입상자 전시용 76×102cm (긴변의 길이가 102cm이내)

특선 이상 입상자는 전시용 60×90cm 크기의 유리 없는 액자(긴 변의 길이가 90cm이내)

입선 수상자 전시용 50×60cm 유리 없는 액자(긴 변의 길이가 60cm)

제작하여 8월 18일(월) 9시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0전시실로 제출

유의사항

- 입상, 입선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합니다.
- 입상, 입선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표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나, 유사한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고 회원은 징계 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가 유보되고, 작품 내용 중 초상권 침해 관련사항 일체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다수 입상, 입선작 중 1점이라도 상권 포기 또는 취소될 시에는 해당 작품과 관계없이 모두 상권이 취소됩니다.
- 낙선한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 후 개별 발송합니다.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후원 | 대구광역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이메일
dgpask06@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gpask.net>

문의사항
053)254-3268~9

제47회 전국흑백사진대전

접수 마감 2025년
5월 21일(수) 도착분에 한함



응모방법

- 참가자격 : 전국사진동호인
- 작품내용 : 예술성이 담긴 작품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발표 흑백사진
- 작품규격 : 11×14 inch (인화된 사진은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장정은 하지 않는다)
- 출 품 료 : 1인당 3만원
- 출 품 수 : 1인당 4점 이내
- 출품방법 : 일반공모-사진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합니다.
초대작가-출품원서(대구지회 홈페이지 자료실) 및 심사용 8R 사진(지회 사무실),
도록 제작용 파일(E-mail)을 제출합니다.
초대작가 작품전시 여부는 추후 공지(전시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합니다.
- 접수마감 : **2025년 5월 21일(수)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4267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 순환로 201. 대구문화예술회관 내 제 2예련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시상 및 심사 . 전시

시상내용 :	대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대회장	상금 200만원
	우수상	2점	흑백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및 대회장	상금 각 50만원
	특선		흑백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및 대회장	상금 20만원(입선작 10%이내)
	입선		흑백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초대작가상	1점	흑백사진대전 대회장 상장 및 대회장	상금 50만원

시상내용 및 장소 :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23일(금) 대구지회 홈페이지 및 본회 홈페이지

• **시상일시 :** 8월 19일(화) 대구문화예술회관

• **심사발표 :** 5월 26일(월) 대구지회 홈페이지 및 본회 홈페이지

• **전시일시 :** 8월 19일(화) ~ 8월 24일(일) 대구문화예술회관 6~10전시실

• **전시일시 :** 8월 19일(화) ~ 8월 24일(일) 대구문화예술회관 6~10전시실

작품규격 :

대상	입상작	우수상 입상작	특선 입상작
	30×40 inch로 인화하여 제출	20×24 inch로 인화하여 제출	20×24 inch로 인화하여 제출

유의사항

- 입상, 입선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합니다.
- 입상, 입선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표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나, 유사한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고 회원은 징계 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가 유보되고, 작품 내용 중 초상권 침해 관련사항 일체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다수 입상, 입선작 중 1점이라도 상권 포기 또는 취소될 시에는 해당 작품과 관계없이 모두 상권이 취소됩니다.
- 낙선한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 후 개별 발송합니다.

※ 전국흑백사진대전은 초대작가 제도가 있습니다.(대구광역시지회 홈페이지 참조) ※ 전국흑백사진대전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후원 | 대구광역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이메일
dgpask06@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gpask.net>

문의사항
053)254-3268~9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제52회 경상북도 사진대전

2025년 6월 26일(목) 17시 도착분

출품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인자.
 - 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나) 경상북도 사진대전에 출품하여 입선 또는 입상경력이 있는 자로 주소가 변경된 자.
 - 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회원인 자.
- ※ 접수시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 접수 불가.(주민등록등본, 회원증, 입상증빙상장사본, 소속지부장 확인증명서류 등)
- 1인당 80,000원(농협 301-0189-2584-51 한사협경상북도지회)
-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고 국내외에 발표되지 않은 자유작.
- 공모작 : 가) 작품규격은 28cm × 36cm (11" × 14") 장변에 테두리가 없을 것.
 - 나) 입선작 이상은 원판사진을 E-메일(you2064@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함.
심사발표 후 15일(7월 15일까지)이내 E-메일(you2064@naver.com)로 제출하지 않을시 입상, 입선 취소됨.
 - 다) 심사발표 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작품은 30" × 40" 사진 및 액자제작 제출, 특선, 입선작은 20" × 24" 사진인화 파일 제출과 액자제작비 점당 3만원을 7월 10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농협 301-0189-2584-51 한사협경상북도지회)
(미입금시 상권 취소되며, 2점 이상 입상된 경우 1점만 입금 및 제작 제출시 전체 낙선 처리됨.)
- 초대(추천)전
 - 가) 초대(추천)작가 : ① 심사용 8R 인화사진 제출
② 사진인화 파일 제출(작품의 규격은 20" × 24", 장변(長邊)의 길이가 60cm)
 - 나) 출품작 제출 : E-메일(you2064@naver.com) 제출하여야 하며,
액자제작비 3만원을 동시 입금(농협 301-0189-2584-51 한사협경상북도지회)
 - 다) 출품작은 2025년 6월 26일(목) 17시까지 작품 접수처로 제출.

출 품 료 작품내용 작품규격

원서배부일 원서배부처 출 품 수 접수 및 문의처 출품요령 심사일시 및 장소 심사방법 및 발표 시상내역

시상일시 및 장소 전시기간

기타사항



- 2025년 6월 1일 ~ 6월 26일까지
- 웹하드(<http://www.webhard.co.kr/>) ID:gpbask PW:gpbask123 / 풀더 : 제52회 경상북도 사진대전 원서
- 1인 4점 이내
- 39597 경북 김천시 김천로73-2 2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 지회장 010 4159 7061, 사무국장 010 5427 0711
- 출품원서와 함께 6월 26일(목요일 09:00~17:00)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 사무실에서 접수함.
- 2025년 6월 28일(토) 10시(예정) 김천성의고등학교 제육관(예정)
- 공개심사 : 2025년 6월 30일(월) 사협 홈페이지에 게재.
- 대 상 : 1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시상금 300만원(원판제출)
- 최우수상 : 1명 (사)한국예총 경북연합회장 상장 및 시상금 150만원(원판제출)
- 우 수 상 : 2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상장 및 시상금 각 100만원(원판제출)
- 특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상장(수상작품수의 10%이내)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상장(수상작품수의 20%이내(입상작포함))
- 초대작품상 : 1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상장 및 시상금 150만원(원판제출)
- 추천작품상 : 1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장 상장 및 시상금 50만원(원판제출)
- 2025년 10월 25일(토) 오후 3시(예정) 구미 새마을테마공원(예정)
- 2025년 10월 25일 ~ 10월 29일(예정) 구미 새마을테마공원(예정)
- 가) 입상(선)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되며 본 공모전에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나) 추천·초대작가 지정 해당자는 8월 15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북도지회로 신청 접수 바람.
- 다) 동일 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선)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고 사협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진대전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대리참석 가능)해야 함. 미참석시 작품시상금은 성금으로 기탁됨.
- 바) 입상작에 대한 작품시상금은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후 지급 함. *낙선 작품 사진은 반송하지 않습니다.



제33회

강릉 전국사진공모전

2025. 6. 9 월 ~ 7. 15 화
[소인유호]



사진예술의 저변 확대와 발전 및
사진애호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33회 강릉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작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응 · 모 · 방 · 법

- 응모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 작품내용** ▶ 미발표 순수 창작 및 자유작
- 작품규격** ▶ 11x14, 10x15 inch 컬러 또는 흑백 (장정불요)
- 출 품 료** ▶ 1인 20,000원 (4점 이내)
- 출품요령** ▶ 제목, 성명, 휴대전화,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 접 수 처** ▶ [우:2547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아트센터 3층 강릉예총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 심사발표** ▶ 7월 중순 예정 (개별통지 및 사협 홈페이지 게시)
- 시상식** ▶ 8월 말 예정
- 문 의** ▶ 지 부 장 : 010-5094-1237
사무국장 : 010-8850-8329

시 · 상 · 내 · 역	
금 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2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동 상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가 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 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
입 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장상 : 상장 (출품작의 20%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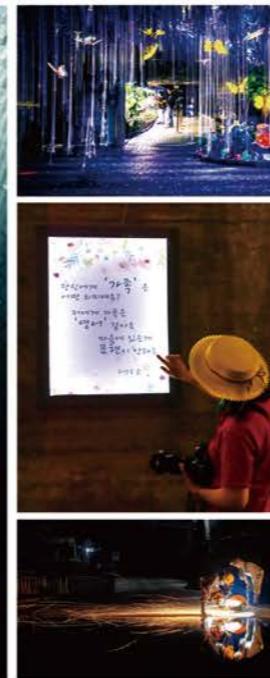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입선작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 작품 원본 파일 필히 제출 (jpg/긴변 3000픽셀 이상)
- 입선 이상의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작품집과 함께 개별 발송함.
- 입상, 입선작품은 주최·주관 측이 비영리적 공익사업에 사용 할 수 있음.
- 동일,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 되었을 경우, 상권 취소 되며 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보됨.
- 작품의 조상권에 대한 문제는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긴급사태로 전시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전시로 전환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에 문의 바랍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있음
2025. 6. 30 (소인유효)

제21회 광명전국 빛 사진공모전

**작품내용**

- 1부 : 미 발표 자유작
- 2부 : 광명시의 밤전상, 시 문화예술행사, 시 상징물(장미, 까치, 은행나무), 광명시 문화재
광명시 관련 내용(예 : 안양천, KTX광명역, 경륜장 기타 관련 시설, 풍경 등)

작품규격 : 흑백, 칼라 11x14(장정불요), 디지털 포함**출품수 / 출품료** : 1인 4점 이내 / 1인당 2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1-1130-3819-13 한국사진작가협회 광명지부**출품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및 동호인**출품요령** : 작품명, 촬영장소(광명소재 작품), 성명, 주소, 우편번호, 휴대폰 기재**출품마감** : 2025.6.21(월)~6.30(월) 당일 소인유효**접수처** :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민회관 2층 예총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명지부**접수문의** : 전화 (02)2681-0912, 2680-6229, 사무국장 010-8772-6406, 지부장 010-5275-1522**작품심사** : 2025.7.12.(토) 13:00~17:00, 광명시청 대회의실(공개 심사)**심사발표** : 2025.7.14(월) 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pask.net>(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명지부 카페 cafe.daum.net/paskm**작품전시** : 2025.8.12(화)~14(목), 16(토) 예정,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시상식** : 2025.8.12(화) 예정,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입상자 불참시 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인원	시상 내역
금상	1명	광명시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은상	2명	광명시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0,000원
동상	3명	(사)한국예총 광명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0,000원
가작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명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0,000원
장려	5명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명지부장 상장
입선	총 출품수의 20% 내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명지부장 상장

- 입상 및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낙선작은 도록과 함께 개별 우승.
- 입상 및 입선작은 광명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 도협의회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입상작은 발표 후 10일 이내 사진원본 필름, 디지털은 원본 디지털 파일을 접수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디지털 사진: 파일 사이즈 300dpi:3000X2000픽셀 이상) - 미제출시 상권취소
- 동일 및 유사작인 경우 상권은 취소하며, 협회원은 징계되고 비회원은 향후 7년 이내 동안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가 유보되며 상금을 반환한다.
- 출품작의 초상권은 출품자 본인이 승낙을 받아 두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시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회

★ 접수마감 2025년 7월 17일 (목) 도착분 ★

양산전국사진공모전

본 지부가 사진예술의 발전과 창작의욕을 높이며 사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갖는
제37회 양산전국사진공모전에 사진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모자격 전국 사진동호인 및 애호가**작품내용** 자유작(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 스마트폰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출품가능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x14" (장정불요)**출 품 료** 1인당 20,000원 **출품수** 1인당 4점**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출품표 부착 (출품표는 한국사협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한국사협홈페이지/사진정보/사진공모전요강/ "제37회 양산전국사진공모전"에서 다운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할 것)**접수마감** 2025년 7월 17일 (목) 도착분**접수·문의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50620 경남 양산시 양주5길 23-8 하이얀 내)
010-9326-7561(지부장) · 010-6325-7561(부지부장)**심사일시** 2025년 7월 19일 (토) 오전10시 공개심사**심사장소**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심사결과발표** 2025년 7월 21일 (월) (사)한국사협 홈페이지 게재 (<http://www.pask.ne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 게재 (<https://cafe.naver.com/ysphoto56/14>)**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100만원

은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남도지회 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3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예총 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1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지부장 상장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지부장 상장(800점 이상 시 시상)

입선(총 출품수의 20% 이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 지부장 상장

유의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본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

• **입상 및 입선작은 발표후 7일 이내에 출품 파일 (작품집 제작용 JPG파일)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 취소. E-mail : ysphoto56@naver.com• 각종 공모전에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입선한 경우 상권이 취소되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입회자격이 7년간 유보됨.•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전시종료 후 상장과 작품집만 개별 발송함.**• **가작 이상의 입상자는 전원 시상식에 참석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이 가능하며, 입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필히 지참 요망)

본 요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산지부**후원** 양산시, 양산시의회, (사)한국예총 양산시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37회 김해전국사진공모전



◎ 작품 내용 | 가야문화축제 행사 및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 ◎ 규격 | 칼라 및 흑백사진 11" × 14"
-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필히 기재)
- ◎ 출품료 및 수량 | 1인당 20,000원, 출품수 4점 이내(출품자 전원에게 수상작도록 발송)
- ◎ 접수처 | 50911 경남 김해시 구지로 95(대성동 463-6)
(사)한국예총 김해시지회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
(지부장 010-4320-1005, 사무국장 010-4019-6083)

- ◎ 접수 마감 | 2025년 6월 27일(금)
- ◎ 심사일, 장소 | 2025년 6월 29일(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 심사 발표 | 2025년 6월 30일(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 전시 일자 | 2025년 8월 4일(월) ~8월 8일(금) 김해예총회관 2층 전시실
- ◎ 시상 일자 | 2025년 8월 8일(금) 오후2시 김해예총회관 2층 전시실
- ◎ 시상 내역 | 금 상 1점 - 상금 1,000,000원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 상 2점 - 상금 각 300,000원 및 김해시장 상장
동 상 3점 - 상금 각 100,000원 및 김해시의회 의장 상장
가 작 5점 - (사)한국예총 김해지회장 상장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장 상장
입 선 - 총 출품작품의 20%(입상작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장 상장

- ◎ 기타 사항 |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 책임으로 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동안 공익적인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에 사용할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작품은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파일 제출(미제출시 입상 취소)
▶ 유사작 및 동일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징계 처리함
▶ 금, 은, 동상의 수상자는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낙선작 및 작품집은 시상식 및 전시장에서 반출하며, 그 외 우편 발송함.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김해지부

후원 | 김해시

김해시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김해지부

제34회

충진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5. 6. 16.(월) ~21.(토) 도착분 (입회점수 있음)

작품내용
작품규격
출 품 료
출품방법
출 품 처
문 의 처
작품마감
심사일시
심사장소
심사방법
심사발표
시상내역

국내외 미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창의적 자유작
칼라 및 흑백 11"×14"(장정불요)
1인당 2만원(4점이내)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작품 뒷면에 화제,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우 32563) 충남 공주시 국고개길 20 공주예술인회관 2층 (한국사협 공주지부)

지부장 010-3121-2058 / 사무국장 010-8811-2231
2025년 6월 16일(월)~21일(토) 당일 도착분에 한함.

2025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공주문화원 GALLERY (2층)
공개 심사
2025년 6월 25일(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공주지부 카페(<http://cafe.daum.net/potoGongju>)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1점 : 공주시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1점 : 공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공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장려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장 상장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장 상장(출품수의 20%이내/입상작 포함)

2025년 7월 26일(토) 오후 2시
공주문화원 GALLERY (2층)
2025년 7월 26일(토)~27일(일)
공주문화원 GALLERY (2층)

*입상, 입선자는 심사발표후 5일 이내 원본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photo2231@naver.com.)

*출품자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

*입상, 입선작의 사진사용권은 주최, 주관처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보

*낙선작은 반출하지 않으며, 작품집은 전시 후 상장과 함께 개별 발송

*수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금, 은, 동, 가작 입상자는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제출

주최: 공주시

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공주지부

후원: 공주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사)한국예총 공주지부

제18회

홍성전국사진공모전

마감 : 2025년 7월 22일(소인유효, 입회점수 인정)

출품방법

-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으로 국내외 미발표 작품
-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 작품규격 : 흑백 및 컬러 11" X 14"에 한함 (한 변의 길이는 정확한 규격이어야 함)
- | 출품요령 : 출품표에 제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요망
-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작품집(CD) 및 반송료 포함)
- | 출품수량 : 1인 4점 이내
- | 접수마감 : 2025년 7월 22일(화) (소인 유효)
- | 접 수 처 : 우)322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2-1(무궁화사진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지부장 : 010-9417-0597, 총무간사 : 010-9412-5386)

심사, 전시

- | 심사일시 : 2025년 7월 27일(일) 14:00
- | 심사장소 : 홍주문화회관 (예정)
- | 심사방법 : 공개심사
- | 심사발표 : 2025년 7월 28일(월) 한국사협 홈페이지 www.pask.net에 공시
- | 시 상 식 : 2025년 8월 30일(토) 14:00
- | 시상·전시장소 : 홍주문화회관
- | 전시기간 : 2025년 8월 30일 ~ 31일 (2일간)

시상

- |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 은상 1점 : 홍성군수 상장 및 상금 300,000원 (홍성군내 관광유적 및 명소사진에 한정)
- | 은상 1점 : 홍성군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300,000원
- | 동상 3점 : (사)한국예총 홍성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000원씩
- |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 |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부장 상장 (출품수의 20%, 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출품자 전원 작품집 또는 CD 증정
- |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출판, 전시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상작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 동일작, 유사작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된 경우 상권취소는 물론 사협규정에 따라 제재
- | 입상·입선작은 심사발표 7일 이내(8월 4일)까지 원본파일(3,000픽셀 이상)
E-mail : js6325386@hanmail.net으로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됨).
-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시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함 [단, 대리출선은 가능]
- | 낙선작은 작품집(CD)과 함께 개별 반송함

제17회

완주 전국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5년 7월 15일 ※ 입회점수 있음

작 품 내 용

- 미풍 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 품 규 격

- 11"x14" 컬러 및 흑백 (장정불요)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4점 이내 : 작품집 증정)

접 수 처

- 우)55093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90 G갤러리 4층 사)완주사협
(사무국장 : 010-4624-9253)
입상/입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 제출
(성명/작품명 기록) 제출처 : wanjuphoto@naver.com

접 수 마 감

- 2025년 7월 15일 (당일소인유효)

심 사 발 표

- 한국사협 홈페이지

시 상

- 금 상 1점 : 한국사협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 2점 : 완주군수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완주군의회 의장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동 상 3점 : 예총 완주지회장상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가 작 5점 : 사협 완주지부장상 (상장)
- 장려상 5점 : 사협 완주지부장상 (상장)
- 입 선 : 출품수 20% 이내 완주사협 지부장상 (상장)

기 타 사 항

- 사협 입회점수 인정됨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은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 입상/입선 작품은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의 초상권 등 민·형사상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짐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주최·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완주지부

후원 : 완주군·완주군의회·(사)한국사진작가협회·(사)한국예총 완주지회



제35회

원주전국사진 공모전

제61회 원주예술제 일환으로
제35회 원주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전국의 사진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9월 11일(목) 예정 도착분

응모
방법

- 작품 내용 : 미발표 자유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 작품 규격 : 컬러 및 흑백 (11" × 14") 정정불요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를 필히 기재한 출품표 부착
- 출 품 료 : 1인당 3만원
- 출 품 수 : 1인당 5점이내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접수기간 : 2025년 8월 11일 ~ 9월 11일(예정) 도착분
- 접 수 처 : (우)264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1길 39-14(단계동 915-8)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
- 연 락 처 : 사무실 033-748-7974 / 지부장 010-5362-7700 / 사무간사 010-9313-9866

심사
및 대상

- 심 사 : 2025년 09월 13일(토) 오후2시 (예정) (원주시청 지하 다목적실)
- 심사 발표 : 2025년 09월 15일(월), 원주지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ASKWJ.COM>
- 전 시 : 2025년 10월 21일(화) ~ 26일(일)까지 (예정) 원주예술제 행사기간 내
- 시 상 식 : 2025년 10월 25일(토) (예정) 오후2시 치악예술관전시실

대상
내역

- 금 상 :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외 / **작품구입비 100만원**
- 은 상 : 2점 (사)한국예총 원주지회장상 / **작품구입비 각 30만원**
- 동 상 : 3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상 / **작품구입비 각 20만원**
- 가 작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 상장
- 장려상 :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 상장
- 입 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원주지부장 상장(출품작의 20% 이내 정관에 준함)

기타
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
- 초상권은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동일작 및 유사작을 출품하여 입상 및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간 입회가 유보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협회 또는 지회, 지부, 도협의회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 할 수 있음.
- 입선,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5일 이내에 출력파일 3000픽셀이상
(원주지부 E-Mail : yyd5879@hanmail.net) 제출해야함.(미제출시 상권이 취소될 수 있음.)

주의

- 시상식 불참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천사운동 기금)으로 기부함.
출품작은 반송하지 않으며 상장과 작품집은 전시 및 시상 후 개별 송부함.
- 우편번호 미기재 시 반송우편물을 못 받을 수 있음을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드론 촬영 사진은 입상권 제외되며, 드론 촬영에 관한 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제3회

청주관광 (기록)사진 공모전

작품내용

- 자연경관 : 옥화9경, 청남대, 상당산성, 무심천, 미동산수목원, 무심천, 가로수터널, 정복동토성, 수암골 벽화마을, 초정약수 등 청주의 명소를 아름답게 표현한 사계절 모습
- 문화예술 : 청주의 관광, 청주공예비엔날레, 전통공예, 각종 축제 및 행사, 청주의 역동성을 담은 작품
- 생활상 : 도시전경, 농촌풍경 등 다양한 시민생활상과 시민들의 모습
- 청주의 문화재 모습(문화재, 문화유적지, 전통기록, 사찰, 박물관, 공공시설 등)
- 2005년 이전의 청주의 다양한 기록 사진
(예전의 축제와 문화행사, 시민들의 모습, 주요 시설물, 전통 풍습 등)

사진접수

- 참가대상 : 전국의 사진동호인 및 일반인
- 접수기간 : 2025. 6. 23.(월) ~ 7. 9.(수) 소인유료
- 접 수 처 : 28529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청주문화관 4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
- 작품 규격 : 11×14인치 흑백사진 및 컬라사진 판넬하지 말 것
- *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촬영년도 및 장소, 출품자 주소, 핸드폰번호가 있는 출품표 부착(미 부착시 접수 받지 않음)

- 출 품 수 : 1인 3점 이내
- 출 품 료 : 2만원
- 문의전화 : 지부장 010-2460-9418, 부지부장 010-2769-7171

작품심사

- 일 시 : 2025. 7. 13.(일) 10:00 ~
- 장 소 : 오창 농우관 (예정, 변동 가능)
- 방 법 : 심사위원 위촉 공개심사
- 발 표 : 2025. 7. 15.(화) 본부 및 지부 홈페이지 게시

시상내역

- 금 상(1점) 청주시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은 상(2점) 청주시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동 상(3점) 청주예총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가 작(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5만원
- 장 려(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 입 선(40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청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작품전시 및 시상식

- 기 간 : 2025. 9. 9.(화) ~ 9. 17.(수) (예정)
- 장 소 : 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 시상식 : 2025. 9. 13.(토) 14:30 (예정, 변동 가능)

기타사항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국·내외 미발표된 작품으로 과도한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은 수상작에서 제외한다.
- 입상·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향후 5년간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입선수상자는 가로 3,000픽셀 이상의 출품파일과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심사발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미 제출시 상권 취소됨.
- 제출처: paskcj@hanmail.net 문의 043-258-3894
- 금상 수상자는 20" × 24"의 사진을, 은상 및 동상 수상자는 16" × 20"의 사진을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 인화하여 제출하고,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미제출 및 시상식 불참시 상권 취소)
- 발표 및 문제작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추후라도 입상 및 입선의 상권을 취소하고 상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한국사진작가협회 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함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입선·낙선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작품집은 출품주소로 우편발송함
- 입상자의 상금은 시상식 후 본인 계좌로 송금 예정





제22회 전국 품바사진촬영대회

일시 | 2025년 6월 14일(토)~15일(일) 10시

장소 | 음성군 설성공원(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8)

마감 | 2025년 7월 3일(목)

참가 요령

- | 대회 일시 2025. 6. 14.(토) ~ 6. 15.(일) 2일간
- | 대회 장소 음성품바축제 행사장 일원 / 설성공원(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8)
- | 참가자격 제한 없음(전국의 사진동호인 및 일반인)
- | 참가 신청 행사장내 접수창구
- | 출품비 1인당 30,000원(중식제공 / 도시락)
- | 출품 내용
 - 1) 품바축제 행사기간중 촬영한 작품
 - 2) 당일 출연 모델을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모델촬영 2일)
- | 작품 규격 11" x 14" 칼라 및 흑백(원본파일이 2048x3072픽셀 이상으로 촬영한 사진)
- | 출품 수 1인당 4점 이내(접수증은 복사사용 가능함)
- | 출품 장소 (우 2770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86번길 4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음성지부
- | 접수 마감 2025년 7월 3일(목) (마감일 도착분)
- | 심사 일시 2025년 7월 6일(일) (공개심사)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예정)
- | 심사 발표 2025년 7월 7일(월) 홈페이지(www.pask.net) 게시
- | 전시 및 시상 2025년 8월 중(예정)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예정)

시상 내역

- ▶ 금상(1점) 음성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은상(2점) 음성군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동상(3점) 음성품바축제 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 가작(3점) 음성군 축제추진위원장 상장 및 상금 10만원
- ▶ 장려(5점) 한국사진작가협회 음성지부장 상장
- ▶ 입선 한국사진작가협회 음성지부장 상장



기타 사항

- | 입선 · 입상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됩니다.
- | 입상 및 입선작의 사진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주최측은 홍보, 전시, 출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입선, 입상자는 심사 발표 후 1주일 이내 원본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 금, 은, 동상 입상자는 16" x 20"의 사진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출연모델이 아닌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본 대회에서 촬영한 모델 사진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초상권을 청구합니다.
-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합니다.
-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요망(가족 및 대리수상 가능)
- | 문의사항 : 전화 043) 873-3289, 010-7412-3289 sing3289@naver.com



2025년

포항국제불빛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접수마감 : 2025년 7월 10일(목) 도착분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를 통한 사진예술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포항국제불빛축제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오니
사진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응모요령

작품내용 2025년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기간 중 촬영한 불빛, 불꽃, 부대행사 사진
※ 행사기간 : 2025년 6월 20일 ~ 6월 22일에 촬영한 작품

작품규격 11" x 14" 칼라 및 흑백(원본파일이 2048x3072픽셀 이상으로 촬영한 사진)
※ 네변에 테두리 한 작품은 심사 제외

출품료 및 출품수 1인당 20,000원, 4점 이내(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출품요령 사진 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출품표 부착
드론을 이용한 촬영 작품은 관계 기관의 인허가 증명서를 첨부. 미 첨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접수처 37722 포항시 북구 해동로 270 (2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연락처 지부장 010-3534-2605, 사무국장 010-2698-7006

심사 / 발표

작품심사 및 장소 2025. 7. 13(일) 13:00, 심사장소 미정(추후공지)

심사 발표 2025. 7. 14(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 단, 개별통보 없음

시상식 2025. 8. 12(화) 18:00 장소 : 포항시립 종양아트홀 전시실(예정)

전시 2025. 8. 12(화) ~ 8. 15(금) 장소 : 포항시립 종양아트홀 전시실(예정)

시상내역

금상(1점) 작품매입금 1,000,000원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상(2점) 작품매입금 각 500,000원 및 (사)한국예총 포항지회장 상장

동상(3점) 작품매입금 각 300,000원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 상장

가작(5점) 작품매입금 각 200,000원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 상장

장려(5점) 작품매입금 각 100,000원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 상장

입선 출품 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품 포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장 상장



기타 사항

- 행사일정과 장소는 포항시 홈페이지 및 행사관련 홈페이지 참고바람
- 수상자는 심사 발표 후 5일 이내 작품 원본 파일(긴변 3,000픽셀 이상) 제출 ◆ e-mail : focus7107@gmail.com
- 입상자(금, 은, 동, 가작, 장려)는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제출
- 낙선된 작품은 전시기간 중 전시장에서만 반출하고, 작품집은 전시종료 후 상장과 함께 개별 발송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작품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해야 함(불참시 상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음)
- 상금은 원천세 및 금융수수료 공제 후 지급함
- 추후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및 포항지부 홈페이지(popask.com)에 공지함.

주최 · 주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포항지부

후원 : 경상북도 · 포항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 (사)한국예총 포항지회

제21회 장 뜰 들노래

전국사진 촬영대회

중부 내륙의 중심지인 증평군에서 증평의 관광명소를 대외에 알리면서 증평장뜰들노래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하고자 하오니 사진애호가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촬영대회** 2025년 6월 7일(토) ~ 2025년 6월 8일(일)
- 행사일시** 2025년 6월 8일(일) 10:00 민속체험박물관 일대(남하리)
- 참가비** 30,000원(중식제공)
- 작품내용** 모찌기, 모심기, 들나가기, 새참나르기, 화평기원제, 감자캐기, 물고기잡기, 증평9경관광지 등
- 작품규격** 11X14 컬러 및 흑백(4점 이내)
- 접수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75번지 문화센터내 증평예총 043)835-3970, 836-7892
- 접수마감** 2025년 6월 26일 도착분까지
- 심사발표** 6월 30일 예정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 www.paskjp.kr)
- 시상내역**
- | | |
|---------------|---|
| 금 상 1점 | 증평군수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특별상 2점 | 증평군의장 상장 및 상금 150만원 축제 1점, 관광 1점 |
| 은 상 2점 | 한국예총 증평지회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동 상 3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및
벤로 맘모스 TMTH44C 카본삼각대 54만원 상당 |
| 가 작 5점 | 장뜰들노래 추진위원회 상장 및
벤로 ND1000 자석필터 12만원 상당 |
| 장 려 5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
| 입 선 | 한국사진작가협회 증평지부장 상장 입선작은 총 출품수의 20%이내 |

기타사항

- 입선, 입상 작품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입선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증 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자는 작품 파일을 jppask@naver.com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상장과 입상권만 작품집 제작하여 발송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 자격 유보

문의 사무국장 010-8255-8219 • 지부장 010-5469-9567



2025
제12회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전통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지리산 중심의 관광도시 남원에서 「제12회 남원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 방법

응모분야 남원을 대표로 하는 관광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자유작(2023년 이후 촬영한 사진)

- 관광명소(전경) -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국악의성지, 혼불문화관, 만인의종, 김병조미술관 등
- 자연경관 - 지리산 사계절, 범사골계곡, 철쭉, 요천벚꽃, 남원둘레길 등
- 축제공연 및 지역특산품 등 - 춘향제, 흥부제, 허브축제 등 각종 행사 체험활동

응모자격 제한 없음

작품규격 11"X14" 컬라(장정불요) / 남원시 촬영한 작품으로 드론 또는 디지털원본(600만화소 이상 저장) 첨부

출 품 료 1인 30,000원

출 품 수 6점 이내(작품집 증정)

출품마감 11월 22일(소인유효)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55775 전북 남원시남문로 446-2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지부장(010-6530-2609), 사무국장(010-6600-6306)

시상 내역

금 상 1점 : 남원시장상 및 상금 300만원

은 상 2점 : 남원의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남원예총지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원

동 상 3점 : 사협남원지부장상 및 상금 각 50만원

가 작 5점 : 사협남원지부장상 및 상금 각 30만원

입 선 70점 : 사협남원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출품작의 30%이내)

행사 일정

접수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22일(22일 소인유효)

심사발표 2025년 11월 30일 중 개별통지 및 남원지부 홈페이지에 게시(<http://Cafe.daum.net/photo-nw>)

작품전시 2025년 12월 중

- 1)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하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상·입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의 일체권리(저작권 등)는 출품자에게 있고 저작물 사용권은 주최 측에 있으며 향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입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금·은·동상 입상작은 16" x 24"로 인화한 작품을 발표 5일 이내에 지부에 제출바랍니다.(※출품작은 개별반송 안함)
- 4) 타공모전 수상작, 지적재산권 침해작품, 초상권, 타인의 명예훼손, 합성사진, 타인의 저작물 명의도용 등으로 판명된 작품은 상권이 취소되고 상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 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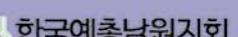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후 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



제34회

경상남도 사진대전 요강

경남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접수마감 2025.6.27.(금) 17:00 도착분

출품자격

만18세 이상으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자(도내 각 지부회원은 제한 없음)

일반공모

내용 : 국내외 미발표작으로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작

규격 : 11in×14in 컬러 및 흑백사진(장정불요), 당선작품은 20in×24in(장정불요) 발표 후 10일 이내 제출
장정비 40,000원 미입금 시 상권 취소(다입상, 입선작 1점이라도 미입금시 상권이 전부 취소됨)

출품원서 및 출품표 작성 : 작품명,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출품수 / 출품료 : 1인 4점 이내 / 1점 4만원, 2~4점 6만원

대상 작품 : 30in×40in 액자 제작하여 발표 후 20일 이내 제출

입선·입상작 : 7일 이내 원본 이메일 발송(mrlee1970@naver.com)

초대·추천 작가

규격 : 28cm×36cm(11×14in) 흑백 또는 칼라 인화사진 1인 1점

인쇄용 사진파일 제출 : 형식 = jpeg, 크기 = 3,000×4,000

※ 제출방법 : 사무국장 이메일 mrlee1970@naver.com(파일이름 수정 : 소속지부명, 성명, 작품명, 필히 수정)

전시작품 제출일 : 2025년 9월 8일(월) 10시, 전시 장소

전시작품 규격 : 50cm×76cm(20×30in) 액자를 포함하여 1변이 80cm 이내

출품절차

원서배부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및 도내 각 지부

접수마감 :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도착분

접수장소 : (우 52791) 경남 진주시 동진로 183,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5층(상대동, 태웅빌딩)

연락처 : 지회장 010-3577-9515 / 사무국장 010-3861-7575

심사

심사일시 : 2025년 6월 29일 일요일 10:00

심사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농업기술원 천심관 (초전동)

심사발표 : 2025년 7월 1일 도내 일간지 및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www.pask.net)

시상 및 전시

대상(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금메달

최우수상(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은메달

우수상(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은메달

특선(입선작의 10%)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은메달

입선(전체 출품 수의 20%)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초대작가상(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금 배지

추천작가상(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장 상장 및 금 배지

시상일시 : 2025년 9월 14일(일) 오후 3시 전시장소 (예정)

전시기간 : 2025년 9월 8일(월) ~ 9월 14일(일) (예정)

전시장소 :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 (경남 진주시 강남로 215) (예정)

유의사항

① 낙선작품은 심사당일 각 지부별 반출하고, 당선작품과 초대·추천작품은 전시종료 시에 전시장에서 반출함.

(7일 이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함.)

② 동일 작품 및 유사작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 및 사협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됨.

③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 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④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출품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참고사항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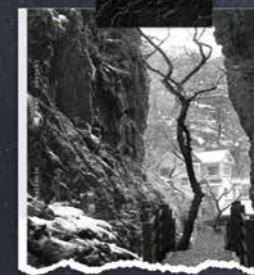
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지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GYEONGSANGNAMDO BRANCH

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한반도평화수도 PAJU



제11회

파주평화 전국사진공모전

(파주 문화예술, 관광, 축제, 농촌풍경 무대)



응모 요령

- 작품내용 :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 미발표 자유 작품
- 출품규격 : 11X14 칼라 및 흑백사진 (장정불요)
- 출 품 력 : 1인당 (4점 이내) 2만원
- 송 금 처 : 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 (농협:351-1222-3499-93)
- 출품마감 : 2025년 5월 24일 (당일소인유효)
- 출품방법 : 뒷면에 작품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정확히 기재
- 출품장소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타 2층 (우:10894)
지부장 : 010-4072-9700 부지부장 : 010-8725-4270

마감
2025년
5월 24일

심사일시 : 2025년 5월 31일(토) 오후 2시

심사장소 :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

심사발표 : (사)한사협 홈페이지 (<http://www.pask.net>)

파주지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paskpj>)

시상 및 전시 : 2025년 7월 5일(토) 운정행복센타 다목적홀 오후 1시

작품반출 : 낙선작품과 작품집은 시상식 후 15일 이내 우송함



행사 일정

- 
- 시상 내역
- 금 상 1점 : 파주시장 상장 및 상패
 - 은 상 2점 : 파주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패
 - 동 상 3점 : 파주시 예총회장 상장 및 상패
 - 가 작 5점 : (사)한사협 파주지부장 상장 및 상패
 - 장려상 5점 : (사)한사협 파주지부장 상장 및 상패
 - 특별상 5점 : (사)한사협 파주지부장 상장 및 상패 (파주사진에 한함)
 - 입 선 : (사)한사협 파주지부장 상장 (출품작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 
- 기타 사항
- 입상, 입선작은 (사)한국사진협회 입회 절수가 인정되어 입상, 입선작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고 사용권은 주최·주관측과 파주시청에 있으며, 도서출판 등 공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유사작이 입상·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 입회자격 유보.
 - 이중접수는 절대 불가하며 발견시 심사에서 배제되며 출품료는 반환치 않음.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의 책임.
 - 입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하여야 되며 불참시 상패는 배송하지 않음.

|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지부

| 후원 | **파주시, 파주시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파주예총, (주)브이티 지.엠.피**

문화자원

마장호수출렁다리, 감악산
출렁다리, 황포돛배, 임진각,
자운서원, 반구정, 파주
삼릉(공릉관광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헤이리예술
마을, 파주출판도시

제8회 신안 전국사진공모전

마감 : 2025년 6월 13일-소인유효 (입회점수 있음)



출품자격	제한없음
출 품 료	1인당 2만원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은 국내외 미발표 자유작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11in x 14in) 장정불요
출 품 수	1인당 4점이내
접 수 처	우 58638 전남 목포시 원산로 59번길35(3층)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지부
연 락 처	지부장 010-2222-5100, 사무국장 010-3612-2260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도로명 주소), 성명, 연락처, 우편번호, 촬영장소를 필히 기재한 출품표 부착하여 택배 및 등기로 접수
심사일시	2025년 6월 21일 예정
심사장소	목포유달예술타운(전남 목포시 유달로 180)
심사방법	공개심사
심사발표	2025년 6월 23일 예정(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개전 및 시상일시	2025년 8월 9일(토) 오후 15시
시상장소	목포종합예술갤러리(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전시기간	2025년 8월 7일(목) ~ 8월 14일(목)
전시장소	목포종합예술갤러리(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시상내역	
금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상 2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지부장 상장
동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지부장 상장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지부장 상장
장려상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신안지부장 상장
입 선 :	총 출품작의 20%이내(입상작 포함) 지부장 상장

작품반출
출품하신 작품은 반송하지 않으며, 전시종료 후 작품집과 상장 송부

기타(유의) 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초상권은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도한 디지털 합성 및 수정작은 심사에서 제외됨.
- 입상 및 입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동안 공익적인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에 사용할 수 있음.
- 타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기 발표작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상, 입선 취소 및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본회 입회를 7년간 유보조치 할 수 있음.

1004
천사섬



제25회 남양주 전국 꽃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 2025.5.30(금) 도착분

응모요령

응모자격	제한없음
작품내용	자유작 / 꽃이 들어간 국내외 모든작품(미발표작에 한함)
작품규격	11"×14" 컬러 및 흑백
출품료	인당 30,000원 / 2점 이상 4점 이내
접수처	12257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70-1(한양사진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남양주지부 지부장 김정혜 : 010.5440.4157 사무국장 남윤세 : 010.7227.5672
접수마감	2025년 5월 30일(금) 도착분까지
심사일시	2025년 6월 6일(금) 13:00
심사장소	남양주 문화원 4층 강당
심사발표	2025년 6월 9일(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 남양주지부카페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namyangjuphot
개전 및 시상일시	2025.6.28(토) 오후 3시
시상장소	리멤버 1910(이석영 광장) 지하 전시실(남양주시 경춘로 946)
전시기간	2025.6.28(토) - 7.4(금)오전까지 (오후철수)
전시장소	리멤버 1910(이석영 광장) 지하 전시실(남양주시 경춘로 946)

시상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은상 2점	남양주문화원 원장 상장
동상 3점	(사)한국예총 남양주지회장 상장

기타사항

- 입상, 입선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점수 인정함 (입상, 1인 1작품으로 선정함)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협회 또는 지회, 지부에서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작품의 원판필름 파일(긴 변이 3000픽셀 이상)을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이메일 : rsa102@hanmail.net)
- 동일 작품 및 유사 작품을 출품하여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 취소는 물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동안 유보됨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반송함
- 작품 뒷면에 꽃이름, 성명, 우편번호, 주소, 촬영장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꽃사진 공모전에 출품하시는 분은 출품표 양식을 참고하시어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상권 문제는 출품자에게 있으며,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진작가협회 문제작, 심의규정 및 본 요강에 정한 사유에 의거 상권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의적 요구에 의한 상권 취소는 불가함



제19회 계룡 전국사진공모전

마감일 2025년 6월 5일 (소인유효 · 입회점수인정)

출품자격 제한없음(전국사진애호가)

작품내용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미발표 창작 및 자유작

작품규격 칼라 및 흑백 11x14"(장정불요)

출 품 수 1인 4점 이내

출 품 료 1인 2만원

접 수처 우)32829 충남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18-19(예총계룡지회 내)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문 의 처 지부장 010-4188-0120, 부지부장 010-5081-7191

출품요령 작품뒷면에 작품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명기

심사일시 2025년 6월 14일(예정)

심사장소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공개심사

심사결과발표 2025년 6월 15일(예정),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시상내역 : 금상 1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2점-계룡시장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동상 3점-계룡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가작 5점-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장 상장

장려 5점-사)한국예총 계룡지회장 상장

입선 출품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장 상장

전시개막 및 기간 : 2025년 6월 20일 ~ 22일(3일간 예정)

전시장소 : 계룡문화예술의전당 2층 전시실

작품반출 : 낙선작은 작품집 동봉하여 개별 발송

기타(유의)사항

- 입상(선)작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으며 주최 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5년 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복제, 배포, 전시, 전송할 수 있음
- 작품의 초상권问题是 출품자에 책임이 있음
- 동일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협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입회 자격이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보됨
- 입상(선)작은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kyhjcs@hanmail.net로 제출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계룡지부
후원 계룡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도지회
(사)한국예총 계룡지회

제33회 울산 전국 사진 공모전

접수마감
2025년 6월 3일(화) 도착 분
(사협 입회점수 인정)

사진인구 저변 확대 및 참신하고 유능한 사진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사진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출 품



심 사

- **심사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3:00
- **심사방법** : 공개심사(울산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아트홀)
- **심사발표** : 2025년 6월 9일(월)(협회 및 울산지회 홈페이지-<http://www.uspic.net>)

시 상

- **일 시** : 2025년 8월 13일(수) 18시 30분(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
- **전시기간** : 2025년 8월 13일(수) ~ 8월 18일(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장
- **시상내역**
 - ▶ 금 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은 상 2점 : (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 동 상 3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 가 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 ▶ 장려상 5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 ▶ 입 선 (출품작의 20% 내외 - 입상작 포함)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장 상장

기 타

- 입상,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울산광역시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에서는 수상작품에 한하여 홍보나 공익적사업에 향후 7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 출판에 사용할 수 있음.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 작품집 증정.
- 동일작 및 유사작으로 입상 입선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사협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음.
- 수상 작품은 원판필름 또는 디지털 이미지 작품은 긴변이 3,000픽셀 이상의 원본 파일을
2025년 6월 16일까지 제출 요망. Only 웹하드(Only.webhard.co.kr : 아이디 uspic 비번 3001)
미제출시 상권 취소됨,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가 책임진다.

◆ 주최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후원 : (사)울산광역시 (사)울산광역시의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 본 행사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 받은 행사이며

2025년 제25회

여주전국 생태사진 공모전

접·수·기·간

2025. 7. 1(화)~14(월) 소인유효



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사진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25회 여주전국생태사진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사진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최·주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

■후원 : 여주시·여주시의회·**(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주지회

응·모·방·법

작품내용 생태계 사진으로 동·식물(꽃, 곤충, 새, 파충류 등),
(자연, 산, 강, 갯벌, 바다, 수중생태) 풍경 등 창작적
이며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국내·외 미 발표작

응모자격 제한 없음

작품규격 컬러 및 흑백 11" x 14" (합성을 제외한 작품, 판넬 불필요)

출품 수 1인당 4점 이내

출품료 1인당 3만원(작품집 발송 및 반송료 포함)

※ 5만원 상당의 최고급 작품집 발송

출품방법 작품 뒷면에 작품명,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접수기간 2025년 7월 1일(화) ~ 7월 14일(월) 소인유효

출품장소 (우편번호 1262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번길 19-1,
(창동) 2층 흥창회사진관

연락처 지부장 010-2644-1056 / 사무국장 010-8742-4521

심사일시 2025년 7월 20일(일)

심사장소 여주시청 대회의실

심사발표 공개심사 후 사협 홈페이지 발표 (<http://www.pask.net>)

시상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전시기간 2025년 8월 26일(화) ~ 9월 15일(월) 21일간

전시장소 여주시 금은모래 작은미술관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연양동 304-8)

시·상·내·역

금상 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점 여주시장, 여주시의회의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점 (사)한국예총 여주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장려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장 상장
입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여주지부장 상장
(총 출품수의 20% 내외)

유·의·사·항

- 입선 이상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인정함.
- 입상, 입선작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으나 주최 측은 수상
작을 협회 또는 도서출판 등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 입선된 경우 상권이
취소되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은 징계 조치, 비회원은
입회 자격이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유보 됨.
- 출품작의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출품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 입상자는 시상식에 필히 참석 요망.(불참시 상금은 본 지부에
귀속 함.)

공모전용 무한잉크 포토프린터

11R=500

EPSON

- 정품무한잉크
- 4x6 2,100장 출력기능 엡손자료(L8050, L18050)
- Wifi
- 출력속도 27초 (4R기준) 엡손자료(L8050, L18050)

용도	모델명	최대출력크기	정품무한잉크	협회 회원 특가	조건
공모전용	L18050	~ A3w(13inch)	6색 70ml	495,000	용지 5면원 함께 구매시 (용지선택자유)
개인용	L8050	~ A4w(8inch)		345,000	
A3 복합기	L8180	~ A3w(13inch)	6색 흑백특화	609,000	-

신지 스튜디오클럽은요! (프린터 구매시 사진관 가격으로 잉크&용지&액자 구매 가능)

포토프린터&정품잉크	원목액자	사진용지	축제·행사 장비대여
Canon EPSON 사진관 전용 가격 제공 최대 30% 할인	Natural, Brown 11R=6,600원	Canon EPSON SINJI 사진관 전용 가격제공	1분 출력 촬영 + 즉석출력 현장에서 바로



공모내용

- 출품자격 : 전국의 사진작가와 사진동호인, 일반인 등 제한없음
- 작품규격 : 파일제출 (jpg, jpeg형식)
※ 사진의 길이 쪽이 4,000픽셀 이상, 파일 용량이 5Mbyte 이상일 것 (규격 엄수)
- 출품수 : 1인 4점(출품원서 및 서약서 제출) • 출품료 : 없음
- 작품접수 : 사진접수 전용 이메일(jppask702@gmail.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낙선작은 공모전 완료 후 10일 이내 일괄 폐기함)
- 접수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8일 18:00까지
- 심사일자 : 2025년 6월 11일(수) (사진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 심사발표 : 2025년 6월 13일(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홈페이지(www.jejupask.com)
- 시상일시 : 2025년 7월 중 (예정)

시상내역

- 금상 1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상 상패 및 상금 각 50만원
- 동상 3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상 상패 및 상금 각 30만원
- 가작 5점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장려 5점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 입선(출품작의 20%이내)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상장

기타사항

- 출품작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본인 사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시 상권의 취소 및 공모전 업무방해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수상작이 합성작이거나 발표작, 유사작, 표절 작품으로 판명될 시에는 시상 이후라도 상권을 취소하고 상금을 반환해야 함.
- 작품내용 중 인물의 초상권 침해사항은 출품자가 사전동의 등 책임을 짐.
- 수상작은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전시, 복제, 배포, 공중 송신 아카이빙, 도서제작, 온라인게시 등 공익적 사업에 별도의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출품자는 출품원서와 함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초상권 및 저작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서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문의처 :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064-702-7117 지회장 : 010-3691-6286